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 ○ 성

이번 봄학기 봉사활동은 제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완료한 다섯 번째 봉사활동입니다. 2013년 봄에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처음 알게 되어 당해 여름학기 고등학생 봉사활동 신청을 마음먹었던 시점으로부터 만으로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완전히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법률소비자연맹은 그대로입니다. 자유의 보루이자 민주주의 핵심인 평등한 법치를 위하여,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구심적인 자유를 위하여, 법률소비자연맹은 가족과 민생, 정의와 법치를 위한 지렛대 시민운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옳바른 시민운동을 위하여 조금의 금전적인 정부 지원도 받지 않고 오로지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만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수호하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늘 한결같은 열정으로써 참된 시민단체의 길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전 여름,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들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강당을 빼곡히 채운 동년배 청소년 학우들과 다닥다닥 붙어 앉아, 교단에 서신 연맹 총재님의 정열적인 강의를 들었죠. 그 당시를 회상하여보니 오리엔테이션 교재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소중히 읽으며 총재님 강의를 몹시 집중하며 들었던 저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막연하게 법조인의 꿈을 품고 있던 열여덟 살의 어린 학생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법률 운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보고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지요. 그 당시 강의 내용을 열심히 필기했던 수첩이 아직 서랍 깊숙한 곳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계획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법적 분쟁과 치열한 논리적 토론이 오가는 재판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여 유능하고 정의감 투철한 변호사로서 부당한 폭력에 희생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법 앞에 평등한 주권자로서 선진 민주사회의 혜택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변호사로서 이러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면, 그 사명감의 상당 부분은 분명 법률소비자연맹에서 10년간 봉사활동을 하며 체득한 바가 클 것입니다. 법률 소비자 시민운동의 선순환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분들과 자원 봉사자들 모두의 앞날에 성취와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김 ○ 무

2023학년도 봄학기 봉사 활동을 소감문을 작성하며 마무리합니다. 2022년 12월말, 저는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실에서 행정봉사 하는 것으로 법 관련 활동에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을 겨우 부여잡고 도착한 사무실에서 윤소라 부장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을 처음 뵈었습니다. 법 관련 봉사라 막연하고 어려울 거 같았지만, 김대인 총재님께서 몸소 친절히 연맹의 활동 의의를 설명해 주시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당시 국회 여러 위원회의 회의록을 엑셀에 입력하는 작업을 했는데,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입법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연맹에서 경험한 다음 활동이 마침 국회 간이체험학습행사 참석이었는데, 위 두 활동은 국회의 사당 안에서 실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한층 더 성숙한 유권자로 나아가갈 수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국회의 사당에서 기존 법률소비자연맹 우수봉사자 시상식 및 우수활동 국회의원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처음 경험한 국회는 생각보다 더 엄숙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국회의원 및 같이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여러 학우들을 보니, 제 법조인의 열망이 더욱 강해졌던 하루로 기억에 남을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 활동은 법정모니터링입니다. 법정모니터링은 이번 동계학기에서 연맹에서 가장 중시

한 활동으로 최소 9개의 재판부를 모니터링 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 3개의 법원을 다녔는데, 법원 또한 국회의 사당과 마찬가지로 처음가보는 것이었기에 무척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

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재판장 안에 들어가서 검사님과 변호사님, 죄수복을 입고 구속된 피고인을 보니 정말 긴장되고 엄숙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막연히 법조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저의 눈앞에 검사, 판사, 변호사

라는 저의 미래 희망 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니 저의 목표에 대한 감동이 커졌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사람들의 재판을 방청하며 '세상에는 신기한 일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을 나와 함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떠오르는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법부로 돌아와 국회의원 공약 이행 조사를 하였는데, 저는 서울 강동구를 이해식 의원과 부산 부산진구를 이현승 의원의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공약 이행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앞선 활동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위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강동구와 부산진구는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의 공약을 살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저의 나날들을 반성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인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뿌듯함을 넘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2023년도 봄학기로 기억에 남을 거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모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유 ○ 지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나에게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이번 학기 가장 의미있고 가치있는 활동이었다. 본 자원봉사 활동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공동체 전원 또는 대다수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전체성 있는 활동이기에 내가 사회에 공헌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뜻깊은 기여를 하는 것 같아 뿌듯했다. 이 같은 연맹 단체가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참 다행이었고,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위해 꼭 유지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단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봄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 의정모니터링이었다. 공약이행률 조사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들에게 제시하였던 약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을 앞두고 전수조사하는 활동이다. 나는 총 4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사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선거 기간만 끝나면 그 이후로는 당선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무관심인 경우가 정말 많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는 정말 중요한 요소임을 이론적으로 는 정말 잘 알고 있었는데 사실 실천하기는 쉽지 않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모든 공약을 검토하고 판단 근거를 토대로 나름 주관적이지만 주어진 기준에 따라 점수도 매겨볼 수 있었다. 그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기 했지만 하나하나 열심히 찾아보니 어느 정도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 공약이 정말 실현성 있는 공약이었는지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의정 모니터링이 다른 활동보다도 나에게 가장 인상깊은 활동이었고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게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들어간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수행했다. 두 번째로 인상깊은 활동은 바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이다. 이 설문이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최대한 많은 표본을 뽑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주변의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부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질문이 날카롭다', '정치적이라 조금 민감하다' 등과 같은 피드백을 받았지만 반대로 '나의 법적·정치적 신념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누군가가 해야 할 꼭 필요한 설문인 것 같다' 등과 반응도 받았다. 나도 후자가 가까운 생각이다. 특히 모든 설문조사가 끝난 뒤 메일로 법·정치

의식 관련 설문조사 관련 기사 및 보도 자료를 전달 받았을 때 내가 응답했던 익숙한 질문들이라 신기하기도 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 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박 ○ 수

벌써 세 번째로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끝이 났다. 작년 가을과 겨울에는 국정감사 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이번 봄학기에는 필수활동인 의정모니터링 활동과, 인구소멸위기 특집 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그리고 세 건의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다. 아무래도 졸업 준비와 리트 공부를 병행하는 학기이다 보니 봉사활동까지 하면 부담스러운 것 같아 걱정했는데, 세 번째 참여라 예전보다 적응되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제21대 국회의원 공약분류 점검과 공약이행률 2차 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이왕이면 나와 연관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학교가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지역 국회의원인 이수진 의원 모니터링을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아직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공약들이 많았고, 자료가 아예 없거나 공약 자체가 중복된 건수도 꽤 있었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인데 지역구를 위해 눈에 띄게 해낸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남은 임기는 대표자로서 지역구의 성장을 위해 더 노력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한 명은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이었는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어서 그런지, 지역의 교통 편리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리고 국회의원 본인 블로그에 홍보자료라던가 활동 성과들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어서 공약 이행을 점검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번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선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뽑힌 국회의원이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과정도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권리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겠다고 느끼게 되었다.

또 다른 필수활동으로 대학생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를 했다. 같은 학교 친구 10명에게 부탁해서 설문지를 주고 답변을 받았는데, 다들 최근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고, 결론관에 대해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공통적으로 설문 내용이 너무 편향된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다음 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에는 중립적인 조항 위주로 설문지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판결문 리서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여성 연예인에 대한 댓글 모욕죄 판단에 관한 사건, 생명보험약관상 심신상실상태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 면책이 정당한 사건으로 진행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문은 '생명보험약관상 심신상실상태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 면책(대판 2017다281367)'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에 초등교사들이 아이들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로부터 억울하게 아동학대자로 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PD수첩 방송을 보았었는데, 해당 판결문이 초등교사가 학부모의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결국 자살하게 되어 이후 인한 보험금 수령이 문제된 사건이어서 더 안타까웠다. 교권이 추락하는 요즘 직업으로부터 위기에 처해있는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판결문 리서치를 처음 할 때는 그동안 공부하면서 판결문을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예전보다 속도도 붙고 더 깔끔하게 쟁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스스로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이번 학기에 배운 형사소송법이나 지난 학기에 배운 회사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해보아겠다고 생각했다.

끝으로 봄학기 봉사활동을 마치며 전공 지식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0시간의 봉사 완주를 무사히 성공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이 크다. 여름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단원으로 지원하여 열정을 가지고 또 새로운 봉사활동에 참여해야겠다.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 ○ 우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대학생 봉사

자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학교 활동 외의 대외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었고,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이었는데, 법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서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사법감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또, 별도로 시간을 내어 여단가에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재택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기와 병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망설이지 않고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수행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번 학기 수행한 봉사활동은 판결문리서치와 필수활동으로 지정되어 있던 의정모니터링 및 법정치의식 관련 설문조사였다. 선택활동으로는 판결문리서치를 택하여, 한 학기 동안 총 4건의 판결문을 읽고 리서치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2건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 1건의 형사 병역법 위반 사건, 1건의 소비자단체소송 사건을 다루었다.

4건의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소비자단체소송 사건인 것 같다. 현재 학교에서 복수전공으로 소비자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소비자 권익 침해 사건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 등에 관심이 많은 편이기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중지 및 금지'라고 되어 있던 판결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인데, 판결문을 읽다보니 선택한 판결문이 소비자단체소송 판결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비자단체소송 제도에 대해서는 전공 수업에서 소비자 관련 법에 대하여 공부하며 배운 적이 있기도 하였고, 또 학교 학회활동 중 소비자단체소송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본 적도 있었지만, 실제 소비자단체소송 사례로는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였다. 또, 소비자단체소송 사건의 판결문을 본 것도 처음이어서 판결문리서치 활동으로 읽게 된 첫 판결문이라는 하였지만, 어렵지만은 않게, 흥미를 가지고 리서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은 소비자가 티머니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티머니 카드 회사에서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중지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었는데, 약 5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은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5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결국은 소비자 패소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 제도 자체가 도입된 것은 2007년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었는데, 1심 판결이 2017년에 선고되었던 것에 비해, 3심 판결은 2022년 6월이 되어서야 선고된 것을 보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이를 보면서 판결 내용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 이유가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였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3심까지 간 것에 비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지 않은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들었다. 또,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것만이 가능한 소비자단체소송 외에 집단소송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2건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 중 한 건 또한 소비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인 소비자들이 사용한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피고인 정수기 회사 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판결문이 각각 30장에 달할 정도로 매우 길었기 때문에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지만, 앞선 소비자단체소송 사건과 달리, 소비자가 승소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의 판결문 중 특히 1심 판결문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3가지 법리 중 어떤 것을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각각 검토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었다. 판결문을 따라가다 보니, 제조물 책임,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이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며, 어떠한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는지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니켈 성분 검출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 및 취지 상 피고인 정수기 회사에게는 중금속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음을 알려야 할 부수적인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켈 성분 검출을 알게 된 피고가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채무불이행 책임 및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판결문을 읽기 전에는 정수기는 제조물이니 당연히 제조물책임법 상의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판결문을 읽다 보니, 제조물 책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조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등 보다 까다로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결국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니켈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던데, 이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익 증진에 기여해보겠다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지만, 바쁜 학기와 병행하다 보니, 길고 어려운 판결문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 판결문리서치 활동과 70개가 넘는 국회의원 공약 이행 현황을 일일이 조사해야 했던 의정 모니터링 활동이 버겁게 느껴졌던 때도 있었지만, 소감문을 작성하며 되돌아보니, 법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스스로 판결문을 찾아 읽어보며 공부할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본인 스스로에게도 한 학기 동안의 이 봉사활동 기간이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오 ○ 아

2023년도 봄학기, 처음 참여했던 자원봉사는 제게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청년대학생법정치의식설문조사, 번역봉사, 판결문리서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법조인이라는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기에 더욱 값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난 후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번아웃으로 인해 오랜 무기력감에 빠져있었습니다. 대기업, 회계사, 금융계, 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는 동기들을 보며 조바심과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더러, 다른 동기들보다 취업을 늦게 하게 될 것이 두렵고 망설여졌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제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법조인이라는 진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진로를 선택했을 때 들여야 할 노력과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을 만큼 이 직종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고 싶어 호기롭게 시작하게 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봄학기 봉사활동을 끝내고 나니 제 질문들의 답을 찾은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학기 휴학계를 내고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제에게는 이곳에서의 봉사활동이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법 지식은 실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고, 매일 같이 처리해야 하는 법원 문건은 제게 너무나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각지의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노동위, 공정위, 헌법재판소 등에서 보내오는 문건은 대학생 신분이었던 제가 일전에 한 번도 접해볼 수 없는 것이었기에 판결문 리서치와 같은 봉사활동은 제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서치를 진행하며 5번, 많게는 10번까지도 판결문을 읽어보며 사건 개요나, 사건의 인과관계, 판단법리 등을 파악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차분히 시간을 들여 판결문을 읽어보니 매번 어렵다고만 느껴졌던 문건이 조금씩 익숙해졌고, 직무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 외에도, 다른 나라의 헌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번역봉사나, 실제 재판을 방청하며 법원의 분위기를 체험해보는 사법감시배심원단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자 했던 초반의 다짐이 다시금 기억납니다.

봄학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느꼈던 뿌듯함과 확신은 앞으로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참여하게 될 활동들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2023년도 여름학기 봉사활동에도 초심 그대로 성실히 참여하여, 더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봄학기 동안 정말 감사했고, 다가오는 여름학기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서울여자대학교 저널리즘전공 한 ○ 은

우선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던 법률소비자연맹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문의도 많이 드렸고 제 개인 일정으로 추가적인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법과는 무관한 전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한 뒤에 직접 사회생활을 하며 법과 관련된 직무에 관심이 생겼고,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회적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닌 저는 무지하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지 못하였고, 이에 조금 더 법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신청하였던 것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택으로 진행하였던 의정 모니터링 활동과 판결문 리서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준 활동이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은 제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준 활동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하였지만 부끄럽게도 공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쓰지 못하였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약으로 국민들 앞에 서며, 공약의 이행이 곧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란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라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의 공약을 꾸준히 점검하고, 선거에서도 이행이 가능한 공약인지 꼼꼼히 따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제가 가장 많은 것을 얻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판결문을 하나하나 뜯어본 경험이 전무하여 처음에는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러차례 다시 읽어보니 점차 이해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나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 ‘나라면 판결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썼을텐데’ 등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사건과 더불어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도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복기하는 것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재판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법정이라는 딱딱함을 깨주면서도 동시에 다시 느끼게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재판은 공개재판주의가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일반 시민이 재판을 참석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 방청을 하면서 몇 차례 “무슨 일로 오셨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재판 방청을 막는 일은 없었음에도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법정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이 되길 바라게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였던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관련된 제 상식과 인식이 조금은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꾸준히 복기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최 ○ 식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으로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된 법정치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활동, 독일어로 작성된 독일연방선거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봉사,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에 대한 조사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법정치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활동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자 참여하였습니다. 직접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이

를 통해 젊은 세대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정치에 대한 중요성과 개인의 목소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연방선거법 번역봉사는 언어와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시키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독일어로 작성된 법률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와 법적인 내용의 정확한 전달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번역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언어 능력과 법률적 사고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더 나아가 법률 분야에서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 이행률에 대한 조사 봉사는 직접 현실과 정책의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선거 공약의 이행여부를 조사하면서 정치의 실재와 공약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업무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권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경험하고, 시민들의 관점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얻은 소중한 경험과 인사이트는 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학기에도 비슷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더욱 쌓고자 합니다. 미래에는 법률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계속해서 자기 계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법치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정치와 법률의 관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독일연방선거법 번역봉사를 통해 법률과 언어의 조화를 이루는 법조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 봉사를 통해 현실과 정책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정치적 결정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이유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위해 법률의 틀을 활용하여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봉사활동들을 통해 얻은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률 분야에서 봉사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마무리로, 독일연방선거법 번역봉사, 그리고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사회에 기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조 ○ 아

법조인에 대한 꿈을 꾸면서도 학교에서 듣는 교양 수업 외에는 깊게 공부할 기회는 적었습니다.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이번이 벌써 3번째 활동이 되었습니다.

OT와 함께 자료집을 받았고, 관심이 있었던 의정모니터링 활동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신청했습니다. 관련해서 미리 작성된 샘플을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을까 라고 느껴졌지만, 활동을 접점 해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3명의 국회의원에 관해서 공약분류/분석과 공약이행률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공약을 꼼꼼히 읽어보고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 이러한 공약을 내세웠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생소했던 지역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공약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달성해나가는지, 추후에 공약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에는 일정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여 공약이행률을 판단하고,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리서치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이행률을 판단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줬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부당금],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에 관해서 판례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판례를 꼼꼼히 읽어보고 쟁점 정리, 사실관계 정리, 대법원의 판단, 저의 생각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생소했던 법률용어와 관련 판례들과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복잡해 보였던 판결문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법관들이 판결문을 작성해나가는지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양식에는 1심, 2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본인이 판사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등의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이 스스로 깊은 사고를 해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줬던 것 같습니다.

이번 2023년 봄학기 봉사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신청해서 의정모니터링은 물론 언론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등의 다른 활동들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법조인의 꿈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앞으로의 활동에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중간 중간 봉사활동 신청할 때나 피드백 시 늘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활동하는 데 있어 훨씬 수월했었고,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연맹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정 ○ 지

두 번째 봉사활동 소감을 남기기 앞서 항상 봉사활동을 적극 보조해주신 법률연맹 담당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결과물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피드백 남겨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법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었습니. 학교 강의실이 아닌 일상에서 법을 접할 기회를 찾던 중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가 다양하고, 대단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재택 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중국 어학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번역 봉사 활동에 꼭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하였고 이번 학기에는 의정모니터링, 법의 날 설문조사, 번역봉사, 판결문 리서치 총 네 가지 활동을 마쳤습니다. 각각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수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과 법의 날 설문조사는 이번 학기 필수활동이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은 배정 받은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류하고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공약 분류는 선거 공보를 참고하면 금방 마칠 수 있으나 공약 이행을 조사는 조금은 몸을 들여야 하는 작업입니다. 국회 홈페이지, 의원 블로그, 뉴스 기사 등 다양한 정보원을 참고하여 이행 상황을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최근에 달라진 점은 없는지 이중으로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직접 공약 이행 현황을 조사하면서 단순 표심연기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한편 4월 중 진행된 법의 날 설문조사는 20대 청년들의 정치의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봉사입니다. 법률연맹에서 제공하는 설문지 파일을 주변 친구들에게 보내고 답을 받아 정리하기만 하면 되는 활동이라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공을 살려 중국어 번역 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조합법>을 배정받았습니다. 직접 번역하며 느낀 점은 어학 실력만큼이나 해당 국가

의 사상적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역문을 법조문의 문체에 맞게 다듬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노동조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공부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어색한 부분은 번역 봉사 담당자님과 의견을 나누면서 고칠 수 있어 큰 부담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공인 어학과 관심 분야인 법학을 연결 지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하고 가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위의 활동들을 하고도 시간이 조금 남아 판결문 리서치에도 도전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관심 있는 판결문을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시간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활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사건에 관심이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명예훼손죄 판결문을 정리했습니다. 판결 속 생생한 사례를 통해 조문의 어떤 구성요건이 실제 재판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만큼 복잡한 작업은 아니니 자신의 힘으로 판례를 공부하고 싶은 봉사자라면 참여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률연맹 봉사는 법,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을 쏙 따주는 계기이자 전공과 관심 영역을 연결 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입시와 병행하느라 많은 봉사를 하진 못했으나 '일상에서 법을 느껴보자'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고, 덕분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후에 법률연맹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부디 많은 배움을 얻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 연세대학교 철학과 임 ○ 빈

저는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임유빈입니다. 학부 생활 중 다양한 사상의 철학을 공부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와 인간의 자유에 대해 탐구하게 되었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공정함과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 저는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되는 꿈을 갖게 되었고,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좋은 단체를 알게 되어 저번 겨울학기부터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법정모니터링을 비롯하여 번역 봉사, 판결문 리서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추억들을 바탕으로 이번 봄 학기 봉사활동도 참가하게 되었고, 역시 뿌듯하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필수 활동인 의정모니터링과 번역봉사, 법의날설문조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의정모니터링은 두 분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조사하고, 공약을 점검하여 의원님들이 후보자 시절에 약속했던 공약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중로구 최재형 의원님과 하남시 최충윤 의원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제 생각보다 위정자의 초기 공약들이 완벽히 이행되는 일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약들은 초기 구상 단계에 머무르거나 폐지되었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행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권자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추진되었던 공약을 대다수가 좌초되는 것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고, 민주주의는 허울 좋은 말이나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모든 공약이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공약들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사회적 자원을 투자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관찰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유권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라는 점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제가 조사한 의원님들의 공약 뿐만 아니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의날 설문조사 및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이 기억에 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진 못했지만, 해당 활동을 통해 제 주변 또래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관점과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있

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정치 성향도 다르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흥미로웠으며, 건전하고 올바른 민주주의는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이 서로 공유되어 그를 바탕으로 최종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번 학기에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번역했는데, 영미법을 번역하다 보니 우리나라 법 체계와 상이한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대륙법을 번역하고 싶어 독일 형법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이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형법과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수벌금제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또한 독일 형법에서 도입하고 있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두 학기에 걸쳐 다른 국가의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다면 더욱 많은 국가의 법 체계를 탐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 학기에 걸쳐 법률소비자연맹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토록 뜻깊은 봉사활동의 추억이 단순히 로스쿨 진학을 위해 소비되지 않고, 훗날 법학도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 ○ 래

법과 사회에 대해 관심이 많아 그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한 법의식설문조사 활동을 하면서 주변 친구들의 의견을 직접 보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작성된 기사의 결과물도 확인해보며 수많은 대학생의 법과 정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에 일조할 수 있었던 것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역봉사와 관련해 현재 독일어 학습을 하고 있어 독일연방선거법의 번역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번역활동이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만이 아니라 독일의 선거제도를 확실히 이해하고 독일이 어떤 법체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파악을 한 후에야 완전한 번역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선거제도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결합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르기에 우리나라와 차별화되는 점이 많은 만큼 독일 선거제도의 취지와 관련 조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봉사활동의 전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큰 흥미를 안겨주었던 것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법률연맹을 접하기 전에는 판결문 리서치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고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뒤에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판결을 접하는 경우는 기사나 뉴스를 통해 사건의 개괄적인 내용과 판결의 결과만을 확인할 뿐이었고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직접 1심부터 3심까지의 모든 판결을 읽어보고 정리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첫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할 때는 판결문을 완벽히 이해하고 정리한다는 것이 모든 심급의 판결을 꿰뚫어본 후 그 판결 속에 담긴 용어부터 시작하여 요지, 판결의 이유 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기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를 읽어 나가며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면서부터 판결문이 이해를 방해하는 어려운 법률 용어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판결의 결과만 명시되어 있는 기사들을 보고 그에 대해 거센 비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판결문의 전문을 읽고 그러한 판결이 나온 과정을 살펴본다면 맹목적인 비난의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판결의 쟁점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법원의 판단, 나아가 판단의 근거까지 정리해보며 법 조항들이 어떻게 사실관계들을 포섭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마칠 때에는 왜 판결문을 재정리하고 검토하는 것이 사법 감시의 일환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모든 활동이 법과 정치 및 정의에 관한 인식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가치 있는 활동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고 단순히 학교 내에서 하는 공부나 이론 학습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활동들을 할 수 있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처음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학기동안 법률연맹에서 제공하는 여러 활동들이 값진 경험이 되었고 그러한 경험들이 저에게 큰 배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판례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고 법과 정의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글로벌리더전공 김 ○ 연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고, 3학년이 되어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하는 봉사활동들은 내가 법조인이 되지 않고도 법조인에 대해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평소에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러한 나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리라 판단해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봄학기에는 필수 활동이었던 법의식 설문조사와 의정모니터링과 함께 법정모니터링,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하였다. 사실 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나에게 의정모니터링은 나의 흥미를 크게 이끌지 못했다. 필수 활동이라서 의원 배정을 받고 진행했을 뿐이지, 만약 선택사항이었다면 굳이 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의정모니터링을 해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다. 우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공약 이행률이 낮았다. 기사를 찾아보면 논의는 많이 되어있지만, 딱 논의에서 그친 공약들이 많았다.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공약 이행을 역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만, 의원 배정 과정에서 주조지나 학교를 약간은 고려해주시려나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다. 우리 동네의 의원이 배정되었다면 실제 우리 동네의 모습과 비교하며 모니터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으로 봉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장 관심이 갔던 법정 모니터링을 하였다. 법정모니터링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10시부터 12시, 14시부터 17시까지 재판이 열리는 시간에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시간과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다. 그러나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봉사이기에 일정 앞뒤로 짬을 내서 법정 모니터링을 하였다. 법정모니터링은 기대 이상이었다. 작년에 개인적으로 법원에 방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갔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보다 엄숙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다 보니 더욱 책임감도 느꼈다. 나는 그중에서도 형사 재판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좋아했다. 사건명을 보고 어느 정도 사건을 파악하기가 쉽다는 점,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재판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도 쉽고, 재판에 더욱 빠져들어서 '나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까?' 생각하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과 동시에 한 법무법인에서 형사 법률 원고를 작성하는 대외활동을 했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물론 역술한 피고인도 있겠지만,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던데 내가 이런 사람들이 최대한 감형받도록 도와줘야 하나?' 하는 생각에 올바른 법조인의 길이 뭘까 자주 생각해 잠기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법정모니터링하고, 피고인들의 다양한 사정들을 들으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고 전보다는 덜 부정적인 시선으로 피고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이번 봄학기 봉사에 무척이나 만족하여 여름학기 봉사도 신청하였다. 이번에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서울의 5곳의 법정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하고 모든 법정을 다 방문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서울의 모든 법정에 방문해보게 되었다. 또한, 이번 여름학기에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 역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 진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고, 전공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화학과 권 ○ 승

가장 관심을 받을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 가장 외면받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에게 법은 하나하나 알기엔 너무 멀지만, 우리와 가장 밀접한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나의 목표로 삼고 법률소비자 연맹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봄학기 봉사를 통해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설문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20대들의 정치와 법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알 수 있었고, 평소 얼마나 시사에 귀 기울이며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 봉사를 통해 우리 구에 어떤 의원이 어떤 공약을 두고 우리나라의 각 구역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어떤 의원이 허울뿐인 말을 내세우며 국민을 우롱하는지를 법률 소비자 연맹의 봉사가 아니었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국의 의회 윤리기준 등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을 번역하며 각 나라가 중시하는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내가 번역한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기대되고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봄학기 봉사를 마치는 날까지 참여할 수 있었던 사법 감시배심원단 봉사에서도 이민석 변호사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주신 덕분에 이 재판은 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주셔서 정말 봉사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큰 뜻을 품기 전에 소소한 첫 도약으로 내가 앞으로 법의 수호에 앞장서야겠다는 자그마한 결심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막연하기만 했던 봉사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봉사를 하며 그저 정신적 만족감만을 얻는 것이 아닌 사회에 실제로 공헌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번 활동하는 동안 인지하지 못했지만, 저도 모르는 새에 "나와 국가사회를 위한" 리더의 사명이란 무엇인지, 내가 맹목적으로 성적만을 추구하며 진정으로 정직함을 추구해 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나에게 "진정한 사회를 위한 봉사"가 무엇인지를 피부에 와 닿게 행동으로서 설명해주었습니다. 보통 한 단체가 오랜 시간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며, 특히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는 사회봉사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의식을 잃지 않고 연행일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며 봉사자들에게도 타의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배움과 봉사함에 있어 봉사자들이 실증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봉사자들이 봉사에 집중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관리자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불철주야 항상 이메일에 친절하게 답장주시고, 현충일이든 언제든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 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부터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시는 게 얼마나 어렵고 번거로운 일인지 인지하고 있기에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는 항상 겸손해야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늘 소극적이기만 했던 '법'이라는 어렵고도 심오한 단어를 이번 봄학기 동안 나에게 좀 더 친밀하고 다가가기 쉬운 대상으로 바꾸어준 법률 소비자 연맹 봉사는, 무엇보다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이 ○ 현

어릴때부터 막연히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학을 들어가면서도 로스쿨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와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 중 한 명이 법률소비자연맹 관련 이번 봉사 같은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듣고는 뭔가 나중을 위해 도움될 것 같기도 하고, 봉사라는 걸 하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 봉사 활동 내용 같은 걸 들을 때는 이런 봉사활동이 단순히 쉬워보였다. 의원들의 선거철 공약을 찾고 정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이번 봄학기 봉사활동의 메인 활동이 특히 쉬워 보였다. 다만 이번 봉사활동을 하며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공약 이행 여부를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그 이행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꽤나 힘들고 소모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사업이 아니거나 기사 몇 줄로 성과가 제시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나는 이를 통해 우리가 의원들의 입법 활동, 공약 이행 여부 같은 정직과 봉사, 국민을 위한 헌신 같은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욱 일반 시민들이 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뿐더러 국가나 일반 시민 단체에서도 이를 보조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등의 쌍방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이 아닌가 싶었다. 그리고 나의 활동이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의원 활동을 쉬이 감시할 수 있게끔 하는 일말의 도움이 될 수 있었음에 뿌듯함을 느낀다. 그리고 봉사 과정에서는 의원들의 공약 내용을 유심히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던 과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로 공약 내용을 좀 읽어보니 허황된 정도가 지나친 공약들도 꽤나 있었다. 그러한 공약들을 보며 의원의 정직 정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마땅히 해줘야 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내가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후 다음 총선, 더 나아가 대선 때 집으로 배달오는 공보물을 꼼꼼히 읽어봐야겠다는 다짐을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해본다.

내가 한 봉사활동 중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평소 판결문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나였기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접해보고 봉사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보자라는 마음으로 신청한 것이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대상으로 리서치 활동을 하며 전제로 대법원까지 온 사건이면 꽤나 논란도 있고 합의점도 맞지 않으며 분쟁의 여지 또한 상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그러한 부분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읽었다. 평소 수험생 시절 죽히 들어봤던 2014년 세계지리수능 출제오류 사건이나 양수금 반환 등의 매우 신기하고도 분절적인 사건들을 살펴봄에 나의 일반 상식과 법이 맞지 않는 부분도 꽤나 존재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해당 봉사의 경우 각 개개인의 사건을 주고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해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판결문을 다 읽고 나면 판결 이유 및 요지를 읽으며 '아!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니깐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의 연속이었다. 이번 봉사를 하며 우리나라의 법 시스템이 꽤나 개방적인 공간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웬만한 사건들을 다 볼 수 있고 판결문을 읽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참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실하게 느꼈던 것 같다. 사실 이런 법조계와 나의 삶이 아직까지는 연관될 일이 없으니 법원 같은 법조계의 심장부 같은 곳 또한 소위 말하는 '그사세'(그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여겼지만 이번 봉사를 통해 그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다양한 판결을 접하고 법관의 마인드를 이해하며 또 판결문이 어떻게 작성되는가에 대해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나에게 정말로 귀중하고 값진 활동이자 시간이었던 것 같다. 꽤나 성실히, 또 헌신적으로 참여한 나의 이번 판결문 리서치가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봄 봉사활동의 경우, 처음 해보는 것이고 또 대학생 생활 동안 익숙치 않아 봉사활동을 하려고 할 때면 학교 행사나 과제, 시험 등에 말려 못하게 되는 일이 일수였다. 나중에 봉사활동을 신청해서 할 때는 이번 경험을 통해 좀더 발전되고 경험있는 봉사자가 되어 확실히 질적으로 향상되고 계획적인 봉사활동을 만들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 봉사활동을 통해 시간도 많이 뺏기고 힘들긴 했지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실보다 득이 많았던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이 봉사활동을 소개시켜 준 내 친구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 ○ 선

이번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 평소 법률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을 관심 가지고 읽는 학생으로서 이 봉사활동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법률 관련 활동을 찾다가 시작한 것이었지만, 활동을 진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법과 정치에 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으로는 국회 의정 모니터링,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국회 의정 모니터링 활동은 상당히 생소하고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지는 봉사였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한 국회의원들은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도종한 의원과 경기도 시흥시갑 문정복 의원으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아닐뿐더러 생전 처음 들어보는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공약과 그 이행 여부를 일일이 찾아보는 과정이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투표행위에 그쳤던 저의 정치 참여가 나아가 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 평가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지면서 더욱이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실제로 실현에 옮기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에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봉사의 과정은 힘들었지만, 저의 보고서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발걸음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때는 공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잘 실현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는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며,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정치 이슈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법과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봉사자들의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신문 기사를 이메일로 송부해주셔서 저의 설문조사 하나하나가 반영된 완성물로 신문 기사를 볼 수 있어 새로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봉사활동 중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학기 수업과 병행 중이었던 법정에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선택한 것이 자택에서도 할 수 있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다음 여름 학기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의 경우, 관심이 가는 다양한 분야의 판결문을 직접 선택하여 읽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판결문을 읽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다고 걱정하였으나,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는 매뉴얼에 따라 한 단계 씩 차근차근 진행해나가니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운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의료법 위반, 부당하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상금 총 4가지 판례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판결문을 읽어보니, 논리정연하게 잘 작성된 판결문도 있는 반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기 어렵게 간략하게 작성된 판결문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분석하며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렵게 다가오는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각 사건의 법적 쟁점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또한, 용어 해설을 쉽게 풀어 쓰기 위해 공부한 시간이 보람찼습니다. 판결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 감정이 녹아들어 있어야 정의로운 판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인 국민들이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결문을 읽어 나가며 법이 각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증거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직접 찾아가며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법과 정치에 대해 탐구하며 동시에 우리나라를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법학 관련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으나, 더할 나위 없이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여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자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학기에는 법정 모니터링 활동

과 번역 봉사에 참여하고 싶어, 꼭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 ○ 경

저는 최근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감문을 통해 저의 봉사활동 경험과 그로 인하여 얻은 인사이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봉사활동 기간 동안 저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법의 날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국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불만 사항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정도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 공약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형사소송법 번역 봉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법률 분야에서의 번역 능력을 발휘하고 독일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용어와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법률 관련 정보를 보다 널리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의 날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부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소중한 기회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미래에도 법률 분야에서 더욱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의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관련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강 ○ 원

법조인의 꿈을 갖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경영학과인 저에게는 주변에 마케터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여러 주제의 외부 활동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했고, 결과물에 대해 상을 받는 등 동기부여도 되었으며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도 저의 관심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법률연맹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연맹에서는 제가 기대했던 것 보다 더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없는 독특한 법률 봉사활동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봉사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특히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 졸업이후 일을 병행하며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고 생소한 활동내용에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저와 같은 직장인들을 위해 재택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반드시 밤을 새서라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속에서도 해낼 수 있을까 걱정되었지만 OT 자료를 받아 꼼꼼히 읽어보면서 제가 해낼 수 있으면서 관심사와 닿아 있는 활동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첫 째로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의정보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을 직접 투표해 왔고, 홍보물을 읽어 보긴 하였어도 그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및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는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활동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한 번 해봄으로써 국회의원 선거 전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배우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기쁜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관련 기사가 많지 않아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선거 전에는 선거공보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사 또는 후보자들끼리 서로의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하는 기사는 많은데 당선 후 공약이행여부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며 그 정도로 우리가 관심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 제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조사했던 국회의원의 경우 본인의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기록하고 있어 조사하면서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한 판결문리서치 봉사활동은 제가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고 공부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유익하고 재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판결문의 문장이 길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감내한 그 시간들이 축적되어 제가 판결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잘 모르던 법률용어에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찾아서 변호사 및 판사, 검사님들의 논증을 배웠고, 어떤 방식으로 논증을 하는 것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고 합리적인지 공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선정할 때는 공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되고 있는지, 공권력에 국민들은 어떻게 대등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을지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판검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저도 올바른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 해당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자세, 수사에 있어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배웠고 특히 자칫 간과할 수 있는 피고의 방어권, 참여권 등의 권리도 보장하여야 함을 명심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판결문 내용의 양과 사건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활동이어서 일과 병행하면서 밤을 새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가장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 봉사자들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늦게 시작한 것인지 불안함도 있었지만, 늦게나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의미 없는 영상을 보거나 누워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올해 초부터 시간을 쪼개 자기계발을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하고 그만큼 성장한 저의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법률봉사를 하면서 관련 능력을 함양한 것뿐만 아니라 제 삶에서 목표가 생겼을 때 부지런하게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얻은 것 같아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또 법률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에는 재택봉사와 더불어 실제로 직접 재판에 참석하고 모니터링하는 활동도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일반 김 ○ 경

저는 플로리다주 번역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영어로 된 미국 플로리다주의 헌법을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늘 그렇듯 법률소비자연맹 번역 봉사활동은 늘 뿌듯함이 가득한 활동입니다. 특히나 법률적으로 선진국인 미국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과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무척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은 늘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욱 무궁히 발전되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비슷한 원문들을 찾아보면서 최대한 원문 그대로의 느낌을 전달하기위해 정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나 플로리다주의 의원들의 선거 과정에 대하여 번역하면서, 더욱 잘 번역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의원들의 투표 과정 및 공식 시 행정처리 등에 대한 세세한 규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부를 통하여 더욱 세심한 번역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공약분류 점검과 이행률 조사 봉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과 김도읍 의원을 담당하였습니다. 두 의원의 공약을 우선 살펴봤습니다. 선거 시 투표를 받기위해서 의원들이 내건 공약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약이 언제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같은 말의 반복도 많고, 말장난같은 공약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공약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 국민들의 모습이 떠올라 안타까웠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분류하였으며, 언론 기사 및 기타 소식을 통하여 두 의원이 실제로 얼마나 공약을 달성하였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심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공약을 많이 추진하지 않는 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약 중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거나, 쉽게 성사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공약이 실천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자들과 직원 분들의 헌신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이러한 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봉사로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행을 조사를 한 후에는 윤영석 의원의 공약점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단지 한 명의 봉사자에게 공약을 분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꼼꼼한 확인을 위하여 분류된 공약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꼼꼼한 과정을 통하여 법률소비자연맹은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수히 많은 지혜와 기회를 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이 ○ 린

2023 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첫 봉사활동이었는데 기대했던 만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특히 사법감시배심원단으로서 실제 재판을 참관하며 모니터링했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법원에 직접 가보는 것도, 재판을 참관하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각 재판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면서 내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변호사라는 진로를 더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재판을 참관하면서 내가 변호사라면 이렇게 변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로스쿨에 진학했을 때에도 이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외에도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각 의원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실제로 공약을 이행했는지 모니터링하는 활동이었다. 해당 활동을 통해서 유권자로서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국민으로서의 정치 참여의 중요한 주체이지만, 솔직하게 내가 투표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태도를 가지지는 못했었다. 이런 안일한 태도가 국가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실제로 선출된 의원이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면서 의원들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참여의 주체로서 정치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면서,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논리에 대해 생각해보며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본 경험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며 법률관계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었다. 또한 판사가 해당 판결을 내리게 되기까지의 논리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대중과는 다른, 법관의 객관적인 시선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리서치를 진행한 판결은 1심, 2심에서의 판결과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서로 달랐다. 이를 통해 판결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으며 가장 논리적인 판단이 판결이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나라면 어떤 판결에 더 동의했는지 고민해보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법과 사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로스쿨 진학이라는 진로를 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갈피가 어느 정도 잡힌 느낌이 들었다. 의정 모니터링, 사법감시배심원단, 판결문 리서치 등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만약 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국민으로서 보다 비판적이고 꼼꼼하게 우리 사회의 사법 구조를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로스쿨 진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진로를 더 확실하게 정해주는 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학기 봉사 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싶다.

○ 동아대학교 생명과학과 이 ○ 주

'법에 대하여 공부하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해진 시점부터,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찾아보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생각되고 또 다가가기에도 어려움이 먼저 느껴지는 것이 '법'이었는데 이는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법'의 작용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또 바로 잡히고 있으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법'을 마주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해지기도 하기도 하니 말입니다. 이번 분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법'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되는 과정들에 더 다가 가볼 수 있었기에 제게는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청하기 전 어떤 활동하는 것인지 궁금해 사이트를 방문하여 후기와 언론모니터링 등의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시민들이 법과의 거리를 좁히고 쉽게 다가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판결문 연구와 같은 활동들의 취지에 공감이 되었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참여하면서도 이러한 활동들의 목적이 시험 준비를 하며 함께 활동을 병행하던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자신의 공부로써 의미가 있을뿐더러 하나의 결과물이 완성될 때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꼼꼼하게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위해 즐겁게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여서도 처음 해보는 양식들과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너무 신속하게 소통해주시는 담당자분들과 누적되어있는 자료들 덕분에 많이 헤

매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가지 활동 중 첫째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직접 판결문을 읽어본 경험도 많이 해보지 못했던 것일뿐더러, 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과 원고의 피고가 대립하는 지점과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고 공부해보는 것이 시간은 많이 들었지만 후회 없을 만큼 배울 것들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민사소송이라도 저마다 달랐던 소송의 진행들,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다른 단계로 진행되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등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둘째는 '언론모니터링 이슈 분석'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궁금했던 '간호법 제정'에 관한 내용을 선택해 공부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이슈에 대한 분석이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된 많은 기사를 찾아보면서 언론사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 전체의 언론 보도 중에서 사실의 영역과 해석의 영역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면서 좁게는 의료현장에서 넓게는 우리 사회에서의 수많은 이해관계에 대하여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작정 '해보자'하고 시작하였지만, 활동을 마치며

제게 '법'을 꼭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는 저의 원래 생각이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노력해 실제로 본 활동의 대상이 되는 법조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오 늘보다 나은 내일의 평안을 늘 바랄 수 있는 가득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이 ○ 민

저는 이번 2023년 봄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법조인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진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봉사활동을 찾아보던 중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로 했던 봉사활동은 아름다운 가게 같은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보조해주거나 카페에서 장애인 그림 전시 행사를 보조해주는 등 육체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진로와의 연관성도 높고 학구적인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고, 활동을 하면서 법조인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는 활동에 따라 재택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소위 집돌이인 저에게는 감히 최고의 봉사활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한 봉사활동은 봄학기 필수활동이었던 의정 모니터링과 4월과 5월에 있는 법의 날,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한 청년, 대학생 법, 정치의식 조사 활동,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은 배정받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총선 당시 공약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갑 박주민 의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을 조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의정 모니터링 활동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박진 의원은 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고 박주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의원으로, 둘 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력 정치인들인데 저의 부족한 정보력으로 공약이행률을 잘못 조사하면 어쩌나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약이행률을 조사할 때 혹시 놓친 자료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노력했고, 자료를 신문기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감사카메라 설치 사이트나 복지시설 홈페이지 등 다양하게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자료를 찾는 과정은 스트레스도 받고 험난했으나 그 결과는 매우 뿌듯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지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한다는 생각에 마치 시민단체의 일원이 되어 국회 권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는 것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면서 해당 지역구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었고, 이 활동과는 별개로 의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사는 동네의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과 우리 동네의 지역 현안이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등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대학생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는 정치 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하는 것도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할 당시 대학생들은 시험기간이었기 때문에 다들 여기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설문조사 응답란에 소속 대학, 나이, 성별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기재하라고 되어있어 설문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성실하게 답해준 친구들 덕분에 귀중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다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보수 성향의 사람이라도 대일외교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경우도 있었고 같은 진보 성향의 사람이라도 특정 인물을 향한 수사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진영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해져서 정치 현안을 자연스레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판단하곤 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는 판례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총 4개의 판결문 리서치를 하였는데 앞에 2개는 징계 사건, 뒤에 2개는 명예훼손 관련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징계 사건의 경우에는 작년 2학기에 '법치국가의 행정과 법'이라는 교양수업을 들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판례를 분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징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이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던 첫 번째 판례의 사건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도 악플에 많이 시달리는 것을 봐와서 가슴이 아파 명예훼손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리서치 활동을 계기로 관련 판례를 분석해보고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었고, 4번에 걸쳐 리서치를 하면서 판결문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관련 판결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미래의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진로와 관련하여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었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 봉사활동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이 동 희

저는 성균관대 글로벌리더학부에 재학 중인 2학년 이동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꾸준히 판사라는 꿈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법 캠프나 솔로몬 로파크 견학, 대법원 견학, 대법원 봉사, 대검찰청 견학 등 다양한 활동과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대학도 성균관대 글로벌리더학부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의 자원봉사를 해보고 배운 점과 느낀 것들이 많아 다시 열심히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고민하지 않고 자원봉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자원봉사를 신청할 때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막상 학기가 시작하자 바쁜 수업과 공부, 대외활동과 공모전 등 너무 바쁜 삶 속에서 자원봉사까지 잘 쟁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끝낸 지금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것이 이번 1학기를 굉장히 알차게 보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정모니터링, 사법감시배심원단, 공약분류 봉사,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법정모니터링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봉사를 통해 자주 법원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보고 양측 주장들을 들으며 리걸 마인드를 기를 수 있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재판이 짧게 끝나는 것을 보며 국민들에게 재판이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중대한 일인데 그러한 재판을 너무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이 법원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또 형사재판 속에서 미디어에서 소재로 자주 활용되는 집행유예 기간을 피하기 위한 꼼수나 판사 앞에서 공소장을 찢는 행위 등 과격한 모습을 보며 죄질이 불량한 사람들도 많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런 사람들에게 엄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정치와 법 교과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나 지난 학기 강의에서 배웠던 민법, 행정법과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형법 등이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였고, 더 공부해야겠다는 다짐 또한 하였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에 더해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은 더 발전된 법정모니터링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의 중요성은 변호사님께 전해 들었고, 실제로 재판에 가서도 수많은 대학생들이 와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 공정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은 혼자 재판을 방청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 등 법조인들에게 큰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십 명이 한 사건을 방청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실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어떤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국민에 감시를 받으며 사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법정에 가보면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외에 다른 사람이 방청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재판 내 사진촬영 영상촬영 등을 제한하고 재판을 영상으로 남겨 공개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에서 사법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법감시배심원단과

같은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공약분류 자원봉사는 필수 활동이었고 저는 정치나 정책 보단 법쪽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실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치인들의 공약을 분류하다 보니 생각보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공약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실행되고 있는 공약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과연 정치인이 이 많은 공약들을 다 실천할 생각으로 낸 것인지 공약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공약은 결국 당에서 내는 공약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선거 당시에는 공약으로 홍보하지만 호지부치되는 공약도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근거 없는 포퓰리즘성 공약도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치가 발전하려면 국민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저에겐 법률소비자연맹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얻는 뿌듯함과 추가적으로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판사라는 꿈에 한 발짝 다가갔다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빠른 매일 회선과 다양한 활동 제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 ○ 경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벌써 2번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또 한 번의 소감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매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 같다. 먼저 번역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민법과 형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집에 돌아온 날에 미국 인디애나주 헌법을 번역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법과 미국의 주 헌법을 비교하며 또 다른 학습을 통해 배우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만약 번역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내가 미국의 주 헌법을 찾아 해석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의 법과 미국의 주 헌법은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모든 부분을 세세히 규정하고 법질서 안에서의 가이드라인을 공고히 만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요소를 법이 보충해주고 있음을 공감하게 되었다. '내가 법조인이 왜 되고자 하는지'에 대해 더 선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처음 실시해 본 '2023년도 청년 대학생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는 나에게 색다른 깨달음을 주었다. 대학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함께 공부를 하지만, 그 친구들이 현재의 법체계와 정치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와 같은 또래 친구들이 현대 사회에 느끼고 있는 사회·정치적 실증과 무기력감, 분노, 애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보다 친구들이 현재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분명한 의견과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불안보다 큰 희망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정 모니터링 활동은 지난 봉사활동에서도 진행했으나, 어쩌면 매일, 매달 꼼꼼히 조사하고 검토하고 평가해도 부족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조사해보면, 의원들은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이 공약들을 선거철에 많이 부각을 하고 있는 현실이나, 이를 실제 당선 후에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감시자로서 늘 지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을 통해서라도 마음속에 늘 부채로 남아있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 활동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을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은 같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그 당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마음가짐, 그 당시의 내가 배우고 있는 학문의 내용에 따라 나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의 이번 봄 봉사활동을 소감문의 작성을 통해 다시 한

번 떠올려보며 가치있게 마무리하려고 한다.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 ○ 재

이번 학기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저의 두 번째 봉사활동 학기였습니다. 지난 겨울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를 하고, 매우 뜻 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하여 연이어 한 번 더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학기에 처음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여러모로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이 깊은 봉사활동인데, 법학 전공이 아니라 어떻게 관련 봉사활동을 해 나가야할지 막막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나니, 친절하고 자세한 교육 자료들 덕분에 어려움 없이 봉사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봄학기에 법정치의식 설문조사활동, 의정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대만과 미국 법 번역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입니다. 이 봉사활동을 해보기 전까지는 한 번도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대면으로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부탁하려고 말을 거는 것조차 어색하고 눈치가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을 하며 대학생들이 현재에 어떤 법정치의식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어 매우 뜻 깊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정모니터링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하기 전까지 저는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정치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모니터링하며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덕분에 관련 뉴스들도 많이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까지가 정치 참여 활동의 끝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국회의원들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정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때 공정성을 높이고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공약 남발을 줄이는 데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만과 미국 법의 번역 봉사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외국어 중에 영어가 가장 편하게 느껴져, 영어 번역 봉사를 신청하였는데 이번 학기에는 계속 공부를 해왔던 중국어를 활용하고자 대만 번역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대만의 보호용충기관리 조례를 번역하면서 대만 법의 구성은 어떠한 지 배울 수 있어 의미가 깊었습니다. 번역 봉사를 할 때 법률 용어와 같은 부분이 1:1로 대응이 잘 되지 않아 많은 검색을 통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해당 맥락에 알맞은 단어로 번역을 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이란 사회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번역 봉사에 힘써주는 봉사자가 많아진다면, 타지에서 외국 법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한국인들이 더 편하고 언어에 대한 부담 없이 법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또한 디지털 밀레니엄 법을 번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어떻게 법이 개정되어 왔는지 살펴볼 수 있어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번 봄 봉사를 통해 저의 진로와 관련이 깊은 분야에서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뜻 매우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유 ○ 훈

두 번째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3개월간의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약 30 시간의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쳤다는 점에서 기쁨과 함께 이전 겨울학기 봉사활동에서는 하지 못하였던 판결문리서치 활동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값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기획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참여한 소감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전 겨울학기부터 지금 봄학기까지 지속적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법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입시진입을 대비하여, 리트 공부를 하는 것 이외에 미리 일상에서 법을 접할 기회를 찾고 싶었고, 우연히 기회가 닿아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의 다양한 종류의 활동들, 판결문 리서치나 법정 모니터링 활동, 의정 모니터링 활동 등등을 비롯

한 여러 활동들에 대해 접했을 때만 하더라도 관련된 전문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막막할 때도 있었지만 겨울학기 때도 했던 의정모니터링 활동과 법정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이번 봄학기 때 새로이 시도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까지 관계자 분들의 친절한 설명과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끝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법이라는 분야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의정모니터링 활동과 법정모니터링 활동, 판결문 리서치에 중점을 두고 봉사를 진행하였는데 각각 국가의 시스템들이 국민을 위한 초기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알아볼 수 있었던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처음 법원에 가서 모니터링을 할 때나,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지 확인하려고 할 때만 하더라도 막막한 기분이 들었었지만, 점점 재판 과정에 익숙해지고 뉴스 기사나 국회의원들의 회의록을 통해 제대로 공약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의정 활동이나 사법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 뿌듯함을 느낌과 동시에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었던 건 아닌지 반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나 국정의 운영에 대해 큰 관심이 없이, 단순히 선거철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뽑고 난 후에는 제대로 된 관심을 주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공약 시행과 진행도를 파악하며 제대로 자신의 공약을 완수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흐지부지된 공약들을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이러한 공약이 단순히 선거에서 뽑히기 위한 사탕발림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저도 이후부터는 단순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누가 뽑혔는지 확인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뽑히고 나서의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는, 올바른 주권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시도했을 때에도, 처음 시도하게 되는 판례 분석으로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할 것 같아 제대로 된 분석이나 해석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였고 판례를 찾아서 보는 것부터 익숙하지 않아 처음 단계인 재판 당사자를 찾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판결문을 차례차례 분석하며, 사건의 쟁점이나 사실관계,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정리하다 보니 점점 판례를 읽는 게 익숙해 질 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내용을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례의 내용이 생각보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시대가 변화에 따라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활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죄의 스펙트럼 역시 넓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더 질 좋은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법 역시 발전한 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에 따라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의욕과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봄학기 봉사활동을 마치고 소감문을 적으면서 제 봉사활동을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처음이라 미흡한 부분도 많았고, 일처리가 아쉬웠던 기억도 많지만, 점점 활동에 익숙해지며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해 가며 조금씩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법을 공부

하는 저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배 ○ 현

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이 있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이번 봄학기 동안 두 번째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가 법률연맹에서 두 번째로 하는 봉사료, 지난번에 이어 의정 모니터링 봉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봉사활동 신청에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대학교 졸업 전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저번 학기 봉사에서 공약 이행을 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담당하였던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이 매우 낮아 실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봉사활동에서 담당하였던 국

회의원 두 명은 자신의 관할지역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음을 확인했고,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며, 제가 국회의원에게 갖고 있던 선입견을 깰 수 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저번학기과 다르게 대학생들의 법정치의식을 조사하는 봉사활동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대학생이 한국 현대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특히나 '유권무죄'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청년층이 취업, 결혼 등과 관련하여 빈부격차로 인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토안보법을 번역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안보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법안인 만큼, 외국의 국토안보법을 번역하며 한국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어 보람 찬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또한 법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떠한 효력을 낳는지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음 학기 봉사활동에서는 판결문리서치나 법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과 같은 시도하지 않았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가능한 많은 재판을 방청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조인을 희망하는 만큼 관련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쉽게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저의 꿈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수호하는 활동을 하는데 기여하게 해주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법조인을 희망하는 대학생이라면 가장 가까이서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니터링 봉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국회의원의 위법, 불공정형태, 부정부패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가능한 시간과 여유가 될 때까지 법률연맹 봉사에 계속 참가할 것을 희망하며 저 역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 봉사활동에도 열정과 성실함을 갖추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늘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기회를 제공해주신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양 ○ 희

지난 2022가을학기에 이어 두 번째 법률연맹 대학생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첫 번째 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매우 흥미로웠고 보다 넓은 눈으로 법률적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봉사활동을 신청하였다. 봄학기 필수활동은 의정모니터링이었고, 배정받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제21대 국회의원 공약분류와 공약 이행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회의원의 공약을 낱알이 분석하여 살펴보거나 실제 이행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평소에 쉽게 해보기 어려운 활동들이어서 더욱 의미 있었다.

공약이행률조사를 하기에 앞서 선거공보를 활용하여 공약분류를 진행하였는데, 이미 이행한 내용과 새롭게 제시하는 공약을 뚜렷이 구분해두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공약에 대한 기사나 지역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자료 등을 통해 공약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분류하면서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선거 공보를 읽을 때 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들었다. 이행 완료된 공약과 이행할 공약을 한 분류로 묶어 선거공보에 게시해두거나, 이전부터 다른 지역 주체에 의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새롭게 이행할 공약인 것처럼 적어 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공약 분류 후에는 공약이행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아직 의원들의 임기가 남아있는 시점이기기는 하지만 많은 공약 사업들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쉬웠던 점은 고속철도 사업이나 혁신도시 지정 등 규모가 크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착수되거나 진행 중인 반면, 주민복지관련 시설이나 보험료 인하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선거공보에 언급만 되었을 뿐 대체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라는 봉사활동이 매우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활동이라

는 것을 느꼈다. 내가 거주 중인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이행을 조사하는 작업을 통해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정보공개가 이루어진다면 후보자들이 선거 시기에 당선만을 위한 선심성 공약남발을 자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봄학기에는 의정모니터링 외에도 판결문리서치 작업을 진행했는데, 지난 학기에 이어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노동법 관련 판례를 선정하여 작성하였다. 한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대학교 시간강사 처우 문제와 관련된 판례였는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대학 측에서 시간강사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가 여부였다. 1심과 2심에서는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를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차등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1심과 2심에서의 판단 이유에서 대학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강사료는 시간강사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대학 측의 재정적 사정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강사법이 2019년 8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오히려 강사법 시행 후 강사들이 대량해고되는 등 강사들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는 모순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강사법의 주요 내용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강사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어려웠던 시간강사들의 노동 환경에 관해,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새롭게 제시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음 봄학기에도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더 많은 경험을 하고자 다짐하는 바이다.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감 ○ 영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은 우연한 계기에 의한 것이었다. 막연히 여러 진로를 탐색하다가, 인터넷 서칭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과 법률이라는 개념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이에 흥미를 느껴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사실 대학진학 후 처음하는 봉사활동이라 일종의 기대감이 있기도 했다. 봉사활동은 대부분 재택봉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학기 중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로 다가왔던 것 같다. 다양한 활동 중, 2023 봄학기의 필수활동은 '공약이행률조사 및 법정치의식조사'와 '의정모니터링'이어서 두 활동을 먼저 진행하고자 했다.

가장 먼저 했던 활동은 '의정모니터링'이었다. 배정받은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류하고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선거공보를 직접 파일에 정리하고 선거공보를 읽으면서 공약사항을 분류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는 작업이었다. 사실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공보를 가버린 마음으로 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오랜 시간동안 들여다보고,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분류해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또한 이러한 분류 작업을 마친 뒤에는 실제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일정한 근거에 의해 판단하게 되어 있었다. 사실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배정되어서 더욱 흥미롭게 공약이행 여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필수활동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주어진 설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서 답변을 정리하면 되는 활동이었는데, 법정치의식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마지막으로 했던 활동이자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고, 흥미를 느끼고 있는 가사소송과 민사

소송 위주로 판례를 선택하였다. 처음에 진행했던 사건은 이혼청구의 소에 관한 것이었다. 내용이 재밌어보여 선택했는데, 실제로 정리하면서 흥미롭게 읽었던 판례가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과거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의 과거판결기록까지 전부 알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 상당히 유익했다. 사실 이번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종합법률정보라는 사이트가 존재하는지 몰랐었는데, 봉사활동을 해서 뿌듯한 것과 더불어 법률적 정보를 검색하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유용한 밑거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사법관계를 국민으로서 마주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또한 이혼청구의 소 외에 약정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 관련된 판례리서치를 진행하였는데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든 생각은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 판례를 좀더 쉽게 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판례도 있었지만, 학부 때 법학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았던 용어들도 상당해서, 이를 풀어쓰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 매번 판결요지나 판결전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강조표시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대법원에 명시되어 있는 판결문도 최소한 분량이 긴 판결문에는 이러한 강조표시가 있으면 이를 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훨씬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로 고민을 하다 우연한 계기로 하게 된 봉사활동이었는데, 뜻깊은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향후 진로를 어떤 방향으로 잡든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쉬웠던 것은 이번 학기에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못했고 전부 재택봉사로 진행했다는 점인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다.

○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강 ○ 은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폐쇄적이고 격리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좀 더 빠르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 했던 봉사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학생이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찾아보던 중 제가 관심 있는 법과 관련된 봉사를 할 수 있는 법률 소비자 연맹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봉사 활동은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조사와 의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처음 하였을 때는 공약을 보고 선출하지만 막상 공약 이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잘 되고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을 기회로 조사한 국회의원 두 분은 마침 제가 예전에 살던 지역과 그 지역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이라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약 이행을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공약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찾아서 정리 하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공약을 이행하고 있어서 마음이 뿌듯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을 위하여 최대한 힘쓰고 있는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관심은 지역 국회의원이 공약을 지키는데 더욱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봉사 활동은 법 정치의식 설문 조사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아보는 조사였는데 주변 친구들에게 조사를 하면서 저 역시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 후에는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조사 결과를 기사화한 뉴스를 메일로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치 관심도와 사회의식을 조사하는데 힘을 보태어서 아주 보람 있는 봉사였습니다.

세 번째 봉사 활동은 사법 감시 배심원단 활동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모여 경제 사범의 재판을 방청하였는데 우리나라 재판 과정이 어떤지 볼 수 있었고, 시민의 이러한 관

심이 경제 범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였습니다.

네 번째 봉사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오전 일찍 법원에 가서 재판 방청을 하었는데 제가 방청한 날은 판결이 나오는 날이어서 여러 재판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방청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재판은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가 마지막 변론에서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100% 진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법의 존엄함과 엄숙함 앞에 반성하는 범법자의 모습을 보면서 법이 사회 유지와 발전에 얼마나 큰 밑거름이 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봉사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입니다.

판결문을 전문으로 읽어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어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건물 외관 반사광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청구한 손해 배상 판례였는데 어떤 근거로 재판의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어 정말 유익하였습니다.

재판에 따라 금융, 과학, 경제적 지식과 문제에 대한 근거를 많이 필요로 하며 근거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고 쟁점이 얼마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 2심, 3심에 걸친 판례를 찾으면서 생각보다 3심의 재판에서 다시 파기 환송되는 경우도 많아서 재판의 과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일반 국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번 법정 모니터링 봉사 활동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법원에 대해 막연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무엇보다 법이 우리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알았고 이 사회를 지키고 발전하는데 큰 바탕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법이 국민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지켜보고 관심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 계명대학교 법학과 강 ○ 미

사실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운 활동들 같아 보이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걱정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졸업학년이 되기 전에 참여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법률소비자연맹의 봉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봉사활동은 의정모니터링과 법정치의식설문조사였고, 내가 따로 추가적으로 선택한 봉사활동은 법정모니터링이었다.

‘의정모니터링’이라고 했을 때, 본인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이걸 내가 잘 분류하고 조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들었지만, 법률소비자연맹 측에서 의정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는 매뉴얼과 예시 파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 자료들을 따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내세운 공약들을 실제로 해나가고 있는지, 또는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인 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이 활동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선거 공보에 적힌 공약들을 꼼꼼히 살핀 후에 선거에 참여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선출된 이들이 자신들의 약속을 지켜나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법정치의식설문조사의 경우, 대학교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내용을 읽어보았다. 일부 정치적인 성향을 묻는 질문들도 있어서 부담스럽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주위 사람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특히 결혼과 아이의 출산에 관한 우리 또래 친구들의 생각이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 “아이는 낳아야 한다.”는 예전의 사고방식들에서 많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기회였던 것 같고 나 역시 나의 법정치의식에 대해서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법정모니터링의 경우 내가 가장 기대한 활동 중 하나이다.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만큼 내가 실제로 배웠고 또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의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재판방청을 통해,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검사님의 공소사실과 더불어 변호사님의 변론 그리고 판사님의 재판 진행과 질문 등을 통해 그 범죄자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고 어떠한 형법 조문이 적용되었으며 어떠한 이유로 양형을 바라는지에 대해, 즉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꽤나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이것이 형사법과 관련된 전공 지식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장담한다. 법정모니터링은 재판부가 재판을 공정히 진행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데, 직접 설문지를 통해 내가 본 재판부들에 대한 답변을 해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재판부에 대한 신뢰감이 더 높아진 계기가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이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러한 활동들을 끝낸 스스로가 대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금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나가고 싶다.

○ 단국대학교 법학과 강 ○ 현

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다 법률연맹을 알게 되었고, 쉽게 경험해볼 수 없는 번역 봉사를 해보고자 2023년도 봄 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독일 동물보호법의 번역을 신청하여 번역 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일상어와는 다른 법률용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생각보다 번역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5페이지의 번역에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직접 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독일 동물보호법과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독일은 동물보호법에서 입양자 격시함을 규정하고 반려동물의 매매를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입양절차와 분양, 교육 및 사육에 대한 기준이 전무합니다. 유기동물의 시작인 펫숍과 개공장과 같은 공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일은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이상적인 목표로 여겨지기에, 동물보호가 헌법에 명시된다는 것은 참 의미가 큼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법은 그 나라 국민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기에, 내일 당장 우리나라 헌법에 동물보호 규정이 들어선다 한들 국민의식이 따라주지 않는 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번역 봉사를 하며 동물복지의 개선을 위해 법률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동물이 처한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알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을 목표하게 되었습니다.

봄학기에 진행했던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봉사활동은 5월에서 6월에 걸쳐 진행한 언론모니터링이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며 느낀 점은 사실에 기반한 간호법의 내용과 논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글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실을 중심으로 한 기사를 쓰는 것이 언론사의 책무인 줄만 알고 있었고, 너무도 당연하게 그러리라 믿었던 한 국민으로서 많은 언론사들에서 자극적인 제목과 감정적인 내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사를 쏟아낸다는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기사들을 보며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의 반응을 댓글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이 상대 진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사의 내용에 논리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단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기사를 소비하고, 언론사들도 그 반응들을 즉각 확인할 수 있기에 논리적인 기사보다는 감정적으로 접근한 기사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었던 법안들 중 태완이법, 조두순법, 민식이법 등 가해자나 피해자의 이름으로 이름 붙여진 법안들이 꽤 있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정치인들은 이미 감정적으로 법안을 포장하여 사회에 내놓는 편이 사회의 관심을 끌기도 쉽고, 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쉽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은 논리적인 설득 보단 감정적인 설득에 더 쉽게 넘어가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으로 법이 제정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법안의 위헌 소지나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논의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이슈 분석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음은 물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에 대한 이런 모니터링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률연맹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었기에 더 보람찬 2023년의 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 꿈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경험 할 수 있게 해 주신 법률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IT미디어공학과 강 ○ 아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 것은 불과 1년 전의 일이었다. 당시 나는 해외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담당 교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내 성격과 적성에 가장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았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다. '평범하게 대학 졸업해서 직장인이 되어야지' 했던 소박했던 내 꿈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다. 가을 학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한국 대학으로 편입을 하였다. 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찾아보면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지난 활동들을 찾아보았는데,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직접 재판을 보거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들이 내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아쉽게 오티 일정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되고, 메일로 받아본 오티 자료는 나에게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오티 자료를 통해 법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권리와 자유가 가진 영향력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었다. 단순히 내 성격과 잘 맞는 것 같아서 법을 배우고 싶다는 내 단순한 생각이 부끄러워졌고, 봉사활동에 진지하게 임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다. 오티가 끝나고 처음으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의정 모니터링' 활동이었다. 내가 배정받은 의원은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의 신정훈 의원과 전라북도 군산시의 신영대 의원이었다. 평소에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지만, 의원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세세하게 살펴본 것은 처음이었다. 의원들이 내세운 공약과 이행 상황을 보면, 해당 의원이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었고, 각 지역이 가진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또, 주민들의 기대가 큰 공약임에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았어서 이런 공약들이 쓸모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행을 요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두 번째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였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 또래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재학 중인 학교가 여자대학교라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설문조사를 진행한 점이 아쉽다. 다음 봉사활동 때는 다양한 성별과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조사해볼 계획이다. 봄학기에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 때문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여름학기에는 재판에 직접 참석해보거나,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보고 싶다.

○ 국민대학교 법학부 고 ○ 진

이번 봄에 인터넷에서 법률소비자연맹에 대해 알게 되었

는데, 저의 전공을 살리면서도 봉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법률소비자연맹의 봄학기 봉사활동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매우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볼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판결문 리서치가 법학 관련 경험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를 위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법학 공부를 하면서 교과서에서 본 판례는 주요 쟁점을 요약하여 제공하거나 아니면 판결요지만 가져와서 설명하는 등의 형식이었는데 처음으로 완전한 판결문을 접해보니 역시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때문에 첫 판결문은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 판결문을 읽어나가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느낌이 느껴졌고 마지막 판결문 리서치를 할 때에는 어려움 없이 판결문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며 이를 읽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판례에서는 대법관들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자신의 주장을 논증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는데, 어느 입장을 읽든지 양쪽이 주장하는 바와 그 근거가 명확하고 납득이 되어 어느 쪽에 설득당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대법관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저도 판결문 등을 많이 읽어봄으로써 이러한 분들처럼 내 생각을 확실한 근거를 들어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수의견에서는 다수결의 원리에 지배받고, 이에 따라 운영되는 입법이나 행정과는 다르게 사법은 소수자들이라도 다수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인권 등을 수호하여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표현한 것이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이 해야 할 역할을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 가장 기억에 남았고,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자신의 임무에 임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처럼 판결문 리서치를 통하여 저어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판결문이 작성되는 과정, 판사들이 어떠한 논증을 거쳐 판결을 내리는 지 등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향후 법학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실제 판결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찾아보고 뜻을 풀이하면서 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좋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은 저에게 꿈과 관련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우리 사회에서 법원 또는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 법원 방청 등의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고 ○ 원

한 학기 동안 제가 참가했던 활동은,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 대학생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 법정모니터링 활동, 미국 코네티컷 주 헌법 번역활동입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법정모니터링과 미국 헌법 번역활동입니다.

먼저,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 활동입니다. 제가 모니터링 했던 재판은, 411억 원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재판이었습니다. 해당 재판의 특징적인 점은, 피고인은 이미 2년 전 검찰에서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뒤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었지만, 411억 원 배임한 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의해 추가적인 고발이 이루어져 2년 뒤인 올해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혐의에 관련해서는 늦게라도 쫓값을 치를만한 재판이 열렸다는 점에 대해선 다행이었으나, 제때에, 제대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인 시민들의 고발을 통한 뒤늦게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점은, 저에게 몇 가지 문제의식을 안겼습니다.

검찰 및 사법부는 워낙에 범접 불가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저 또한 이들에 대해 국민으로서 감시해야 한다는 역할이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대한 기소를 하고,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는 모두 그 당사자가 우리 국민입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그 행위들이 이루

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건강한 법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민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학기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기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정의구현이 이루어지지 못할 뻔한 상황을 목도하며, 국민의 견제와 관심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또 하나의 인상 깊었던 활동인 미국 코네티컷 주 헌법 번역활동에서, 저는 맨 처음 1조부터 입법, 행정, 사법 권력에 대해 명시를 해 놓은 5조까지의 내용을 번역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매우 많은 부분들에서 주(州) 내에서 삼권분립을 실현하고 개별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규정해놓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각 직책이 부재상황일 시 대행자에 대한 규정은 물론이고, 그 대행자가 부재할 상황일 경우까지도 규정해 놓은 부분에서, 헌법 수립에 있어서의 치밀성에 새삼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 행정 및 사법, 입법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헌법을 들여다보며,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헌법의 초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 우리나라에는 없는 치안판사, 내지는 카운티의 치안담당관들에 대한 내용 등을 번역하며, 우리나라와는 다른 정치적, 사회적 풍토에서 발생한 국가기관의 상이성을 직접 확인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도 적잖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특히 위 두 활동을 하며 큰 배움의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법, 정치 문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이 컸습니다.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공 ○ 원

이번 봉사활동은 2021 겨울학기 봉사활동 이후 두 번째로 참여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었는데, 그때만큼이나 배우고 느낀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필수 봉사활동인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의정모니터링-공약 이행률 조사와 번역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의정모니터링 - 공약 이행률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약 분류 작업부터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각 국회의원이 어떠한 의도로 공약을 제시했고, 공약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공약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공약을 이행했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을 통해서 국민으로서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정모니터링 활동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행 정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단순히 이행 여부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약 이행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이 공약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공약을 분석할 수 있어서 이 과정이 무척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도 공약을 접할 때에는 공약의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다면,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공약이 제안된 배경부터 이 공약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실효성이 있는지, 즉 공약의 제안 과정부터 이행 과정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역할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선출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역할이 시작됨을 깨달을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법률을 번역하는 번역 봉사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법률과는 어떠한 점이 다른지를 비교하며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 용어를 찾아보는 과정에서는 이 국가의 운영 원리가 우리나라와 어떠한 점이 다른지, 그리고 어떠한 배경으로 이러한 차이점이 생긴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법률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고, 자연스러운 문맥을 위해 문장과 단어들을 가다듬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번역을 모두 마친 후에는 엄청난 보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얻은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도 함께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만 의정 활동이 유의미해지고 완성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자신의 역할은 물론, 그 역할의 책임감과 무게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제가 국민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역할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번역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이토록 관심을 가질 기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른 나라의 법률을 번역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나라 법률과 어떠한 점이 다른지, 어떠한 의도로 조항을 만들었는지 등 법률을 비교 분석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이 과정을 통해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김 ○ 우

1)의정모니터링

: 의정모니터링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고양시(을)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공약에 관해 분류하고, 공약 이행률에 관해 분석하였다. 생각보다 공약의 분야가 다양했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공약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교통에 관한 공약이 중심을 이루었다. 행정중앙로역 신설이나 신분당선 삼송역 연장 같은 지하철인프라 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이나 주차장 확충 등 다양한 곳에서 시설 개선을 추구한다.

투표권을 지닌 시민으로서 의정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컸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표자이다. 따라서 투표권을 지닌 시민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비록 내가 투표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해당 봉사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어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했다.

2)법정치의식 설문조사

: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하면서다양한 학교, 학년, 연령, 성별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또한 이를 수합해 하나의 결론이 도출될 것을 보고,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이 인상 깊었다.또한 대학생들의 법정치의식에 관해 다른 만큼 설문조사의 의의는 컸다고 생각한다.

3)사법감시 - 판결문 리서치 (1)

: 사실 판결문 리서치를 신청할 때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얻어갈 것이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얻어갈 것이 많았던 것은 맞았다. 법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시사적인 이슈까지 접할 수 있었다.또한 사건이 발생한 개요와 그 판결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사회의 운용에 관해 깨달을 수 있었다.그러나 판결문 읽기가 여간 쉬운 것은 아니었다. 판결문에는 법률적 용어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 용어가 많다. 특히 처음 맡은 사건은 의료 사고 관련이었기 때문에, 많은 의료 용어가 있었다. 이로 인해 판결문을 분석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낸 이후에는 정말 뿌듯하였다.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지식과 사고의 확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4)사법감시 - 판결문리서치 (2)

: 사건 자체가 매우 흥미로웠다. 1심과 2심, 3심 모두 일부 원고 승소이지만, 그 판결 내용은 계속해서 변화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판결문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 매우 흥미로웠다. 모든 판결이 법률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해석은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법률 해석의 중요성 또한 인식하게 되었다.

5)사법감시 - 판결문리서치 (3)

: 이 판결문은 길이부터가 꽤나 길었다. 또한 자본의 흐름에 관해 다른 판결문이었기에, 복잡하기도 했다. 그래서 판결문 리서치를 할 때 꽤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자본의 흐름에 관해서 다룰 때여러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한 문단 한 문단 읽기에도 어려움이 컸다. 그래도 판결문 리서치 (1), (2), (3) 모두 다른 분야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하였기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6)사법감시배심원단

: 처음으로 법원에 가서 재판 과정을 방청하였다. 생각보

다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아니어서 편하게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다.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또한 판사님께서 중복질의를 금지하시는 등 정석적 재판을 진행하셔서 더욱 인상 깊었다.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이를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직접 재판 진행에 참여한다는 점이 좋았다.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 ○ 현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실상 법을 위반해 보지 않고는 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체감이 안될 때가 많다. 근면 성실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나에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실제로 '법에 의한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체감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의정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법률 번역 순으로 소감을 말하고자 한다.

1. 의정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은 금학기 필수 봉사활동으로 총 2명의 국회의원에게 배정되었다. 배정받은 선거공보를 보며 공약을 분류하고 분류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이행을 검사까지 이어지는 봉사활동이다. 선거공보에 제시된 공약을 파악하는데 한 명은 34개였고 다른 한 명은 72개로 합쳐서 100개가 넘는 공약이행률을 조사했다. 아니나 다를까 공약이행률조사는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느린 점은 공약에 대한 이행을 저조할 것이라 편견이 깨진 것이다. 물론 선거공보에 나온 공약은 100%지키진 못했지만 자신이 분명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는 모습을 보고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2. 법정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덕분에 서울중앙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형사단독부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안이 담겨 10분마다 재판을 '찍어내고' 있었다. 인상깊었던 것은 또래의 피고인들과 술하게 많은 사기 피고인이었다. 판사와 검사 모두 재판당사자로서 피고인들에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내도록 노력했고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교양으로 배웠던 소송법들의 개념(모두발언, 증거신청, 증거채택, 선고 등)들이 방청하면서 생생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법정모니터링이 개인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재판공개주의를 실천하면서 국민으로서 재판시스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직접 깨닫게 해주어 뜻깊은 활동이었다.

3. 법률봉사

미국 국가노동법을 번역했는데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린 활동이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라도 법률제도 하에서 직역, 의역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의어 사전을 많이 참고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법률이 개정이 된다면 해당 조항 아래에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주석을 단다는 것 또한 번역 외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번역봉사를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지식이고 필자도 능동적으로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직접 조사함으로써 많이 보람을 느낀 경험이었다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 ○ 연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왔고, 홈페이지를 접하고 난 후에는 로스쿨을 가고자 하는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던 봉사활동이었다. 마침 이번 학기에 휴학을 하게 되어 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될 것 같아 앞뒤 재지 않고 공지가 뜨자마자 바로 신청해서 의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봉사활동인지는 알지 못했다.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받고 나서야 내가 법률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실감히 났는데, 평소 흥미로워하는 법을 통해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로 설렜던 기억이 난다. 이번 봄학기 필수 봉사인 의정모니터링이 내 봉사 활동의 첫 시작이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많이 해맸던 것 같다. 내가 찾은

뉴스 기사나 해당 의원에 관련된 정보가 실제로 맞는 정보인지에 대한 진위성을 따지는 것부터 공약이행에 관해 점수를 매기는 것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공약들도 꽤 많았고, 해당 의원별로 공약 이행률을 기재해놓은 홈페이지 역시 존재하지 않아 몇 십개의 수많은 공약들을 일일이 검색해야지만 관련 기사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내가 만약 봉사자가 아닌 해당 지역에 유권자로서 생각해본다면 해당 국회의원을 지지하여 선출한다 할지라도 선출된 국회의원이 공약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매우 번거로울 것 같았다. 공약 이행률은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합리적이고 좋은 후보자를 색출해내기 위한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나 관련 사이트가 만들어진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다. 봉사자로서는 좋았던 점이 많았는데, 이번 봉사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이 지역의 어떤 문제에 초점을 공약을 내놓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 고충과 보완사항을 알아볼 수 있었던 점은 좋았다.

판결문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의정모니터링보다 더 복잡했다. 여러 가지 판결문이 존재하지만 내가 선택한 판결문들은 대체로 길이가 긴 판결문들이었고, 세 번째로 한 판결문 리서치는 피고인이 무려 9명이나 되어 이들 간의 사실 관계 및 쟁점을 파악하는데 부단한 어려움을 겪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짧은 인턴활동을 하며 판결문을 다수 접했음에도 판결문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리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내가 접했던 교특치사, 손해배상, 사기 등의 흔히 접할 수 있는 2~3장 내외 판결문과 비교해보았을 때 판결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기도 하다. 각각 죄명이 다른 총 세 개의 판결문을 선택해 봉사를 하였는데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사건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던 기억이 난다. 이러한 봉사는 쉽게 접하기 힘든 특별한 경험이라 생각이 들어 궁극적으로 모든 봉사가 재미있었다.

일회성으로 끝내기 보다는 시간을 내서 꾸준히 활동하고 싶다. 이번 학기에는 의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총 두 가지 봉사밖에 못해보 아쉬움이 남는데, 다음 봉사에서는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나의 길이 맞다는 확신이 필요한 순간마다 봉사를 하며 느꼈던 긍정적인 마음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르는 것을 여쭙볼 때 마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셨던 소비자법률연맹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 ○ 현

이번 학기에는 평소보다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하는 학기가 되었습니다. 학교 일정상 봉사활동을 5월이나 되어 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주어진 시간 내에서도 최대한 알찬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학기였습니다. 특히 각 활동을 스스로 신청하여 배정받아서 하는 활동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여 적어도 배정받은 후 수월 내에는 제출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시작은 늦었지만 마무리는 나름 만족스럽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이번 활동 동안에는 법률과 사회 체계에 대한 학습뿐 아니라, '봉사'라는 활동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책임감, 배정받은 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성, 성실성 등을 수양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물론 법률과 정치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다수의 번역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특정 법률에 대해 오랜 시간 많은 분량을 연속으로 번역하다 보니 해당 영역에 대해 유기적이고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주로 번역한 법률은 미국의 비당파적 선거운동 개혁법이었었는데, 특히 선거운동 자금에 대한 규제를 위주로 다루고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안들을 총망라하는 것이 아닌, 연방 선거운동법에 주어진 내용을 특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법이었기에 주로 A조항에서 A-1부분을 삭제하거나, 특정 조항 사이에 B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개정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본 법률의 내용이고, 어디부터 개정되는 법안에 삽입되는 내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법률 원

문에 제시된 모든 조항들이 기존 법률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신법 우선 적용의 원리 등에 의해 큰 틀에서는 법률가들이 실무에서 법을 적용할 때 중대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번역하는 봉사자 저 개인의 입장에서 세부적인 분류가 많아서 숫자, 알파벳, 로마자 소문자 숫자, 로마자 대문자 숫자 등의 위계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 배당이의에 관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나 진행했었습니다. 관심 분야인 경제와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던 중 발견한 판결인데, 해당 리서치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경제와 법의 관계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적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관의 적극적인 법 해석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받지 못한 개인 근로자들이 은행 등 거대금융 회고에 비해 채무자에 대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지를 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피고 측은 1심에서 원고 측에서 소명 자료를 배당 중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배당이의가 아니며 이에 따라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관들은 소명 자료를 배당 중기일까지 제출하라고 명시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원고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 주어진 사실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인지 가능한 정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원고들의 적법한 배당요구를 인정했습니다. 2심과 3심에서 법관들은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명시적인 규정을 다른 법규범과 조화롭게 해석하고자 했으며, 이로써 1심에서의 원고 우선 변제권이 일관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민사집행 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절차법적 요청하에 내려진 해당 판결은 합리적이며 정당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은 원문에서만 존재해서는 안 되며, 실제 사회와 소통하며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두 차원 모두 점차 모습을 서로에 맞추어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고 길을 닦는 것이 법률가의 직무인 듯합니다. 이번 학기의 봉사는 앞으로 법률가의 진로를 꿈꾸는 한 명으로서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 ○ 현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알게 된 것은 법에 관련된 대외활동을 찾아보던 중이었다. 법정 모니터링, 의정 모니터링, 번역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느껴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다.

먼저 의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약분류와 공약이행률 조사를 수행했다. 정치인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는 평소 선거철에만 잠시 관심을 갖는 주제였다. 또 선거에서 내세우는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이번 봉사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공약을 세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흥미로웠고, 생각보다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라웠다. 또한 경제성장같이 대통령 선거의 거시적인 공약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국회의원의 공약을 조사하면서 주차장 설치, 도서관 설치와 같이 일상적인 요소들도 정치인의 영향력이 가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일상생활의 많은 것들에 정치인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로 법정 모니터링을 수행했다. 법원에 직접 방문에 재판을 방청한 뒤 재판의 구성원들이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특히 인상에 많이 남았던 활동이었다. 법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재판 방청은 한 번쯤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번이 직접 방청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에 방문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방청해보았다. 방청은 여러모로 인상적이었다. 재판의 분위기는 대체로 편안했으며, 드라마에서 볼 법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역시 가장 좋았던 점은 법조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코앞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판사, 변호사, 검사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원하는 내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성찰할 수 있었다. 봉사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방문해 여러 재판을 방청

해보고 싶다.

세 번째로 판결문 리서치를 했다. 1심, 2심, 대법원의 판결문을 모두 읽고 이를 정리하는 활동이다. 법학 수업을 듣고 공부하면서 몇 가지 판례를 보기도 했는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법률 조항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고 해석이 나뉘는 쟁점이 되는지 알아보았다. 긴 판례문을 읽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판결문의 논리를 따라가 보는 과정이 재미있기도 했다. 앞으로 법학을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번역 봉사도 했다. 영어로 된 플로리다 법조문을 한글로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이 또한 힘들지만 재미있는 작업이었다. 법조 용어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많이 찾아보고 번역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의 법률 용어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보람있었다.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은 앞으로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에도 여유가 되면 한번 더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다.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김 ○ 희

처음 법률연맹을 접하게 된 것은,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로스쿨 진학을 생각해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 나의 꿈과 연관성이 있는 활동, 그러면서도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을 작성한 수기를 읽게 되었고, 저도 흥미가 생겨 바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봉사활동은 그동안 했던 봉사활동과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법 공부를 해 본 적도 있고, 다양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및 행정활동, 그리고 국제법에 대해 공부를 한 경험은 있었으나, 그것을 실무에 적용해 본다면 현실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활동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막연히 정치인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들의 행정작용은 무슨 의미를 가지며 사법, 입법, 행정은 무엇인지에 대해 추상적인 공부만을 했을 뿐, 직접 살펴볼 기회는 학부생 수준에서 쉽게 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률연맹에서 봄 학기에 제가 수행한 봉사활동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점검 및 분류, 의정모니터링, 그리고 국제법 영어 번역 봉사였습니다. 학기와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중심의 봉사활동에 치우치게 되었던 점이 다소 아쉽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다시 참여하여 법정 모니터링, 사무 업무 등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행 점검과 의정모니터링은 예정받은 국회의원의 공약을 항목에 따라 분류해보거나 다른 봉사자의 분류를 점검한 뒤, 국회의원이 해당 공약을 실천했는지 하나씩 점검해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은 많이 보았지만, 실제로 공약을 이행하는지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어서, 일단 당선되고 나면 공약을 대부분 이행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하나씩 찾아보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내에 포함되어있는 공약의 일부를 파악하는 과정은 저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업시간 내에 이론으로만 배웠던 예산안의 편성과 확보, 법률안의 발의, 국회의원과의 지역구의원 간의 협력 등을 공약 하나하나 검색하고, 법률안을 찾아보면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실무가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번역의 경우, 평소 영어에는 자신이 있던 터라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 형법과 비당파적 선거운동 개혁법을 번역하면서 법조문은 어느 나라나 모두 복잡하고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문장의 호흡이 정말 길고, 다양한 조건과 예외가 뒤섞여있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미국의 법체계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많은 분량을 다루지 않았더라도, 한 문장을 번역하면서도 얻어가

는 점이 참 많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 스스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운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로 법률연맹에서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봉사자로 활동하며 이번 학기에 참여하지 못한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기회와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김 ○ 원

교육학을 전공하며 청소년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아갔을 때 지혜롭게 본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과목이 사회와 과목이라 생각하여, 사회교과 교육을 공부하고 있었다. 청소년이 어른이 되었을 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레 소년법들이 범죄로 재판받고 교화되는 것이 관심 분야가 되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학교폭력 문제가 소년 재판에서 다뤄지던 주요한 문제였다가 최근 들어 마약 거래나 성범죄 등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죄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직 수업을 들으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교화시키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는 것을 느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인계 후,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화하는 것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로, 이번 학기에는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첫 활동이 법정지식조사였는데, 이 설문조사를 시행하면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법정지식조사의 설문 질문이 사회 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원칙과 위배되는 공격적인 질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밖에 다른 활동들은 모두 범조계 활동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봄학기 활동에서는 4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1, 2, 3심 판결문을 찾고, 읽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리서치를 거듭할수록 판결문의 구조나 판결문을 쓰는 방식에 익숙해져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점점 더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될까? 와 같은 질문도 생겨났다. 이 활동 덕분에 판결문 열람 신청도 해보고 판사나 변호사들의 프로필과 최근 사건 결과를 찾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막연하게 판사라는 직업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로스쿨 진학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각급 판사들, 대법관들의 프로필을 보며 이러한 순서를 밟아 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 대상 사건으로 선택한 4가지 사건은 모두 '학교'나 '교사'와 관련되어 있었다. 교내 징계, 기간제 교사의 직무 유기, 학부모들간의 분쟁,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분석하다보니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교내 법 토론 동아리에서는 흥미와 관련된 사건만을 골라서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은 하고 싶은 활동을 신청하고 특히 관심있는 사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었다.

법정모니터링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싶었으나, 다른 일을 병행한다고 법정모니터링을 가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 여름 학기에는 시간을 내어 법정에 자주 출석하여 모니터링하고 법정 현장에 있는 여러 직업들 중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고 싶다. 특히 관심있는 소년 재판을 직접 모니터링 해보면, 문서 상에는 보이지 않는 소년 재판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 ○ 정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꼭 알아야 할 것이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잊고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법률과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법률과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생활이 바빠지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잊고 지냈던 대한민국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 본 의정활동모니터링봉사활동

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2인의 공약이행사항을 조사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정활동들에 대한 자료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의회의회의록, 국회의원개인의 블로그 등 SNS, 관련 신문기사 등 다양한 곳에서 조사를 진행해야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공약집에 있었던 공약의 명칭과, 공약이 실현된 후 그것의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공약이행파악이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만약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공약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에 관한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공약이행에 대해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료집이나 누리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정지식조사를 하면서, 정치법률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생애계획, 예컨대 결혼이나 자녀계획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비슷한 답을 내리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제 또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기회가 적었습니다. 법률연맹에 참여함으로써, 꼭 해야 하지만 하기는 어려웠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연방준비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봉사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미국연방준비법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저는 연방준비법을 번역하면서, 중앙은행의 설립과 그 산하기관 설치에 있어 수 많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것에 관련한 법률을 추가적으로 번역할것을 요청받아, 해당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금리인상 및 인하의 원리인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에 관련한 법조항들을 번역하면서, 전공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 굉장히 많은 법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부에서 배운 내용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김 ○ 주

공학계열로의 진로를 꿈꾸다 우연한 기회로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로스쿨 진학 준비에 도움이 될만한 여러 활동을 찾아보던 중 한 블로그에서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추천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대면 위주의 다소 생소한 활동 내용들을 보며 과연 이 활동을 통해 한 학기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법률연맹의 활동을 이수했던 다른 봉사자분들께서 남긴 후기를 찬찬히 읽어보며,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공정한 사법 서비스 형성의 기여라는 그 큰 뜻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오리엔테이션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서 아쉬웠습니다. 대신 메일로 송부받은 오리엔테이션 교재 자료를 정독하며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가 추구하는 정의와 법치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고, 한 학기 동안 이를 마음에 염두하고 봉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진행해보는 활동이기도 했고, 활동과 관련해 주변에 자문을 구할 곳이 없었던 탓에 제 알은 지식으로 연맹에 폐를 끼치지 않는까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첫 봉사활동이었던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법률연맹에서 보내준 안내자료만 정독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에 임한다면 누구나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봉사활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당자님의 친절하고도 신속한 피드백 메일을 통해 최종 제출 전까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첫 활동이었음에도 문제 없이 봉사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생소하고도 낯선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거주하는 지역구가 아니어서 공약의 사업 이행 정도와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웠으나, 어려웠던 만큼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

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약 관련 사업 진행 기사를 정리하면서 학교 수업에서 들었던 국고보조금,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봉사활동은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이었습니다. 처음 재판에 방청하게 된 것이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가능한 모든 재판에 참여하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의 방청을 통해 책에서만 보았던 증거인부, 증인 신문 절차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증거를 부동의하면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재판을 지켜본 결과 생각보다 피해자의 권익에 많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의 권위 또한 보호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8년이 나왔던 재판이 대학생 방청 이후 2심에서 12년으로 늘었다는 것을 듣고 피해자 모임만큼 대학생 감시배심원단의 역할이 중대하게 느껴져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계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설문지 문항 속 다양한 법적, 정치적 상황에 무지했음을 깨닫고, 사회·경제면의 신문 기사를 읽는 습관을 들이며 먼 이야기로만 여겨왔던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번역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번역기의 도움 없이 러시아 헌법의 여러 조항을 번역하며 일상생활에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용어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이 지켜지려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법률연맹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 정의를 이루기 위해 장기적, 지속적으로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학교 수업 및 다른 대외활동과 병행하며 진행하느라 이번 학기 활동이 아주 만족스러웠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 학기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자 여름학기 봉사활동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 해보지 못한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여름방학 활동 때 꼭 진행하여 불학기에 아쉬웠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김 ○ 석

이번 봉사활동은 저의 세 번째 봉사활동입니다. 세 달 조금 넘는 시간동안 의정모니터링 공약분류, 법정치의식조사, 4건의 판결문 리서치, 번역봉사를 총 48시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봉사활동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 3월부터 미리 봉사활동을 많이 진행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용시즌과 겹쳤고 4월 중순부터 회사의 인턴으로 출근을 하게 되어, 이번에도 봉사활동 막바지에 많은 활동을 하게 된 점이 아쉽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봉사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번학기만큼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에서 만족스럽습니다.

이번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봉사활동은 번역봉사였습니다. 번역봉사는 처음이었기에 걱정이 있었으나, 국제법무학과 전공 수업에서 영미법을 배웠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전공을 살려보고 싶어서 영어로 신청을 했고, 미국국토안보법의 438p ~ 465p를 할당받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미국 국가부서의 직급의 체계와 법 체계가 한국의 법과 달랐던 것이 해석을 어렵게 하였으나, 네이버 영어사전 예문과 구글 검색을 활용하며 적절한 번역을 찾아나갔습니다. 제가 번역한 부분에는 보안 관련 기술의 획득과 유지, 상호운용이 가능한 비상 통신, 대량파괴무기 대응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국토보안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행정부에서 사용하는 수 있는 기술 또한 고도화됨에 따라 그에 관한 법도 계속해서 추가되며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공적영역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행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과 심사요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규정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번역봉사를 통해서 미국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법적 용어들을 익혔다는 점이 글로벌 역량에서의 저의 강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학기의 필수봉사활동 중에 대학생 법정치의식조사가 있었습니다. 학기 중이 아니었고, 직접 조사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응답을 얻어지지 못했던 점이 개인적 활동 측면에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받았을 때, 저희 세대 대학생들의 특징이 제대로 나온 것 같아서 종합적인 결과면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저희 세대는 좌우로 나뉘기보다는 실용을 택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면이 있기에 법률봉사를 할 때에도 중립적인 시각의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성향들이 반영되어, 분열과 대립보다는 실용을 위해서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학기 봉사를 통해서도 주권의식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기여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점점 애국심과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이 더 강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면서도 국가의 자랑스러운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법치만민과 민주홍국이라는 연맹의 이념을 항상 생각하며, 다음 학기 봉사활동도 참여하겠습니다.

○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과 김 ○ 현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전공을 살리면서 뜻 깊은 대외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 2학년 때는 학업에 집중하며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을 하느라 대외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지방에 있는 본가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되어 대외활동을 접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라 생각해 학업 공부에 집중했지만, 졸업을 하고 난 후 대외활동에 도전해보지 못한 것이 여전히 후회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 의정모니터링, 법정치 설문조사, 판결문 리서치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이후부터, 투표는 국민에게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후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투표는 모두 참여했습니다. 투표 이후에도 공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투표가 끝나고 난 후에는 당선인에 대한 관심이 식어 당선인이 자신이 주장한 공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봉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남발하지 않고, 정말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 실행에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 한 국민으로써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병 '홍정민 의원'과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을 모니터링 했는데, 생각보다 이행된 공약이 많았지만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추진되는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관련 자료가 없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또한 공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자료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정보를 제대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잘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사에 크게 관심을 갖고 살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세상에 대해 너무 무지한 거 같아 뉴스를 구독해서 매일 아침마다 읽으려는 시도를 올해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지,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의 내용들 중 제가 모르는 내용들도 꽤 있어 관련 정보를 검색을 하면서 설문조사에 임했습니다. 법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지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치의 우리가 살기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시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뉴스를 읽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변 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공 시간에 판례 요약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다른 봉사활동보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주셨던 판례는 일부분만 발제가 되어있던 것이어서 그런지 판례 전체를

살펴보니 판례가 너무 길어서 놀랐습니다. 또한 저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어서 대부분의 용어를 다 이해할 수 있었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읽는다면 문장의 길이가 길고, 법률 용어들이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처음 읽는 사람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문장을 간결하게 적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대체될 수 있는 단어들로 대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개의견을 읽으면서 한 켤매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토론을 해서 결론이 도출되는 구나를 알 수 있었고,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고 저의 지식도 채워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고, 앞으로 열심히 법 공부를 해서 제가 법조인이 되었을 때 법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를 통해서 제가 전공한 법 관련 내용을 이용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판 과정을 실제로 보면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법률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었는데, 이번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에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해 법 모니터링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금속재료전공 김 ○ 록

2023년 2월 저의 학과를 졸업하면서, 저의 적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해왔던 것을 되돌아보았을 때, 성적표를 바라보면 전공수업보다는 교양수업을 더욱 열심히, 잘 해내었고, 그것에는 법이 함께 있었습니다. 막상 공부했었을 때는 법이라는 것이 지루한 내용들이라고 느꼈었는데, 이것은 법이란 사회적인 통념, 즉 상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법률들의 내용은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법률용어로 쓰여 있었고, 이것은 저에게 낯설음으로 다가왔고, 또한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적성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적은 시간을 투자함에도 다른 학우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던 법 교양들이, 저는 법조인에 소질이 있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을 품게 하였고, 그 결과 법학석사의 시험대로서 이번에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준계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봄 학기 봉사활동에서는 의정모니터링과 법의식조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해당 필수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 또래 학우 분들의 법에 대한 관심도 및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활동에서는 느낄 수도 없었고, 또한 필요의식을 느낄 수 없었던 해당 활동들을 법률소비자연맹의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봉사활동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의 경우, 초선의원과 4선의원을 비교하게 되었는데, 다선의원과 초선의원의 차이점은 공약상 당론적인 공약이 초선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에게 공약 달성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해야하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또한 다선의원의 노련미에 탄복하면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약이행도를 기준에 맞게 체크하면서, 국회의원분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사회의 한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법의식 조사의 경우, 저의 또래 지인 분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두터운 호남의 지리적 특성이 예상되는 조사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막상 취합해보았을 때,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소야대의 정국 상, 야권 제1당인 민주당에 우호적인 설문을 예상하였으나, 과반수인 당의 일방적 통과를 비판하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우호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것은 가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제 지인들 즉, 저의 또래들은 실용주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봄 학기 봉사활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위와 같은 활동 외에도, 판결문 리서치, 법정모니터링을 수행하였는데,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가까이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정모니터링에서 변론하는 모습들을 참관하였을 때 느꼈던 점은, 법정이라는 것은 중압감이 가득한 강제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편안하고 수필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의자 사이에서 오갔던 변론들과 증인들과 재판장의 대화들은 저에게는,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그에 맞는 결과를 구하는, 하나의 인과결과로 보였습니다. 결국 법정이라는 것은 인과결과와 연장선이었고, 이는 일상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에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법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봄 학기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법조인의 꿈을 더욱더 키울 수 있었고, 여름학기 봉사활동도 또한 참가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의 근간과 실태를 다시 한 번 경험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치주의사회의 한 국민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 조선대학교 공공인재법무학과 김 ○ 연

법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법에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올해 봄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법에 관련된 봉사활동이어서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으나 혼자서 글만 읽고 봉사활동을 해야 하기에 생각한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못했습니다. 봉사활동 해야지 마음을 먹고 자료를 읽어보는 것은 주 1회 이상 했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막막한 마음에 그냥 읽기만하고 다음 주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일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잡아주는 장치가 없기에 혼자서 계속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법정치의식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새로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정치의식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서 조사해야하기에 처음에는 싫은 마음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친구를 대상으로 한 번 진행하다보니 생각보다 정치와법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생각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12명의 친구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표본을 조금씩 쌓았습니다. 저는 법정치의식설문조사를 많은 인원에게 하지 못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원에게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지 4,000명이 넘는 표본이 있는 신뢰도가 높은 하나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 2명의 의원에 대한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국회의원을 뽑을 때 공약보다는 당이나 그 사람만 보고 뽑는 경우가 많아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공약을 이행할까에 관해서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약에 대한 내용도 찾기 힘들어 하기 싫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10개정도 찾고 나서 '와 이런 공약도 있었구나', '도대체 이 공약은 왜 안지키는거지' 등의 생각을 하면서 조사하다 보니 생각보다 재미도 있었고 이런 부분의 필요성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필요 없어 보이는 활동일수도 있겠지만 이런 활동들이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보람차게 자료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신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솔직하게 판결문리서치를 하다가 기간을 착각해서 기한을 넘겨서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이라는 것을 찾아보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판결문의 양부터 판결문의 내용까지 법적지식이 필요한 단어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결문리서치를 하면서 느낀 것이 그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내가 쉽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출은 하지 못했지만요.

이번 봉사활동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으나, 중간에 봉사활동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서 제대로 진행된 봉사활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쉬움을 다음에 다시 봉사활동에 신청을 해서 꼭 채워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는 이야기를 끝으로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 ○ 은

2023학년도 봄학기 봉사활동을 끝마쳤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에 이어 두 번째 봉사활동이었는데, 판결문 리서치에 가장 큰 흥미를 느껴 이번에도 리서치를 신청하였고, 저의 주된 활동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번에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했을 때는 '판결문을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을 묻는 질문에 '처음 읽었을 때는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어려웠지만, 두 번째 읽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항목에 체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확실히 판결문을 몇 개나마 더 접하니 이번 학기에는 '생각보다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고 응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읽겠다고 다짐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읽어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구해서 어떻게든 보더라도 훑어보기 식으로만 읽었을 것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다소 긴 시간이 들긴 하지만 판결문 외부 자료까지 살펴보게 되었지만, 저에게 정말 좋은 양분으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위원 공약 이행률 조사 봉사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고,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기에 신청했던 마음이 컸습니다. 또 국회위원의 공약 자료 역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에 평소에는 찾아보기를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봉사를 통해 어떤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 지, 그리고 여기에 중복되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한층 식견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공약이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선거철뿐만 아니라 당선 후에도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학기 봉사를 마무리하며 다음번에 또 신청할 때는 더 다양한 활동을 해야지, 하고 다짐했었는데 사실상 여러 사정으로 같은 봉사를 이어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을 통해서도 그만큼 얻어가는 것이 많아 정말 보람찬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시고, 문의 메일에도 항상 친절하게 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든 구성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회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김 ○ 비

마지막 판결문 리서치 보고서를 제출하고 소감문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분명하게 드는 생각은 바로 이 봉사활동을 다음 학기에도 또 하고 싶다는 것이다. 활동이 쉽고 재밌어서라는 이유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매번 과제물을 접할 때마다 낯설었고, 어려웠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것들이 많아서 할 땐 힘들지만 계속 이어가고 싶은 활동이다.

처음으로 한 활동은 국정모니터링이었다. 배당된 국회의원의 공약수가 많은 편이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항들이 꽤 있었다. 또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애매한 공약들도 있어서 요령이 없던 처음에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다. 우리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조사하면서 가장 와닿은 것은, '국회의원들 은근 열심히 일하네?'였다. 너무 솔직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이다. 평소에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이미지가 좋지 않고, 나 또한 의원들이 지역민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며 임기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물론 의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담당한 의원은 공약을 시도해보려는 의지가 보였고 실제로 점수를 매겼을 때 공약 이행률도 높은 편이었다. 그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논의되고 있는지 난생 처음 알았다. 아마 그 지역민보다 더 많이 알게 됐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어쩌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을 것이며,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선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겠다는 반성도 하게

되었다.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 활동은 상당히 흥미로웠다. 평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있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래 학생들의 의견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실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통계를 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을 거란 추측과는 달리 다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친구들과 이런 주제에 대해 깊이 대화해 본 적이 잘 없고, 서로 조심스러워 선불리 의견을 나누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가장 많이 한 활동이 판결문 리서치였다. 봉사활동을 신청할 때도 가장 하고 싶었던 활동이었고, 실제 하다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내 진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다. 법조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판례와 법률에 대해 찾아보고 스스로 식견을 넓힐 생각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했다.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막연히 알고만 있던 것에 대해서 직접 보고 구체적인 지식을 얻는 것과 더불어 내 의견도 정리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 판례는 언뜻 봤을 때엔 그저 글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리서치를 하면 할수록 판사들의 법리해석과 논리적인 적용에 감탄하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 그저 법률적 지식과 높은 지능만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및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사려 깊게 헤아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역시 판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싶으면서, 열린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에 대한 소양과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다는 의지가 굳건해지는 활동이었다.

언론 모니터링, 법정 모니터링 등 아직 못해본 활동이 있어 다음 봉사활동 때엔 더 다양한 과제에 도전해보고 싶고, 판결문 리서치를 꾸준히 해보고 싶다. 접하기 어려운 법·정치 분야의 활동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하다.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김 ○ 진

작년 겨울학기에 이어 2023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꿈꾸며 공부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이번 학기에 주로 했던 활동은 판결문리서치입니다. 제 관심 분야인 노동법 관련 재판들을 조사하면서 노무사건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판결문의 구조에 익숙해져 저번 학기보다 더 수월하고 깊이 있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은 정리가 잘 됐다고 칭찬도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기 초반에는 사법감시비서관단에 참여했는데, 뉴스에서만 봤던 큰 금액의 사기 횡령 사건인데다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매우 집중해서 방청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 공무원 등 여러 분들이 각자의 맡은 임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꼭 법조계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는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 조사하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치인 본인이 자료를 취합해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또 찾은 자료 역시 객관적으로 서술되기 보다는 지역 신문과 지자체 블로그에서 홍보 목적으로 과장되어 작성된 것도 많아 더 유심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유권자로서 한 표를 더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치인들이 그에 걸맞게 성실히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봉사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김 ○ 진

법학 관련 전공으로서, 이를 활용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대학생 상대 봉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보고 신청하였다. 법 관련 봉사나 대외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지 막막하였는데, 각 봉사 별로 매뉴얼을 자세히 제공해주셔서 처음 해보는 사람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공약 이행을 조사를 하면서 지역구 별 국회의원과의 공약을 알 수 있었다. 정치 공약이라고 하면 막연히 생각하고만 있던 것들을 넘어서 지역구 별로 지역민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특정 지역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예상보다 의원마다 공약 수가 많아 조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일일이 기사를 찾아보고 공약이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그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공약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의원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 개수가 특히 많은 경우에는 유명무실한 공약이 많았다. 수를 늘리기 위해 지키지 못할 공약을 여럿 내거는 것이 긍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또한 선거공보를 보면서 타 정당을 비하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부분에서 있어서는 도리어 유권자의 반감이 들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평소 법에만 편향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 아쉬웠는데 정치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 같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는 전공을 살려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청하였다. 평소 학교를 다니며 법학 과목을 들을 때도 판결문을 여럿 접해왔기에 낯설지는 않았다. 물론 판결문 리서치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것과 강의를 들을 때 참고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기에 법학 전공인 봉사자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다. 판결문을 단순히 읽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정보에 대해서도 조사하면서 어떤 사건이 존재하는지 다양하게 알 수 있었고, 사건 하나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훗날 법조인이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을 대입해보며 의뢰인이 몇 년간 겪을 피로함을 고려하면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황에 감정을 이입하게 되었는데 과연 법조인으로서는 객관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 검사와 변호사는 잘잘못을 가리는 직업이 아니기에 주어진 바 소명을 다하는 것이 직업의식이 투철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은 아직 없었다는 생각과 함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거나 스펙을 쌓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사회에,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취지에 딱 맞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 시간이 적게 들거나 간단하고 쉬운 활동은 아니지만 유익한 봉사를 찾고 있다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과의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을 해주고 싶다. 특히, 계절별로 학기가 나누어져 있어 학기 중에 바쁠 경우 방학 때도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다. 이번에는 학기 중에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 다양한 활동을 못 한 것 같아 아쉽지만, 졸업 전에 꼭 한 번 더 신청해 다른 활동도 해보고 싶다.

○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 ○ 재

겨울 방학이 끝나갈 무렵,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 로스쿨 진학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마침 법정모니터링, 번역봉사, 판결문 리서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등과 같은 법 관련 봉사활동이 있어서 바로 지원을 결심했다. 한 학기 동안 학교 생활, 학회, 학생회, 대외활동 등과 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고 무엇보다 내 시간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들었다. 만약 모든 활동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면 최소 봉사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것 같다.

오티회신서를 제출하고, 처음으로 한 활동은 의정모니터링이었다. 정치외교학과에 다니고 있기에 평소 선거 제도와 정치, 국회의원에 관심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공약을 꼼꼼하게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 의정모니터링을 통해 여러 의원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낱알이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다. 공약점검이 끝난 후 이행을 조사에서는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기사 등을 검색해보았는데 이 과정이 의외로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활동에 임했다. 의정모니터링을 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10개 내외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활동을 진행해보니 50개는 기본으로 넘어서 충격적이었다. 또한 대중매체에 소개되지 않았

더라도 여러 공약이 이미 시행 중이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 국회의원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하나의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가 필요하며, 과정 또한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정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살았을 부분이었던 것 같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여러 봉사 활동 중 가장 기대하던 활동이었다. 재판 방청은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법원에 가 볼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살았다. 알고 보니 웬만한 재판은 모두 자유롭게 방청이 가능했고, 생각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놀랐다. 다행히 집에서 10분 거리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있어서 수업이 없는 금요일 여유롭게 법원 재판 방청을 자주 갔다. 법정모니터링을 하기 전까지는 한 재판 당 재판 시간이 최소 1시간은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변호사와 검사가 치열한 논쟁을 하는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 재판은 내 상상 속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우선 한 재판 당 10분~20분 정도가 대부분으로 무척 빨리 진행되었다.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고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이야기한 후, 판사가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는지 물어봤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검사와 변호사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 판사, 검사, 변호인 모두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었다. 이렇듯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판과 법조인에 대한 선입견을 많이 없앨 수 있었고, 실제 재판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재판에서 법률용어가 자주 등장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해야 하나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재판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았고,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설명하는 느낌이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로스쿨 진학과 법조인이라는 진로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번역 봉사활동은 내가 했던 활동들 중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활동이다. 양도 양이지만, 법률 용어가 영어로 적혀 있다 보니 그에 맞는 자연스러운 번역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플로리다 주 헌법을 번역하며 미국에 존재하는 법원의 종류와 법관의 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볼 수 있었다. 법 정치 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는 정치적 이슈와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 남북 관계, 사법 체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우리나라 시민들의 법 정치 의식이 더욱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렇게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며 의정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번역봉사,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는 참여를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다양한 분야에 서 활동해보고 싶다.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 정치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가는 것 같아 좋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활동을 추천할 것이다.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김 ○ 주

저는 이번 2023년 봄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활동에 참여하기 전, 저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대학에서도 법과 관련된 교양 수업들만 들었을 정도라서 법과 관련된 소양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과 관련된 소양을 쌓고, 한국의 법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해당 활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에 대해 더욱 자세히 찾아보면,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이 법과 관련되면서도 정당한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 바로 참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총 40시간 45분 동안 3개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이번 학기 필수 활동 중 하나였던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조사 의정모니터링을 배정받은 국회의원들이 총선 때 내건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구자근, 김경협 의원을

배정받아 각 의원들의 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활동을 할 때, 처음에는 공약과 관련된 기사 내용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따라 공약 진행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최근 기사들로 추리고 과거의 기사 내용들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활동을 계속해서 하다보니 이러한 과정도 익숙해졌고, 핵심 위주로 글의 논지와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능력이 강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공약을 잘 지키는지를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애초에 내세웠던 공약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내용이 구체화되었는지에 따라 공약 이행률이 눈에 띄게 차이난다는 점도 인식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미 시행된 공약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내용이 더욱 풍부해보이게끔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투표에 참여할 때, 후보자들의 공약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학기 또 다른 필수 활동 중 하나였던 청년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활동은 법의 날을 맞아 진행했던 활동으로, 저는 총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법, 정치 이슈들에 대해 청년들의 의식을 묻는 것이 조사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저는 조사를 하면서 응답자들에게 조사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물어봤었습니다. 이때,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내용이 어려워서 느낌이 가는 대로 표시했다'며 응답에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비록 7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조사를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한국 대학생들이 정치적 의식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돌이켜 생각해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조사에 잘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정치 이슈를 잘 알리게끔 질문에 나온 정치 이슈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언론 모니터링 활동 중 사실 분석에 참여했습니다. 4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도된 10대 일간지의 사실들을 분석했고, 분석한 기사의 개수는 총 164개입니다. 사실 이 활동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선, 다뤄야 할 기사의 개수가 상당히 많아서 이 기사를 다 읽어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들 자체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기술 협약, 간호법 제정,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 등 굵직하면서도 복잡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사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분석은 동시에 가장 기억에 남고 재미있게 작업했던 활동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이슈에 대해 언론사들별로 각기 매우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글에도 정치적 성향이나 언론사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 감탄했습니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글을 빠르게 핵심 위주로 읽는 능력도 강화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으로 가볍게 시작했던 봉사활동은 생각보다 저에게 많은 경험을 주었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 한국의 정치, 사회, 법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더더욱 저의 진로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번 학기에 진행하지 못했던 판결문 리서치나 법정 모니터링 등의 활동에도 다양하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김 ○ 진

지난 봄학기동안 법률소비자 연맹을 통해 의정모니터링 활동과 법, 정치 설문조사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 중 첫 번째로 실행한 의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항상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보면서 저렇게 수많은, 다양한 공약들이 정말 수행이 되는 것일까 항상 궁금했는데 직접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면서 관련 자료들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공약 이행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었거나, 기사들마다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아 확실한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는 지 점검을 하면서 주체 의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는 활동은 법률 소비자 연맹을 통해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평소에 하지 않았을 활동인데, 법률 소비자 연맹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좋았다.

법, 정치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신문에 실린 점이 놀라웠다. 그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을 때, 이러한 활동들이 불러온 결과를 전달받았던 경험이 전무한데 내가 진행한 설문조사 활동이 하나의 통계자료로 변화되어 신문에 실렸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뿌듯했다. 더불어서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청년층과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의 인식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었다. 이 봉사활동을 진행할 때 학교 중간고사 기간과 겹치게 되면서 많은 인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다음번에 법, 정치 설문조사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 보다 많은 인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하고 싶다.

초기에 많은 봉사활동들을 신청했지만, 코로나에 걸리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목표했던 것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풍부한 여름방학에도 법률 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번역봉사와 재판참가, 판례평석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진행하고자 한다.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 ○ 해

공약 분류 점검 및 이행을 조사 활동을 하면서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어떠한 공약을 가지고 나오는지 그 전반적인 공약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사실, 투표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후보자들이 어떠한 공약을 내세우는지, 그 공약들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그 공약들을 당선 후에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는데, 이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내세우는 공약들은 생각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동 하나 하나마다 그에 해당하는 공약들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동에 어떠한 건축물 혹은 도로를, 또 그 건축물 혹은 도로를 어떠한 형태로 등 과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약처럼 말이다. 앞으로 있을 투표들과 선거들에 있어서 후보자들이 어떠한 공약들을 내세우는지, 당선 이후에 이러한 공약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한 사건의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문을 모두 읽어보고 각 재판에서의 쟁점은 무엇인지 분석까지도 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읽어보고 분석해볼 뿐만 아니라, 판결문 내에서 어려운 용어들을 찾아가며 뜻을 파악해 보며 공부해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법에 대해 지식이 많지 않은 대학생인 내가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단어 및 문장들이 있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재판 당사자인 일반인들이 판결문을 읽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대부분 일반인들도 읽기 쉽게 쓰여 있긴 하지만, 간혹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있거나 문장 자체가 매우 길고 어렵기도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공약 분류 점검 및 이행률 조사, 판결문 리서치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 법이, 정치가, 비법률가인 일반인들이 보기에 쉽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 있는지, 비법률가인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를 분석하고 감시하는 것이 나와 우리의 권리를 행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경제학과 김 ○ 형

이번 봄학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많은 점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법 분야 및 정치 분야 관련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 법 사례들까지 두루 확인하며 개인적으로 진행해보기 어려운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류로 치면 다양하게 활동을 진행하지는 못

했던 것 같지만, 진행했던 활동들 모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던 활동에 해당했기에 보람찬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진행했던 의정 모니터링의 경우 제 평소 관심 분야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공약 분석 활동을 진행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들이 어떤 지역 내 사안과 연계되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두루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배운 점도 하나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 공약이 다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어 반복인 경우가 종종 있었고,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공약도 몇 개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거 문화 특성상 공약 내용을 진심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이목을 끌 수 있는 주요 공약에 힘을 싣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선거 공약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했던 독일 헌법(기본법) 번역의 경우 제가 독일어 구사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갖춘 어학 실력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현재 인터넷 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독일 기본법 영문 번역본의 경우 영국식 표현을 다수 포함한 경우도 많아, 의미 있는 번역 활동을 제 스스로가 진행했다는 점에서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대륙법계 국가를 대표하는 독일의 헌법을 번역하다 보니 역시 우리나라 법체계가 독일 법체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 거의 그대로 독일 헌법 내에도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졌고, 본 번역 활동을 통해 국가별 법 체계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했던 언론 모니터링 활동은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 개인적으로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결과물을 모아 놓고 보니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기간에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더 많은 분량의 기사 수집을 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 다른 보도 경향의 언론사를 분석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한 기사들을 비교 분석해보니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사들이 어느 정도 균형적 시각을 견지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발견하여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의미 있게 고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활동을 진행하면서 문외지식이나 계획과 달라진 변경 사항에 대해 전달해드리고자 담당자 분께 이메일을 드렸었는데, 항상 친절하고 답변과 함께 따뜻한 인사말을 덧붙여주셨던 담당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김 ○ 린

2022년 8월 처음 법률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법률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헌법 번역, 법원 방청 등의 흥미로운 활동을 하며 봉사와 법적 지식의 함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겨울방학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 굉장히 뜻깊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다음 학기인 2023학년도 봄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학과의 특성상 번역에 관심이 많았고, 법률소비자 연맹의 헌법 번역 봉사활동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학기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헌법을 처음 접하고 번역해보며 쉽지 않은 법률 용어를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의 뜻깊은 기억을 되살려, 이번 학기에도 역시 헌법 번역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결과 펜실베이니아 주의 헌법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와 대비하였을 때 아직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법률 용어들에 친숙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체감할 수 있었고, 각 나라의 헌법 구조의 특성들에 대해서

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법률의 번역은 매우 세심하고 정확한 작업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헌법을 포함한 법률 문서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대거 포함하고 있으며, 구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헌법을 한국어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번역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문화와 법적 체계의 차이 역시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법률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이러한 법률의 도전적인 작업을 경험하면서, 법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더욱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에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심한 부분부터, 매우 넓은 범위의 규정까지 다양한 구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헌법은 미국, 그 중에서도 펜실베이니아 주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준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번역 작업이 아닌, 헌법의 번역 과정은 사회적 정의와 법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봄학기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새롭게 신청한 여름학기 봉사활동에서도 법률 번역 봉사활동을 포함한 더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에는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제출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법률 번역의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 연맹에 감사드립니다.

○ 성균관대학교(글로벌경제학과) 졸업 김 ○ 수

이번 봄학기 필수활동인 의정 모니터링과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외에 언론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등 총 4가지 활동을 수행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면서 법 관련 봉사활동을 검색했고, 봉사가기관을 찾다가 '법률 소비자 연맹'을 알게 되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 교육에서 다소 생소한 분위기에 당황스럽기도 했으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연맹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활동한 언론 모니터링은 2023년 3월 5째주 10개 일간지의 사설을 분석하였다. 그 기간에는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외교라인 비서관 교체 이슈가 분석 대상의 모든 일간지에서 15개의 사설이 게재될 만큼 국민적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다고 볼 수 있었으며,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책과 일본의 역사왜곡 이슈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많이 다른 주제였다. 사설 분석을 통해 신문사별로 이슈별 게재현황과 그 논평 내용을 비교할 때, 물론 비판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중도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언론사가 상당수 있음을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론사의 성향이 보수이나 진보이냐에 따라 극명하게 그 관점과 논평이 다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에서는 주위의 지인 12명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법정치 관련 이슈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올해 2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던 2022두57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 판결문을 통해 각각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요지 분석 및 법률용어 해설을 수행하였다. 통근버스운행을 담당했던 운전기사에 대한 묵시적 해고의사표시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주요 판결 요지로서 흥미로운 소송 결과였다. 사용자의 묵시적 의사표시 때문에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됐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강요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실제 종종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동현장에서 사업주에 의해 빈번하게 이뤄지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판결문 리서치를 작성하면서 판사의 논리와 그에 따른 판결이 판사마다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따라서 재판 자체가 판결에 역울함을 느끼는 당사자도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도 들

었다. 동시에 법조인이 꿈인 나로서 깊은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를 작성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판결문을 찾고, 관련된 1심과 2심 판결문 분석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기사 조사 등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마지막으로 의정 모니터링은 2020년 4월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중 3명의 선거공약을 분류하고 점검하는 활동이었다. 개별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자료가 잘 제공되어 공약 분류 자체는 어렵지 않은 활동이었다. 다만, 국회의원 출마 당시의 공약 중 국가정책이나 당 차원 정책 관련 공약(예를 들어 원전 가동 재개 등)을 개별 의원의 공약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정책들을 의원 개인의 공약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법 공동발의만으로 공약 이행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의문도 함께 가졌다. 따라서 향후 공약 분류 시 개인 공약과 국가 또는 당 차원의 정책 관련 공약을 분리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 3개월 간의 활동을 돌아켜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반적인 봉사활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률과 언론의 역할과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당한 권리 보장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문 ○ 연

법률연맹에서 하는 두 번째 봉사활동입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을 하면서 재밌게 했던 판결문 리서치 봉사를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첫 봉사에서 판결문 리서치를 하는 동안, 판결정보를 찾는 것도, 법 용어를 찾는 것도 직접 판례를 읽고 이해하는 것도 모두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니 복잡한 표현들, 문구들, 용어들이 눈에 익어 전보다는 수월하게 판결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초기에는 판결문 리서치 문서 작성을 완료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법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논리적인 글을 읽다 보니 내용을 파악하는 것조차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례를 읽고 정리하는 것에 익숙해지니 어느 순간 피고인과 원고들의 사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부당하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에 관한 판례가 인상 깊습니다. 처음 이 판례를 읽었을 때, 원고와 피고의 대화 내용을 읽으면서(해고 상황) 흔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흔한 해고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예상대로 1심과 2심에서 원고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원고의 끈기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패소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일상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제한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대부분이 이렇게 한니까, 소송은 원고에게도 많은 스트레스를 주니까라는 생각으로 결국 순응하고 지나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현실에 맞게 발전하고 일상 속 부당함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원고 같은 사람들 덕이란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기록부 징계 무효에 대한 재판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 판례를 공부하면서 본심과 대법원의 논리 전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심에서는 본심 재판부는 단순히 사례에 적용되는 법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했고 대법원에서는 본심의 논리와 더불어 이 판결을 통해 학생이 징계를 무효화할 때 판례를 객관적 자료로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했습니다. 언뜻 보면 유사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징계를 생활 기록부에서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를 밝히는 것이 추후 학생의 입장에서 권리 구제 받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이 학교에서 징계 기록을 지우는 것에 반박할 여지를 줄임으로써 더 타당한 논리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2심 법원에서 객관적 자료로 사용될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판결문 속에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설문을 쓰고 주장을 개진할 때, 머리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글로 또는 말로 전개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이번 판례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실력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재판을 위한 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권리 구제, 분쟁 해소를 위한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논리 공부와 요구되고 앞으로 법조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꼼꼼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학기에 법문에 반하는 해석, 법문에 따르는 해석을 논점으로 하는 여러 판례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 공부하면서 알게 된 쟁점들이 판례에 실제로 담겨있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반갑기도 했고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점검하고 심화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내용은 내용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직 많지만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부분으로 여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 한국한공대학교 경영학과 문 ○ 호

처음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이외

에는 자세하게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분석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굵직한, 뉴스에서도 언급되는 그러한 큰 공약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몇 십에서 100개의 넘는 공약도 제시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실행 불가능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공약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당과 구별 없이 모든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유도 없이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지만, 이번 공약 이행 조사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미래의 국가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행 불가능한 공약들이더라도 작은 변화들을 시작으로 큰 변화를 도모하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분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완전한 이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초석이라도 다져, 그 후에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점은 재판을 방청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검사측과 피고인 측 변호사가 갑론을박을 하며 엄청난 공방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재판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좀 설렘이었습니다. 집 앞에 남부 지방 검찰청이 있지만, 혼자 재판을 방청하기에는 용기가 조금 더 필요했고,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 견학을 하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 견학은 허락하지 않았고, 단체견학만 허락하고 있었고, 그래서 법률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무슨 활동이 있을까 하다가 법률연맹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 항상 매체를 통해서만 보던 재판장, 판사, 검사, 변호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첫 번째 방청 때는 증거인부만 하고 재판이 끝난 후 잠시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청 때는 증인 신문도 하고, 증거채택 등 더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어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

다. 플로리다 주 헌법을 번역한 봉사도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

국의 법률도 볼 경우도 많지 않은데, 미국의 헌법을 보게 된 것은 진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만큼 주마다 헌법이 다른 국가의 헌법을 보게 된 것 또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다른 법률을 통해서,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차이점들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문화 사대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을 위하여서는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일행들은 타국의 법률도 참고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영어 법률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저의 영어 실력 또한 많이 향상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보면서 한국어 뜻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문장들을 한국의 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장과 비슷한 형식으로 바꾸면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였고 좋았습니다.

바쁜 학기 중에서 많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되게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참여해서 저의 견문과 경험을 넓히고 싶습니다.

○ 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박 ○ 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학기에 참여를 하여 이번이 두 번째 참가입니다. 처음 했을 때 보다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면도 있었지만 아직 많이 미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설문조사였습니다. 지금 까지 이러한 종류의 설문조사를 잘 하지 않았고 길을 가다 마주친 사람이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하여도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걱정되어 잘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설문조사를 요청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였으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총 9장의 설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서 무언가에 기여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사실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번과 같이 7개 경제지 사설을 분석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경제지들은 대한경제와 매일경제, 서울경제,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그리고 헤럴드경제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절대 무관할 수 없지만 지난 활동 때에는 경제지 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정치 관련 사실이 많았던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그때 보다는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많았습니다. 사실들은 친여, 친정부 성향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람들을 사용자와 노동자 둘로 구분한다면 저는 노동자에 속하기에 제 성향과 다소 다른 사실들도 있었으나 제가 할 수 있는 한 중도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실은 노동개혁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는 근로시간 개편이 언급되었는데 주40시간 노동도 많다고 생각하는 제게 있어서는 주 52시간제가 그렇게 까지 악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짜 야근'에 있다고 분석하였고 공짜 야근이 사라진다면 노동 시간이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활동은 의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의 의원님을 배정받기를 희망하였었습니다만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이미 다른 분께 배정이 된 뒤였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의 윤영덕 의원님과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의 윤준병 의원님을 배정받아 활동하였는데 두 분의 의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미 1차 조사가 끝난 뒤였으므로 저는 2차 조사를 하였습니다. 일단 1차 조사를 하신 분들이 너무 잘 하셨기에 그것에 못지않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다소 있었고 또 1차 조사에서는 찾은 근거를 저는 검색을 통해 찾지 못하였을 때 답답한 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1차 조사 결과를 충분히 존중하되 가능한 1차 조사와는 다른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조사들의 경우 블로그 글을 근거로 사용하기도 하였던데 저는 가능한 뉴스 기사를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뜻깊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심히 흘러버렸을 시간들이지만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아주 작게 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 ○ 원

2023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하는 봉사활동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법 분야에 관심이 많아 법 공부를 꾸준히 해왔음에도 법원에 내방하여 직접 재판방청하거나, 해외 법률 등을 번역하는 등의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단지 이론으로만 배운 법부 지식을 실생활에서 활용해보고, 법학 적성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봄학기 필수활동이었던 법정치의식조사와 의정모니터링 그리고 선택활동 중에서 해외법률번역과 법정모니터링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번역봉사활동은 미국의 형법과 뉴질랜드의 헌법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어 영어 번역 경험이 다수 있는 편이었지만, 낯선 해외 법조 용어와 조문의 복잡한 구조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나라와는 다른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률은 쉽게 파악이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번역 봉사활동을 거듭하면서 자연스레 뉴질랜드의 법 체계, 제헌의 배경, 역사적, 문화적 맥락 등을 찾아보게 되었고 점점 구조가 파악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점차 능숙하게 번역을 해나가는 스스로를 발견하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고, 자연스레 리서치 능력과 영어실력도 상승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정 모니터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 덕분에 집 근처에 위치한 법원에 처음 들어가 보게 되었고, 법정의 분위기를 처음 접해보며 신기함과 낯설음 동시에 느꼈습니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의 법정은 어떤 모습이며, 변호사와 판사들은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는지 두 눈으로 목격하는 체험은 분명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법정의 모습이 상상과는 꽤 달라 이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재판이 끝나고 재판정을 나와 법원 복도를 걸어가는 변호사와 피고인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진심으로 대하며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 인상깊기도 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평소에는 해볼 수 없었던 여러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좋았고 다음 학기에도 또 참여하여 더 나은 성과물을 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귀한 경험을 해줄 수 있게 도움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졸업 박 ○ 현

짧지만 한 학기 동안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보는 방법을 배웠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더라면 평소에는 할 수 없던 의정 모니터링, 언론 모니터링과 같은 분석은 사회에 스스로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였고, 공익을 위해 시간을 들여 어떤 활동을 한다는데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구체적으로 의정 모니터링의 경우 국회의원의 정치적 이행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소리 없이 묻혀 말 뿐인 공약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수십, 수백개의 공약 중 그 지역 시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행해지는 것은 단 몇 개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은 당선을 위한 문장 그 자체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시민으로써 단순히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의 선출에 한 표를 행사하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위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태를 파악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도록 위와 같은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을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믿고 선거에 임했는데 4년간 진행된 건수는 거의 없고,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인의 재당선이 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로지 당선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말 대신 진정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언론 모니터링 또한 새로운 경험이었다. 보통은 가장 익숙하거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신문 1-2개만 읽기 마련이라 다양한 색을 가진 신문들을 비교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생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신문사들의 논조를 비교하면서 같은 이슈에 대한 평가나 생각의 방향이 각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일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여조에 따라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궁극적으로 모든 신문사나 정치인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행하기 위하고 있으나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정치적 대립이 일어나고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니터링을 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 정부 기관들 또한 막연히 본인들의 주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통합을 위해 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오리엔테이션도 직접 하지 못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정 모니터링 등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중간고사 기간도 중간에 끼어 있어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틈틈이 이러한 분석할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재택으로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활용해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으로 다가와 이번 봉사활동에 도전한 것이었다.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을 투자하기 어려운 바쁜 사회인들에게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이 좀 더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나 또한 다음에도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다양한 활동들을 시행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 부경대학교 법학과 박 ○ 서

법조인이 되기 위한 한걸음

2022년 저는 법조인의 꿈을 꾸게 되었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법학으로 전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과를 하고 전공수업을 들으려니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저를 걱정하게 되었고 전공 수업에 대한 기대감보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와중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대한민국의 법 제도를 직접적으로 느껴보며 제 법적 지식을 늘리고 자 봄 학기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봉사는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제 주변 20대를 비롯해 전국에 있는 청년세대의 자유, 법치, 통일관, 안보에 대한 의식을 알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주변인들과 평균적인 청년들의 생각이 저와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한 제 생각을 되돌아보며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의정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사실 저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는 그저 내가 아닌 어른들의 분야라고 생각하여 저에게 주어진 투표권마저도 신중하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얼마나 상세한지,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공약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비교해 보며 저의 정치에 대한 견해 또한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 가장 의미 있던 활동이었습니다. 처음 법정에 들어선 순간엔 익숙한 분위기와 함께 느껴지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진행을 지켜보며 전공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재판 현장에서 언급되었고, 학문적으로만 들어왔던 법의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느끼니 두렵다는 생각보다는 흥미롭다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그에 더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지만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행정재판을 방청하였는데 각각 재판에서 느낀 점이 모두 달랐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형법 지식이 부족한 저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형사 재판 현장에서 변호인의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도 각각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한 사정이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는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평소 민법에 관심이 많아서 재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형사 재판보다 이해하기 더 어려웠습니다. 민사재판은 빠르고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사건을 이해할 시간조차 없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재판의 경우 행정사건과 관련해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행정법을 더 깊고 자세하게 공부해야 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법정모니터링 봉사를 끝으로 봄 학기 법률 봉사를 마쳤습니다. 부산에 살아 할 수 있는 대외활동이 제한적이었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법률봉사 덕에 뜻깊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름학기 봉사는 오토 날이 시험 전 주이고 서울에 가기가 어려워 신청을 못했지만 가을학기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을학기에는 봄 학기에 하지 못했던 판결문 리서치 활동, 타국의 법학 서적이나 법전을 번역하는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경제학과 박 ○ 영

이번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을 하며 사법 감

시배심원단 활동, 미국 법률 번역 활동, 국회의원 공약점검 활동, 법 정치의식조사 등 다양한 법 관련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법조인의 꿈을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실제 재판장 안에 들어가 재판을 보고, 국회의원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색다른 활동은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 재판장의 분위기, 증인신문, 반대신문, 검사와 변호사 측의 대화, 재판에서 재판관의 역할 등, 배심원단 활동을 하며 새롭게 알게 된 많은 정보가 얼마나 법조인 진로를 꿈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경험인지 직접 경험해 보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와 검사 측의 다른 증인신문을 들으며 어떻게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이 증인신문을 재판에서 활용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법 감시배심원단 활동뿐 아니라 미국 국토보안법 번역 봉사 활동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미국 법률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법률이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적혀있으며 작은 다양한 경우의 수까지 세세하게 구분되고 정의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 법률 서적이나 법전을 많이 볼 기회가 없었던 참 미국 국토보안법 번역 봉사 활동은 자세하게 법률을 읽어보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활동이 아니었다면 그저 넘겨줄 한 단어까지도 번역하다 보니 주의 집중하여 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전문용어 번역의 어려움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법에 쓰인 내용을 번역하다 보니 한국어로 번역이 되기 어려운 단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수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한국 법전에서 실제 쓰이는 용어로 번역하기 위해 한국 법률용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어에 자신이 있어 신청한 활동이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 법률용어도 아직 익숙지 않은 저에게 영어 법률용어를 번역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활동 덕분에 여러 법률용어를 새롭게 배우게 된 것 같아 제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공약점검 활동은 저에게 신선한 활동이자 생각해 보지 못했던 활동이었습니다. 2023년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 중 필수 활동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작했던 국회의원 공약점검 활동은 제가 가장 많이 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이제껏 국회의원 선거 때만 열심히 국회의원의 공약을 주의 깊게 보고 그 공약들이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공약점검 활동은 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 이전에 이 활동의 존재만으로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봄학기 봉사 활동을 통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깨달음과 경험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과학) 박 ○ 림

법조인이라는 꿈을 가지고 처음으로 해본 법 관련 활동이었다. 전공이 법학이 아니고 교양으로 법학 강의를 들어본 것도 아니라서 활동을 시작할 때 걱정했지만 오히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법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번 학기엔 주로 판결문 리서치 위주로 활동했다. 평소에는 판결문을 볼 일이 없어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역시나 사건을 고르고 재판당사자와 판사의 정보를 찾아보고,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는 등 처음 해보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첫 판결문 분석이 너무 힘들었다. 사건 하나에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고 들인 시간에 비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우고 아예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계속 읽고 판결문 리서치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해당 사건이 무슨 사건이고 재판당사자, 대리인, 판사는 누구이며 판결 요지와 쟁점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법률용어를 찾아보거나 사건의 쟁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몰랐던 법률적인 내용을 많이 알 수 있었고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총 5번의 리서치를 진행했는데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판결문을 보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전공과 연관된 분야인 교육 관련 판결문을 가장 많이 보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있었지만, 한 번도 법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건을

새롭게 볼 수 있어 뿌듯하기도 했다.

이번 학기 필수활동이었던 의정 모니터링에도 참여했다. 배정된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류하고 이행률을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도 처음 해보는 활동이었다. 생각보다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솔직히 말하면 며칠을 이 활동에 쏟았던 것 같다. 하나의 뉴스 기사나 해당 구에서 올린 자료만 보고서는 공약이행률을 판단하기 힘들어서 자료를 아주 많이 찾아봐야 했다. 공약 이행을 조사를 하면서 지켜진 공약도 있었으나 시작은 했지만 진전이 없는 공약도 있었고 아예 시작도 되지 않는 공약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공약은 지켜지기 위해 만들어졌고 따라서 지켜지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 나도 선거철이 아니면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 여부에 의문을 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아쉬워하던 차에 하게 된 활동이라 글로만 보던 재판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법원에 갔다. 형사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는데 예상보다 무겁지 않은 분위기여서 놀랐고 증인의 대답의 빈 부분을 놓치지 않고 피고 측 변호사가 파고들고 검사가 이에 반론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재판이 굉장히 집중도 있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법조인이라는 꿈은 있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법정에서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다.

학기 중에 이루어진 활동이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쉽지만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 내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법과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배웠고 이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봉사에도 참여하고 싶다.

○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박 ○ 서

이번 학기에는 의정모니터링(공약분류 점검과 이행을 조사),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번역봉사로 총 3가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 학교 외부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본 적은 많았지만, 대학생이 되어 학교 외부적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처음이라 초반에는 많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 개씩 활동을 끝내고 나니 뿌듯함이 느껴졌고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한 학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기본이 좋았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의정모니터링의 경우, 이전에 접해본 적이 없던 활동을 혼자서 해내야 하기에 처음에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막막하여 걱정이 되었다. 특히, 평소에 법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나 정책 등에는 관심이 있는 편이지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기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가 난관이었다. 그래도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해냈는데,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공약의 개수였다. 누군가는 당연하게 의원들이 원래 그 정도 개수의 공약을 내세운다고 할지 모르지만, 기존에 큰 관심이 없었던 필자로서는 중고등학생 때의 회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을 생각하였기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의 공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공약의 개수가 많았기에 놀란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 자료 조사를 통해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의정모니터링의 대상인 의원님들께서는 훌륭한 분들이신 반면, 필자는 대학생이기에 의원님들을 상대로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 점검을 해보는 경험을 가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흥미롭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의원과의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이 없기에 아는 바도 없었지만,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공약은 잘 이행했고 어떤 공약은 이행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같은 판단을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비판 의식도 생겼고 국회의원의 공약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 활동이어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의 경우, 평소에 알 기회

가 많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정치의식에 대해 조사하는 경험을 통해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타인과 필자의 생각의 차이가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하는지 등을 조사결과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경험을 해서 좋았다. 또한, 평소에 아무런 생각없이 지나칠 수 있는 정책이나 특정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한 번쯤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조사한 자료가 형식상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사 및 보도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이 인상깊었다. 특히 서울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기사에 등장하고 기사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이 신기했다.

마지막으로 번역봉사의 경우, 까다로운 부분도 많았지만 번역을 통해 플로리다주의 헌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 좋았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과 미국의 헌법은 큰 틀 자체가 다르기에, 법을 둘러싼 환경이나 그러한 법을 해석하는 방식 및 관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처음 보는 특정 단어들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예를 들어, 'ad valorem'의 경우 처음에 '국가홍보세'라고 번역했다가 수정을 한 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플로리다주의 기본적 배경에 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ad valorem'이 어떻게 분류되고 대표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처럼 단지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용어 분석과 기본적 배경을 통한 법적 해석을 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여 좋았다.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박 ○ 민

비로소 꿈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

법조인이 되겠다는 막연한 꿈을 품고 그와 관련된 활동은 무엇이든지 학기와 병행하며 이루어 내겠다는 다짐을 안은 채 타겟이 될 만한 활동을 무작정 찾아보던 와중 수행한 만큼의 결과로 스스로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이 부담의 정도를 따졌을 때 나에게는 적합하리라 생각하여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다. 사전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급하게 진행이 되었고 오리엔테이션 이후 본격적으로 봄학기 필수활동으로 지정된 의정모니터링에 돌입하게 되었다. 살아생전 찾아볼 일 없었던 의원님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류하고 실제 기사와 그밖의 공식적인 자료들에 근거하여 직접 점수를 매기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매일 시간을 조금씩 할당하여 완성도를 올려 나가며 처음 느꼈던 낯설이 차차 줄어들어 느껴지고 활동에 익숙해지다 보니 마지막 즈음에는 사명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활동에 진심으로 임하는 나의 모습이 보였다. 의원님들의 행보를 뒤밟으며 이쪽 분야에 전혀 무지했던 내가 이제는 어떠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쫓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뜻깊은 경험을 한 것 같아 만족을 느낀다.

지정된 필수활동 외에 따로 신청했던 법정모니터링 또한 진행 과정에서 얻은 것이 굉장히 많았던 풍부한 경험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처음 법정에 들어설 때 느꼈던 복잡한 감정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엄숙함, 두려움, 설렘, 경외감 등 일상에서 겪기 힘든 수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방청 과정에서 사건당사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보고 많은 서사들이 나를 스쳐가며 얻게 된 깨달음도 살면서 습득하기 힘든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느껴진다. 특히 배심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비록 그림자배심원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사건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의 진솔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인상깊었던 경험이었다. 나의 간절한 꿈이기도 한 법정 내 판관님들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직업정신과 열정을 보며 꿈에 한발 더 나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박 ○ 우

4년간 대학생활을 하며 전공만큼 많이 공부한 과목은 법학 과목입니다. 다양한 법과목을 수강하며 변호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될지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소비자에 주목하였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 변호사를 꿈꾸게 되었는데, 지금 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봉사를 하면, 향후 꿈을 위한 초석이 될과 동시에 저도 동기를 바탕

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해당 동기를 갖고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6개월 동안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봉사 전, 법률소비자 연맹의 취지에 공감하여 소비자 및 공익 봉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고, 활동 중에 공익을 위한 태도를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봉사라는 것이 살짝의 부담이 있을수도 있지만 제 꿈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그 부담은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공익을 무너트리는 존재들이 있어서 공익과, 소비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호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을 통해 보통 온라인으로 봉사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온라인 봉사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민 사회 속에 다양한 봉사 기회와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각 봉사 단체들과 시민 단체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현대 사회에 발맞춰 기능화되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각자의 목적에 맞추어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시민 사회의 순기능이라는 것을 이번 봉사를 통해 가장 주요하게 알게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기회를 이어서 봉사활동의 횟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할 때 단순히 참가하기보다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노력할 생각입니다.

특히, 제 꿈과 법률 소비자 연맹에 공감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매 학기마다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봉사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봉사는 다양한 역할을 찾아 글을 작성해 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기적으로 봉사를 진행하고 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봉사나, 소통활동을 통해 공익 및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 ○ 정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불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적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법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더욱 확장하고, 실제 법률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국회의원 의정 모니터링, 미국 코네티컷주 헌법 번역, 판결문 리서치, 사법감시배심원단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공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약은 단순한 선거 운동이나 정치 전략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과 투명성의 중요한 근거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미국 코네티컷주의 헌법을 번역하는 작업을 통해 제가 평소 접하지 못했던 다른 국가의 법률 체계와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법률 체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쌓을 수 있었으며, 이는 제가 법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며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주요한 실제 사건을 통해 법률의 실무 적용과 그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주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사들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판단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통해 법정에서 실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직접 방청하면서, 법률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전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법률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삶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

습니다. 이 경험은 법률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넘어, 법률이 어떻게 사회를 통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2023년 불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겨 주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접했던 다양한 전공지식을 작게나마 직접 활용해볼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가끔은 학과 활동이나 학업과 함께 병행해야 하는 이 봉사활동이 문득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낸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박 ○ 빈

지금껏 생각해보지 않았던 진로를 새롭게 꿈꾸며 제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법률 관련 봉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검색하면서 누구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어 신청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활동의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각 활동의 명칭만 보고서는 어떤 활동인지 외당지 않았습니. 하지만 여러가지 활동을 신청해서 알려주신 매뉴얼 대로 천천히 한 덕분에 각 봉사활동 별로 새롭게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활동은 사법감시배심원단법정모니터링이었습니다. 제가 사법감시배심원단으로서 참관한 재판은 이철 前비 VIK 대표의 '400억원대 배임'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첫 공판기일에 참관해서 재판의 자세한 진행 상황은 알지 못했지만, 법정에 참관하기 전 관련 기사를 찾아보며 사건의 대략적인 전개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짧은 참관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법감시배심원단의 법정모니터링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두 번째 활동은 의정모니터링이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충청남도 아산시갑 이명수 의원과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임실군 이용호 의원의 공약이행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두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조사하였는데, 조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점은 각 지역사회 별로 시민들을 위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고 각 지역 의원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약의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공약들의 진행 상황을 시민으로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국회의원 투표도 했지만 선거에만 참여 했을 뿐 사회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민주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직접 뽀은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며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더불어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라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활동은 법정치의식을 조사했습니다. 비록 저는 주변 선후배 지인 소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지만, 봉사단 전체가 한 설문조사가 모여 170개 대학의 평균 23.52세 청년 세대 2,431명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활동은 판결문리서치였습니다. 제가 분석한 판결문은 대법원2020다296840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문과 같은 사건의 1심, 2심 판결문이었는데, 이 사건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피고가 원채무자와 별도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변제자대위에 따라 소멸한 원래의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의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근저당권, 질권, 변제자대위 등 낯선 용어들이 가득한 판결문을 읽고 정리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사건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문이 작성되어 있는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판결문을 자세

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판례를 통해서 한 사건에 여러 명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같은 사건이지만 각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적용하는 법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에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문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법리를 오해하여 내린 판결은 대법원을 통해 바로 잡히는 것을 보고 삼심제도의 필요성과 취지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번역봉사 등 해보지 못한 활동들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사법감시배심원단법정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법정치의식조사, 판결문리서치 등의 활동을 하면서 처음 경험해 본 것이 많았고, 민주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많이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값지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배 ○ 인

우연한 기회에 대학생들이 법률과 관련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봉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설렘도 있었지만 걱정도 앞섰습니다. 특히, 법학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과 정치 분야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이것이 봉사 활동이라는 점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봄학기 동안에 의정모니터링, 법정치의식조사, 법정모니터링, 번역봉사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활동은 의정모니터링이었습니다. 사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서 평소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정치 분석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국회의원은 '하영제'로 경남 사천시와 남해군, 하동군의 의원이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의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거공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다른 의원들과 지역과 또 소속되어 있는 당을 비교해본다면, 주요한 인물을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약들을 조사해보니, 국민들을 많이 위하고 열심히 활동하려는 의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약 분석을 해보니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정치의식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설문지를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통계 내는 활동이었는데, 나 혼자만 하는 봉사가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하는 활동이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았더라면 더 많은 설문지를 배부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 중에서 개인적으로 법정모니터링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법원에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이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가 아닌 재판과정을 실제로 보면서 재판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에게 분노를, 또 때로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방청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더욱 흥미로웠는데, 증인을 심문하는 검사에게서는 꼼꼼함을, 능숙하게 재판을 이끌어가는 담당 판사에게서는 엄격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한 업무처리를 하는 듯하지 않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을 방청하며 담당 판사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공정하면서도 피의자들, 피고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재판 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보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봉사 활동은 가장 '봉사'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활동

이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선거법을 번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 않게 번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번역을 시작하니 생소한 법률 용어를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한국어의 단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프랑스의 법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번역할 수 있어서 의미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나누면서도 저도 새로운 법률 지식, 언어 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던 활동입니다.

짧은 한 학기였지만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뿌듯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법과 정치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아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활동을 할 때에는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한 다음에 더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과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 ○ 덕

로스쿨에 관심이 생기고 법 관련 활동을 알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주저 없이 바로 신청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판결문 리서치, 의정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신청하고 활동을 시작하려 했을 때는 조금 막막하고 어떻게 시작할지 감이 안 잡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샘플 자료와 설명자료에 꼼꼼하게 나와 있고, 메일로 피드백도 빠르게 해주셔서 수월하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봄학기에 한 활동은 법정치의식설문, 판결문리서치, 의정모니터링 3가지입니다. 법정치의식설문은 직접 주변 대학생 친구들에게 설문을 요청한 뒤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내드리는 형태인데 친구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며 전반적인 제 주변의 법정치의식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 의미있던 시간이었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법정치의식 파악에 이바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로 판결문 리서치는 제가 가장 시간을 많이 쏟은 활동입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원하는 판례의 1심-3심을 분석하는 활동인데, 저는 대학교 강의 시간에 배운 판례 중 제가 가장 흥미있는 판례를 선택하여 활동해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닌 제가 흥미를 느끼는 판례를 선정하여 리서치를 진행함으로써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할 수도 있고, 지식을 확장해 나갈 수도 있어 저에게 있어선 상당히 이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여론과 미디어에 자세히 노출되지 않은 판례를 직접 분석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법학 전공생 학생이어도 판례를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막상 스스로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많은 법학 전공생 분들이, 혹은 꼭 법학 전공생이 아니더라도, 많은 대학생 분들이 참여하여 해당 활동을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모니터링은 지정해주신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 함께 전공하고 있기에 해당 활동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약을 직접 찾아보며 공약 이행 여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재미있기도 했고, 국회의원 어떤 성별, 연령층을 상대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공약을 제시하는지 등을 깨달을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저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과 배움을 선물해준 소중한 시간과 기회였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한 봉사활동이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된 것이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그만큼 성실하게 활동에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에, 앞으로 봉사를 이어나가실 분들도 저와 같은 소중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저의 이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며 소감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성 ○ 훈

저번 겨울 학기에 이어 봄 학기에도 봉사활동을 진행하

게 되었습니다. 겨울 학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스스로 깨닫고 느낀 바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지난 학기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더 잘 해내고 싶은 마음도 컸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봉사활동을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큼니다.

의정모니터링을 이번 봄 학기에 처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이행을 조사는 우리가 단순한 국가 행정의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살면서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조사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당황스러웠지만, 언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을 조사가 의미 있는 점은 바로 포퓰리즘적 공약을 걸러내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들, 몇 년째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공약들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포퓰리즘을 걸러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은 이번 학기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언론계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설 속에 담긴 언론사와 주필의 의도를 해석해내는 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석 기간 중 최대 이슈였던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진보와 보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았고, 이를 최대한 공정하게 해석해내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주간 150편이 넘는 사설을 일일히 스크랩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을 거듭할수록 언론을 읽는 방법이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요약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 연맹의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 모니터링을 꼭 해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봄학기 봉사활동은 겨울학기에 비해 순조롭고 완성도 높게 마무리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학기에 접어들고 학교에 갈 일이 많아지다보니,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다음에 또 봉사활동을 진행할 좋은 기회가 온다면, 법정모니터링을 꼭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법률연맹 봉사활동은 로스쿨 진학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시작한 것이지만, 봉사를 진행할수록 이 활동 자체를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을 통해 저의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연맹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심 ○ 은

졸업 후, 로스쿨 진학이라는 목표가 생겨 관련 활동을 찾아보다가 2023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봄학기 동안 의정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번역봉사, 법정치 의식 조사 봉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활동 종료 후 돌아보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의정모니터링 같은 경우,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간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하여 투표만 했을 뿐, 그들이 실제로 공약을 지키고 있는지, 공약 관련 논의가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가까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 각 의원들이 어떠한 공약을 내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지, 공약의 진행여부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 공약을 분석하면서도 각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약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어떤 테마로 관광이 활성화 되고 있으면 더욱 지원하여 활성화 한다든지, 어떤 지역에서 등갓길 위험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약을 만들 때 많은 것을 고려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공약 진행 과정을 확인하러

고 할 때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자료는 거의 인터넷 기사로만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도 메이저 언론사가 아니라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라든지, 도민일보 기사 등에서만 근거를 찾을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각 의원별로 어떤 공약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제시하고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약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의원도 있었고, 생각보다 공약을 내어놓고 어떠한 진행도 시키지 않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다음 선거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찾아보고 고려하여 투표하는 시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기 전, 이재용 관련 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많은 검사와 변호사가 출석하여 각자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인상 깊었고, 엄청난 증거의 양과 전문성에 압도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하고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는데, 조금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사건을 다루는 재판들이어서 그런지, 1분 안에 끝나는 재판도 많이 있었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종료 되어버린 재판, 변호사의 준비 미흡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재판 등 정말 현실적인 재판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 없이 변호하거나 준비가 미흡했던 변호사들을 보면서는 의문이 들기도 했고, 법조인이 된다면 그런 변호사가 되는 것은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고가 중국인인 재판도 방청하게 되었는데, 검사나 판사의 말이 끝나면 말이 끝날 때마다 통역사가 크게 번역해주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새로웠습니다. 외국인이 당사자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했는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 시간이 두 배로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고, 앞으로 세계화 되는 세상에서 이러한 재판이 많아질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민사 재판, 형사 재판 등 최대한 다양한 재판을 방청하려고 했고, 사건 주제도 권리 침해 등의 민사, 마약 관련, 아동유기 관련, 사기 관련 등 다양한 사건을 방청했습니다. 각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대강 파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번역봉사 같은 경우, 적은 페이지를 번역하기는 했지만 아예 법률의 초반부를 번역하게 되어 많은 법률 용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회윤리법을 번역하였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른 의회제도(상원, 하원 등)로 인해 번역 할 부분이 조금 까다로워 매끄럽게 하려다보니 자연스레 배경 등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법을 접하고 번역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법정치 의식 봉사활동은 많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여러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안 ○ 인

한 학기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꿈꾸던 진로 분야에 대해 현실적인 경험을 진행하며 보다 뚜렷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생겼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첫 활동은 의정 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중간고사 일정과 겹친 활동을 진행하면서, 처음 자료를 받고, 생각보다 한 국회의원이 제시한 공약의 양이 많아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다 할 수 있을지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쪼개 검색하고 활동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재미있게 활동을 마친 것 같습니다. 우선 한 명의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많은 공약을 내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공약 이행을 점검을 진행하면서 선거 기간에 내거는 공약에 비해 진행되고 알려지는 공약이 매우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 단위의 공약들이 전국 단위로 알려지고 일일이 관심을 받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해당 지역에서라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를 위해 지역 신문과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시되는 공약에 비해 시행되는 공약이 적다보니 이런 의정 모니터링과 같은 모니터링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정치외교학과라 밀접한 분야인데 아직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 못한 터라, 앞으로 국내 정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깊게 배우고 나면 의정 모니터링에 대해 느끼는 바가 또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활동은 법의식 설문조사였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을 구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감사하게도 주변 지인들이 참여해주어 무사히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문지가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편집 없이도 간편하게 설문을 진행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설문 결과의 결과를 확인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20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수합되어 나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주셔서 직접 참여한 활동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뿌듯함으로 돌아와 좋았습니다.

이후에는 세 번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 중 앞서 진행한 두 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판결문 제공을 신청하고 기다려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사건으로, 리서치를 해보니 기사도 꽤나 많이 나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인식이 매우 좋지 않고 더 높은 형량이 요구되는 범죄 유형이다보니 어떤 과정으로 판결이 뒤집혀지는지가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2심에서 바뀌었던 판결이 3심에서 다시 옳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판결의 중요성과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평소 많이 접하다 보니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의 법과 재판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리서치를 진행한 판결문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판결이 뒤집혔는데, 1,2심 판결문을 읽으며 해당 판단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으며 입장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쟁점을 설명하는데 있어 판단의 관점이 적용되다보니 이를 인지하고 판결문을 읽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는 민사재판이었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문제였는데, 소송대리인의 이력 등을 검색하면서 전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이면서도 의료사는 종종 일어나면서도 판결이 늘 문제가 되는 문제이다보니 흥미롭게 리서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면서 주제가 다 다르다보니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좋았고,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평소 막연하게만 그려오던 진로에 대해 조금 더 뚜렷하게 접근하게 되었고, 사명감과 목표의식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하게 진로와 전공에 대해 접근해 볼 수 있었는데, 학교생활과 병행하다보니 시간이 부족해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안 ○ 현

저는 2학년 때 처음 법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지만, 명확한 진로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과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된 후 가장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전부터 스스로 알아보고 계속해서 관심이 있던 법률소비자연맹 사회봉사 활동에 이번 봄학기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전문 지식과 소양이 많이 부족했기에, 과연 제가 이 활동을 해 나가갈 수 있을지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신청 후 오

리엔테이션의 자료를 자세히 읽고 나니 꼭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누구나 의지와 성실함만 있다면 수행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자신감을 얻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활동은 '의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평소 정치에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았기에, 이 활동을 통하여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을 세세하게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활동하다 보니 저 자신이 정말 선거 시기에만 정당과 그 후보의 공약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거를 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선거 이후에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4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정치 설문조사'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도 저에게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던 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설문조사를 직접 돌리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현재 저와 비슷한 나이대인 청년들은 법과 현 정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답변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녀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현 사회를 대한민국은 어떻게 국민을 이끌어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원하는 대법원 판례를 정한 후 해당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분류하고 판결현황, 재판당사자, 사실관계, 쟁점 정리 등을 하는 활동입니다. 이번 봄학기 활동 중 저는 판결문리서치 활동에 가장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법 학문을 공부하면서 저는 행정법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행정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을 스스로 읽고 정리하니 학교에서 배운 법률용어와 이론 등이 다시 공부가 되는 것은 물론, 행정법을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법적 논쟁에 대한 쟁점과 사실관계를 더욱더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다른 법리를 생각해보는 것과 더불어, 형사사건만 보아도 판결에 있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단순 법률을 개정하고 처벌을 높이는 것만이 기본권의 수호자인 법원이 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스스로가 대견하며 뿌듯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 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연했던 저의 진로가 이번 활동을 통해 더욱 뚜렷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과 관련한 직종에서 종사한다면, 대한민국이 더욱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활동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기에, 스스로도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다음 봉사활동에도 재참가하여 봄학기에서 진행했던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싶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경제학 안 ○ 현

2022년 가을학과와 2023년 봄학기에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하지만 두 학기의 봉사활동을 진행한 지금으로서는 한 명의 조그마한 관심이 모여 더욱 청렴하고 시민친화적인 입법, 사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학기에 진행했던 국회의원 공약이행률조사와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인상 깊었다.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에 구미시를 김영식 의원을 배정받았다. 경북에 연고가 있기는

하나, 구미는 나에게 먼 도시였다. 또한 김영식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것과 당적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당선인에 대한 세부정보나 구미시에 산적한 현안과 같은 것은 당연히 알지 못했다. 공약분류를 하며 자연스럽게 국회의원 정보와 해당 지역구의 당선연혁, 각 당별 공약들을 알 수 있었다. 또 약 80개에 이르는 공약이행률조사를 하며 구미가 당면한 과제들과 의원이 그것을 얼마나 해결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구미가 경북 신공항과 관련하여 배후지로서 각종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 산업도시로서 낙후지역과 중심지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것, 생각보다 김영식 의원이 자신의 공약을 나름 잘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세부적인 시정들과 입법인 사이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되겠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봉사활동하기 이전에 비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국회의원들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 후에는 입을 닫아버린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막상 조사를 하고보니 생각보다는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 놀라웠고,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부분이다.

또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법이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깨달았다.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실화 사건의 판결문을 일반대중이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했다. 특히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특별하고 사건에서, 자녀들이 상속포기한 부채가 손자녀들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해석하고 판례를 수정한 부분은 눈길을 끌었다. 단순히 기존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해석이 아닌 실무에서의 유용성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 합쳐진 법해석을 시도했다고 생각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활동들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뿌듯했다. 또 실질적인 감시활동으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양 ○ 영

대학에 들어와 지금까지 전공 공부를 통해 법 자체에 대해 배우며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배운 부분에 대해 저 자신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과연 이 공부나 나에게 맞는 길일까 또한 고민도 되고 괴리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되는 봉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진로를 구체화해야 할 시기에 전공 공부에 어려움나 느꼈던 이번 모니터링 봉사는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할 때 의정 모니터링 활동과 법정치의 식조사에 대해 과연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으나 이 또한 새로운 기회이기에 한 번 시도해보자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법정 모니터링에 대해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으나 법원에 제대로 방청을 가본 적이 없어 과연 책과 화면으로만 접한 법원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증인신문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필요한 부분을 신문문을 통해 진행되는 재판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새로웠습니다. 또한 판사가 중간에 적절히 의도와 맞지 않는 대화와 신문에 대해 중재하고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재판 가운데 오가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들으며 실제 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법률연맹에서 제공해주신 모니터링 질문을 보며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만 타당하면 된다는 생각을 깰 수 있도록 해주었고 법원을 방청함에 있어 내용 뿐만 아니라 법원의 환경과 분위기, 그리고 재판 당사자의 태도 또한 주의해야 함을 이번 봉사를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판 내용 자체와 더불어 그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되니 다시금 이 사법 제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의 필수 활동이었던 의정 모니터링 활동 또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막연히 의정 모니터링 활동이라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였는데, 차근차근

자료조사를 해나가다 보니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이 어떠한 공약이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때마다 그동안 자신이 속한 사회 가운데 알지 못하고 있던 것이 아직 많음을 느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많고 앞으로도 개선해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 또한 느끼게 되었고 저 또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고 또한 한 명의 감시자로서의 시선을 통해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이론적인 부분을 토대로 실무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이나마 실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봉사 기간 중 진행되었던 사법감시배심원단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가운데 사법의 분야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다 더 넓은 시야로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더욱 성실히 임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여러 방면에서 배움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양 ○ 수

저는 2022년 겨울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법정 모니터링, 번역 활동, 판결문 리서치 등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봉사활동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좋아서 이번 2023년 봄 학기 봉사활동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은 의정모니터링과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였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을의 김영호 의원과 경기도 김포시 갑의 김주영 의원을 맡아 의정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의 공약 분류가 잘 분류되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공약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률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공약들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행률도 조사하면서, 공약들에는 완전히 이행된 것, 곧 이행될 것 등도 많았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는 공약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 때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도 각 의원들의 공약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필수 봉사활동으로는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나누어준 설문지를 통해 저는 4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설문조사 결과는 많은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봉사활동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저번 겨울학기에 처음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헤맸지만, 하면 할수록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리, 개념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유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 학기에도 판결문 리서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4번의 판결문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 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2017다233061)'을 리서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평가원이 문제 출제 당시 별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던 점, 다음 수능이 실시되기 전에 관련소송 항소심에서 취소판결이 선고되자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하고 곧바로 응시자들의 구제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평가원의 행위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위반 여부(2021도9055)'를 리서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조물침입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2022다207547)'를 리서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임죄 위반 여부(2020도8682)'를 리서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배임죄에서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법리해석이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자여야 하고 그러기에 권리이전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급부이행은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법정치 의식 조사, 판결문 리서치 등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오 ○ 룰

현재 전공이 법학이기에 법학 관련 봉사활동을 찾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고 해당 봉사활동에서 한 가지 활동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처음으로 이번 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봉사활동을 했다. 봄학기에는 필수 활동인 21대 국회의원 3명의 공약 이행률 조사(의정 모니터링), 법정치 의식조사를 하였고 선택 활동으로는 언론모니터링(10대 일간지 사실 분석), 판결문 리서치, 미국 플로리다주 헌법 번역을 하였다.

이 중 가장 시간을 많이 쏟은 봉사활동은 언론모니터링이었다. 한 주 동안 10대 일간지에 실린 모든 사설들을 스크랩하고 분석 및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평소 신문을 읽기는 하지만 다양한 신문사들을 비교하면서 읽지 않기에 각 신문사 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한 주간 실린 모든 사설들을 비교, 분석해보면서 같은 주제라도 신문사 별로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보수 언론사, 진보 언론사로 분류되는 신문사들 간에 서로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각자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의 주제라도 다각도의 시선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생각해볼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떠한 주제와 관련해 신문을 볼 때에도 하나의 신문만이 아닌 다양한 신문들을 보면서 여러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선택해 해당 사건의 제1심, 제2심과 같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보내준 양식대로 분석해보는 활동이다. 법학 공부를 하면서 판례를 자주 보지만 아예 판례 전문을 제1심, 제2심까지 포함해 모두 한 번에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판례 전문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면서 각 측에서 어떠한 주장 아래 서로 대립하고 있는지, 각 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와 관련하여 무슨 판단을 내렸는지를 계속 정리하였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제1심과 제2심의 판결이 갈린 부분이 있었기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판결이 다르게 나오게 되었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까지 분석해보면서 판례를 보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정립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법학과 관련된 봉사활동이었기에 전공과 관련지어 가장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다. 만약 다음 학기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도 판결문 리서치를 선택할 것 같다.

미국 헌법 번역 봉사를 신청했을 때는 법률소비자연맹

측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헌법을 보내주셨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길고 중간중간 어려운 법률 용어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처음 주 헌법을 보았을 때 과연 다 번역을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처음에는 법률 용어의 뜻을 찾고 우리나라 한글에 맞게 자연스럽게 번역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계속 번역을 할수록 반복되는 법률 용어도 있고 각 장마다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때도 있어 다행히 끝까지 번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주로 전공 공부를 할 때도 국내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미국 주 헌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처음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끝나고 비록 힘든 활동들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활동들이 평소 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이었고 배운 점들도 많았기에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도 참가하여 전공 공부에도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오 ○ 화

2022년 가을학기를 첫 시작으로 법률 소비자 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처음으로 시작한 대외활동이었기에 많은 설렘과 뿌듯함을 갖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봄학기에 처음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은 의정모니터링입니다. 의정모니터링은 봄학기 필수활동으로 이전 봉사활동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활동이었기에 처음엔 걱정이 앞섰으나 활동메뉴얼이 제공되어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수월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은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는 제21대 국회의원 공약분류 점검 그리고 2차는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2차 조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차 조사를 담당하여 국회의원들이 선거당시 내세운 공약들의 이행 정도를 중간점검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깨달은 점은 생각보다 공약의 이행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공약이 온전하게 이행된 부분은 단 몇 개에 불과했습니다. 공약의 진행에 있어서도 진전은 되고 있으나 아직 완벽한 이행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의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한 것이 아니기에 일반화 할 수 없고, 하나의 정책이 실현되고 온전히 이행되는 데에는 많은 요소가 영향을 주기에 모든 공약의 이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행된 공약이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약이었는지와 더 많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았던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공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공약의 이행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던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된 봉사활동은 번역봉사였습니다. 번역봉사는 매학기 봉사활동에서 참여한 활동입니다. 처음엔 제 정도의 외국어 실력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전공과 법 모두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기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한의 충기보호관리조례와 형사소송법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국어는 하나의 단어에도 여러 뜻이 있고 수많은 한자가 있기에 번역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정말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번 번역에서는 총기와 사형관련 주제들을 다루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접하기 어려운 주제였기에 더욱 재미있게 번역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법정치 의식조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었으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너무 이슈에만 국한된 주제를 다룬 질문들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많은 논란이 있는 정치와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되어있는 주제의 질문이 있었다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학기에는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 짧지만 다양한 경험과 배움, 생각들을 하

게 되었고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봄학기 봉사활동을 끝마치며 흔히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의 봉사활동을 제공하여 많은 배우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한국의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오 ○ 현

2014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영화 <카트>를 보며 순수하게 부당 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심 있는 분야가 많아 굉장히 다양한 꿈을 꾸고 있었던 저는 '변호사',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중학생 때부터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방청해 보고, 법원 탐방을 하며 꿈을 키우는 도중 현재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법에 관심이 많은 저는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번 봉사활동에서 의정 모니터링,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학기 필수활동 중 하나였던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님과 세종특별자치시갑 홍성국 의원님의 공약들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평소 뉴스는 챙겨보지만 공약들을 알고 있을 정도로 정치에 큰 관심을 두고 있던 것은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의정 모니터링 활동이 저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마다 그저 몇가지의 공약이 아닌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공약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고,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완벽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자세히 계획했던 공약들도 모두 이행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들의 법정치의식을 조사하는 활동을 이어갔는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설문조사를 이행하면서 평소 에 우리가 법과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냈는지 평가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자는 다짐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법정 모니터링은 제가 가장 많이 기대했던 활동으로, 역시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법원 탐방을 갔던 중학생 때와 달리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재판 방청을 하면서 사건의 요점도 파악해보고, 원고와 피고의 마음도 혼자 헤아려보며 많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냉정함과 다정함을 오가는 판사님의 모습을 보며 법 또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켜주는 엄격한 면이 있으면서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따뜻한 면도 있다는 것을 문득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학기가 끝난 여름에는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이렇게 마무리 하려 합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 ○ 경

올해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점이 정말 많았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사사건임에도 사실관계와 법적쟁점을 이해하는 데 형법, 행정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등 판결문 전문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돌이켜보니 이를 통해 법 전체 체계를 조망하는 시각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을 각각 따로 배우는데 현실에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판결문을 선정할 때 학교 강의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 있는 사건을 선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법치주의나 죄형법정주의와 같이 추상적이지만 했던 단어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행정과 사법활동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국회의원 공약집을 더 세심히 들여다 볼 것 같다.

1. 21대 국회의원 공약분류 및 공약이행률 조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목

소리를 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지금까지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일년 중 하루 단발적으로 하는 투표권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선된 국회의원이 지역사회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법안을 발의했는지를 추적해 봄으로써 지역사회에 산재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국회의원 활동을 조사하면서 지역 신문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평소에는 우리나라 전체를 주 구독자로 하는 큰 신문사들을 주로 보았는데 이번 활동을 계기로 국소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도 내가 사는 지역의 이슈를 아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판결문 리서치

양창수 전 대법관이 쓴 '민법입문'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거기에서 저자는 판례 요지만 따로 짧게 요약해서 암기하는 학습태도를 지양하고 판결문 전문을 읽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학교 강의에서 법과목을 몇 가지 수강하였지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였을 뿐 판결문 전문을 모두 읽는 것은 거의 해보지 못하여서 아쉬움이 있던 차에,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통해 5개의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판결문에 법관의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여실히 표현되어 있는 것이었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법관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이번 판결문 리서치가 그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내는 대법관들의 심심한 사과의 말이 뭉클하게 다가왔다.

○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오 ○ 진

법률가의 필수 덕목인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동시에, 법과 가까이하는 다양한 경험을 함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기도 전에 참여했던 '배심원단' 활동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법률연맹 부장님과 봉사자분들을 처음 만나 뵈어 봉사활동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변호사님의 사전 및 사후 설명과 함께 배심원으로 참여하며 사건과 재판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생 처음 마서본 법정의 공기에 적잖게 압도됐습니다. 그 결과 배심원단 보고서에 판사 이름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사건 내용을 대략적으로 적는 등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또 1차 공판의 특성을 알지 못하여 재판 길이가 매우 짧음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첫술에 배부르랴' 생각하며 2차 공판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1차 공판에서 느꼈던 점들이 이어진 2차 공판에서 큰 가르침을 얻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법정 내 사진 혹은 음성기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으며, 우리가 행사하는 당연한 권리를 제지하거나 억압하려는 분위기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각한 채 재판에 참여하니 훨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그리고 법정을 지키는 나머지 많은 이들을 직접 보며 나는 어떤 법률가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 훨씬 다차원적으로 고민하게 됐습니다. 또 언제고 내가 원할 때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과, 전북 익산시갑 의원을 맡아 2차 조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소감은, 의원이 공약을 이행했는지의 그 여부와 더불어서 공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과정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공약의 수를 부풀리기 위해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약이 어느 한 분야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해당 의원에 대한 자신만의 평가 혹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깨달았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 건설적인 유권자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치계를 바라보고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에서 개인적으로 초

점을 찾았던 부분은 집단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정치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이나 논의가 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고, 통계 결과에서 표본의 다양성은 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것을 목표로 모두 다른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대학에서 맺는 관계이다 보니 대학의 전공과 관련된 소통을 주로 하게 되는데, 저는 이공계열을 전공하고 있고 제 주변인들도 대부분 이공계열 전공자라 법이나 정치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경험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설문조사를 통해 현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나, 평소 지니고 있던 가치관들을 들여다보고 제 것과의 비교를 통해 교정해나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새로운 문제의식을 찾기도 했고, 생각지 못한 주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헌법 법률을 '번역'했는데, 해당 국가의 역사와 정치 전반의 이해를 바탕으로 의역 및 오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고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국왕과 총독이 있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기에 '법무장관', '법무장관' 등의 명칭 하나하나부터 '섭정' 등의 개념까지 모두 신선했으나, 활동의 본 목적인 번역을 정확히 해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인터넷 검색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국가마다 헌법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 자체도 새로웠고, '조'와 '항'의 차이를 구분하는 등 법의 기본적인 용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은 법률가를 꿈꾸는 제게 필수 덕목이기에 더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오 ○ 수

2023년도 봄학기 3월 17일부터 6월 9일의 기간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하였다. 처음 이 연맹을 접하게 된 계기는 봉사자의 대다수가 그렇듯 로스쿨 입시 준비를 위함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활동이 단지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첫 시작점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 중학생일 때부터 나의 미래 모습을 상상했을 때 그 끝은 법조인이었다. 남들보다, 아니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다른 접하는 모든 것들보다 '법'과 관련한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이 갔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엔 경찰관련 직종을 꿈꾸기도 했었고, 변호사와 검사를 꿈꾸기도 했다. 미래의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을 상상하는데 심취하기도 했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해 바빠 학교생활에 임하면서부터 '미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가질 새 없이 3년이 지났고 그 동안 애초에 내가 그려오던 '법조인'으로 내 목표를 설정해 나갔다.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사실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분명 진로를 위한 다양한 경험들과 고민을 해왔지만, 내가 정말 그러는 나의 미래 방향의 끝이 법조계가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사실 서지 않는다. 학창시절동안 가졌던 꿈이 그것 말고는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지금은 그냥 법조인을 향해 흘러가는데로 생각없이 살고있는 것 같다.

서두가 너무 길었지만 정리해보자면 내가 진정 원하는 미래가 법과 관련된 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이 봉사를 찾고, 신청하게 된 것이다. 신청하기 전 찾아보니 법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번역봉사 등으로 나누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봉사활동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었고, 나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기에 경험해보며 길이 맞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의 첫 법률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번 학기에 나는 [사법감시 배심원단,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의정 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으로 총 4가지의 활동을 진행했다. 우선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은 중요한 사건의 재판과정을 참관하고 모니터링하는 활동이다. 재판이 자주 있지 않아 활동기간 중에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마침 재판이 열려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재판을 방청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지만, 막상 가려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가지지 않았다. 봉사활동을 신청한 명목을 기회로 재판을 방청해보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두근거렸고 하나하나 눈과 머리에 담았다. 그냥 막연하게 지켜보기만 한다면 추후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잘 없겠지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니 재판 당시를 떠올려볼 수 있었고 파일로 남겨 오랫동안 남길 수 있게 되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은 법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필수 활동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 측에서 제시해주신 자료를 읽어본 후, 주변인에게 배포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것이다. 단순히 설문결과를 도출하는데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행정학과로서 대학수업때 배웠던 설문조사지 작성기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설문조사지를 좀 더 유의깊게 살펴봄으로써 특별한 공부까지 진행한 셈이었다.

의정 모니터링은 배정된 국회의원에 대해 공약을 분류하고 해당 공약의 이행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나 뿐만 아니라 수많은 봉사자들이 국회의원 한 명 이상을 맡아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니, 그들의 공약 수행에 관련해서도 정말 큰 의미를 도출하리라 기대할 수 있었다.

언론모니터링은 다른 분야들 보다 가장 시간이 오래걸렸고, 머리를 싸맸던 활동이다. 당연히 그만큼 얻는 의미도 굉장했다. 이 활동은 10대 주요 일간지들의 일주일 간 모든 사설을 분석하는 것이다. 약 150개 정도 되는 사설을 모두 읽고,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며 이슈를 요약해 언론사별 차이를 확인했기에 정말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다.

법률과 관련한 다른 대외적 활동들은 지원하는 모두가 참가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봉사활동은 지원하고 성실하게만 참여한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활동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경험했던 활동들 말고 다른 분야도 접해보고 싶기에 다음학기에도 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만큼 값진 시간들이었다. 또 이러한 봉사자들의 활동들이 하나하나 모여 하나의 소비자연맹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유 ○ 진

저는 의정 모니터링과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은 국회의원 공약을 분석하고 잘 이행했는지 기사, 사이트, 신문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은 직접 재판에 가서 제대로 재판이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었는데 직접 찾아보면서 지역구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지역을 분석하게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복지에 대해서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는 강서구에 관련된 복지를 찾아보고 이용중입니다. 또한, 뉴스를 볼 때도 더욱 정치인들에게 관심있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은 재판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직접 가서 재판을 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내내 항상 재밌으면서 보람차게 갈 수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던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피고인, 증인 등이 떨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얘기를 잘 전달하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재판관 등이 다 영화에서 제대로 절차를 생략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청을 다니면서 생각보다 방청객이 없는 재판이 많아서 의외로 영화나 드라마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러오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엄청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재판은 다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실제 재판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과 꽤 다른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쟁이 있거나 논쟁 있는 모습보다 차분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얻은 점은 제가 엄청 꼼꼼하다는 것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 사이트 등을 다 하나하나 집요하게 찾으면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것과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세상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과 법정 모니터링은 딱 특정한 사람을 정해두고 하는 봉사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봉사보다 값졌습니다. 이 봉사활동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살았을 것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이 국회의원과

재판부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면 우리 사회는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최대한 공정히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봉사활동이었지만 정말 얻어가는 것이 많은 봉사활동을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써 국가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지켜보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 개인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유 ○ 진

올해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봉사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서 너무 아쉬웠다. 물론 집에서 편하게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들을 수 있었지만 같은 목적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직접 뵙고 싶었다. 이후에 필수봉사활동을 해야했다. 처음에 기입했던 이메일이 알람이 너무 안떠서 다른 이메일로 수정하였는데, 필수봉사활동인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에 관한 공지사항이 처음에 기입했던 메일로 와서 마감일 하루 전에 발견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6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싶었는데 메일을 늦게 확인한 탓에 너무 적게 조사를 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필수활동인 의정모니터링을 했다. 나같은 경우엔 인천광역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과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웅진군 배준영 의원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했다. 나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고향은 경기도 안성이라 인천광역시 의원에 관해 관심이 없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특화되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국회의원의 공약을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하고 현재는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는지 살펴본 것은 처음이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국정을 심의하는 사람으로서, 공약이 무엇이 있고 이에 대한 이행률을 찾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을 중하게 갖고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는 2022다255614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동실효된 매매계약에 대한 확인의 소의 판결문을 리서치하였다. 법학부인 나는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쟁점을 정리할 때 내가 쟁점을 제대로 잘 잡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어려웠다. 또한 각심 판결을 읽을 때마다 납득이 됐는데, 그래서 판사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느껴졌다. 어떤 근거를 드냐에 따라 결론이 바뀌어버리니까 판사가 어느 곳에 가치를 더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중립적이고 정의롭게 결론을 내야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법정모니터링을 했다. 우리집에서 10분거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다녀왔다. 항상 지나가다 보고 내가 갈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직접 가보니 내가 예상한 분위기와 사뭇 달랐다. 내가 법원에 도착했을 때 법정 앞에 방송카메라와 기자들이 깔려있었고 이는 직전에 이루의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 때문이었다. 이후에 나도 형사11단독재판부의 재판을 모니터링하러 올라갔다. 일단 법정의 분위기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숙했다. 몇마디 오고가고 누군가의 형량이 결정되는 그 상황이 무섭게 느껴졌다. 판사는 카리스마 있게 양측의 말을 듣고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변호사는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보였다. 재판에서 써온 글을 보고 읽고 있었다. 또한 재판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재판에 참여하는 모두의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검사만 마이크를 활용하고 판사나 재판당사자나 변호사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말하여 방청석에서는 명확히 들리지 않아서 사건개요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무슨 공개방청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번도 내 스스로 가볼 생각을 못했는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재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던 게 정말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덕분에 법조인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늘어났고, 내 꿈에 하루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동기가 되었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윤 ○ 진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그동안 법학과에 재학하면서도 법과 정치에 대해 다소 무관심했던 나에게 법정

치의식을 높여주는 값진 경험이었다. 물론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생각했던 것과 달리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고, 학기와 병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법학도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먼저, 필수활동인 의정모니터링의 경우 처음 시작할 당시엔 공약이행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조사하는 활동이 쉽지 않아 힘들었는데, 막상 활동을 마치고 나니, 정치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실제로 평소에는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조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무관심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앞으로는 내가 투표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 정도는 찾아보는 것이 국민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돕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활동의 경우 처음에는 어떻게 설문자를 모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고민이었던 것 같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설문조사 활동을 하면서 오픈채팅방 및 카톡방을 통해 질문을 받았는데, 그중 어려운 용어에 대한 질문과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때, 나도 모르는 용어와 정치적 사건들이 많았는데, 질문을 받아 답변을 해주는 과정에서 직접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법과 정치에 대한 상식을 기를 수 있어서 의미 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신청할 당시만 해도, 법학과를 재학하면서 많은 판결문을 다루어왔기에 사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처음에 판결문을 선정하는 일부터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은 예상 밖이었다. 그럼에도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운 판결문을 선정하여 상세히 분석하는 일을 통해 전공에 대한 심화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뜻깊었다. 또한, 다른 판결문의 주제도 '자살'의 정의와 '정신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요즘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고, 그 해결의 필요성이 큰 주제라 흥미로워 더욱 즐겁게 활동에 임했던 것 같다. 그러나, 판사나 소송대리인의 정보를 조사하는 부분은 동명이인이 많은 특성상 쉽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법정 모니터링은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었다. 평소 형법에 관심이 많아 형사 재판을 처음으로 방청해보았는데,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던 재판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더 엄숙한 분위기라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새 집중하여 사건의 개요를 어려움 없이 정리하고 재판이 다루는 법률을 공부하는 나의 모습에서 법 전공 선택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형사재판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의 모습이 멋있다고 느껴, 진로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던 나에게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적절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재판 방청을 통해 얻은 것이 많았다고 느꼈기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다른 재판도 정기적으로 방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 4개월의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의 부족 등으로 학기 말로 갈수록 봉사활동에 소홀해져 결과물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보여 스스로 아쉬웠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 ○ 하

이번 학기에는 처음으로 의정 모니터링과 언론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지역 국회의원의 활동은 잘 찾아보지도 못하고, 뉴스도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떠 있는 기사만 대충 확인하며 지내왔는데, 이번 기회에 저 두 주제에 대해 찬찬히, 꼼꼼하게 조사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이미 완수한 것도 있었지만, 일부 공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에 관심을 주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면 공약 이행률이 더욱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이를 분석하여 이행 정도를 측정하는 의정 모니터링 활동이 이행을 상속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다. 언론 모니터링 또한 역시나 언론사 별로 보도 기조가 정말 다를 수 있다. 한 번 깨달았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언론사들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사실 관계 또한 선택적으로 기사에 작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갖고자 한다면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모두 찾아 읽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또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법정 모니터링을 다니며 보았던 재판장의 풍경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홀로 다닐 때에는 판사, 검사 등의 법조인들에게서 약간의 고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면, 대학생들이 단체로 배심원단 활동을 가자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법 활동에 있어 국민들의, 특히 20대 청년들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판장 내의 모두가 정해진 원칙을 지키며 재판이 진행되었고, 판사도 개입해야 할 때에 바로 개입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다수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받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해 항소를 하는 사람도 많고, 뉴스에서 접하는 큰 규모의 사건들 중에서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판결이 의문스러운 사건도 많습니다. 배심원단이 다수 방청객에 앉아있어 국민들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재판장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학기도 정말 보람찬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법에 관한 활동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 ○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의정모니터링과 번역 활동을 진행했다. 모두 각기 다른 관점에서 입법 및 사법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의정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의 뜻으로 국가의 일을 맡게 된 국회의원이 어떻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의정 모니터링을 하기 전까지는 공약의 내용이나 이행여부보다는 해당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장을 보다 고려하며 투표에 참여했는데, 해당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얼마나 해당 의원이 잘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해당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나면 공약 사항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이행여부를 추적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 활동을 통해 그러한 절차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의정보고서 등에 이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면밀히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sns나 그 외의 소통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인 이유를 의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내가 현재 대한민국의 현안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서 좋았다. 꾸준히 대한민국의 주요 사회적 경제적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왔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생각해 볼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현안에 대한 인식도 살펴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번역활동 역시 법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번역하는 법이 해당 국가의 어떤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었으며, 평소 알고 있던 우리나라의 법과는 어떤 지점에서 공통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 비교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이란 헌법을 번역하게 되었는데, 모든 법의 상위법원으로 기능하는 헌법이 국가의 이념이나 특성과 상관없이 어떤 가치를 보편적으로 담고 있어야 하는가를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란은 이슬람국가로 종교가 사회의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란 헌법 역시 종교적 특성을 띄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이슬람 헌법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평등 같이 국민에게 차별없이 인정되어야 할 보편적인 권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주도적으로 사법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법률연맹 활동을 통해 학생 신분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의 많은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꿈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앞으로 깨어있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이 ○ 윤

대학교에서 중문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나의 꿈은 언젠가 졸업한 이후에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좋은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 우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고, 그러던 차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을 보고 지원하였다. 국회의원 정책 이행을 조사, 대학생 법의식 설문조사와 같은 의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더불어 나의 행동을 통해 사회를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며 큰 보람을 느꼈다. 무엇보다 대만 형사소송법을 번역하는 번역봉사를 통해 전공과 진로를 연결지을 수 있어서 뿌듯했다. 30시간이 넘는 대장정이었지만 나의 번역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의 법률 체계를 이해하는데 미약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았다. 중국 본토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자를 간단한 버전으로 단순화시킨 '간체자'를 사용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옛날처럼 번체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는 중문학도로서, 간체자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만 어릴 때부터 신문이나 책을 통해 한자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대만 형사소송법을 읽는 것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용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혹은 번체자를 간체자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내가 읽고 이해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특히나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이기 때문에 생소한 법률용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번역된 대만 민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참고해야 했다. 또한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와 달리, 대만에는 한족이 넘어서기 이전부터 대만에 이주해서 살고있는 토착 원주민들이 있다. 이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만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언어와 문화가 대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과 다르다. 이들 중 대만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할 비용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종종 행위 무능력자와 유사하게 취급되기도 한다. 자고로 법률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요소도 있지만, 해당 사회의 문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다른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다. 대만은 한국, 중국과 같이 동일한 대륙법 체계인데다가 일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이와 같이 고유의 법률 용어나 체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대만의 형사소송법을 번역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만과 그 법률체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동시에, 한국의 민법, 형사소송법 법전을 펼쳐 보면서 대학생활동안 수강했던 법학 강의를 다시 복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나 전공인 중국어를 살려서 봉사한 경험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다. 어쨌거나 나 역시 인문학도이기 때문에, 나의 전공이 나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혹은 진로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번역봉사를 하면서 전공에 대한 깊이있는 공부를 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변호사로서 나아가고 싶은 나의 꿈을 다시 한 번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이 ○ 원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이 된 이후에, 이렇다 할 대외활동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여러 가지 대외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서 고학년이 될 때까지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생 신분으로 졸업 전에는 법 관련 대외활동을 하고 싶어 우연히 알게 된 게 법률소비자연맹이었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듯하여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 변역 봉사, 사법감시배심위원의 봉사를 하였는데, 각각의 봉사에서 느낀 점이 모두 달랐습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하면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다양한 구성의 질문을 통해 현재 대학생들의 의식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들을 취합하면서 전반적인 의식의 흐름과 위치를 파악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저 또한 참여했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법과 정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을 깨달아 검색과 조사를 통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나의 정치의식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를 하면서 앞서 말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내가 정치에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몇 번의 선거가 거쳐 지나갔었는데 선거 공보조차 제대로 집중해서 본 적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연히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에 대해 지켜보기는커녕 선거 공보를 보는 것이 낯설다는 데에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를 통해 선거 공보를 꼼꼼하게 돌아보고 지역별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역 봉사는 제 전공을 살려 할 수 있는 봉사이기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봉사에 대해서는 배워가는 입장으로써 미흡한 측면이 두드러질 수 있지만, 이 봉사 만큼은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령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령을 보며 우리 나라와의 법령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위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했던 가장 의미 깊은 봉사였습니다. 수능을 공부하던 시절부터 대학생이 되면 꼭 재판을 방청하고 싶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재판을 보러 가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재판을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 법정은 생각보다 훨씬 엄숙한 분위기였고, 검사와 변호사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질문을 가지고 다양한 심문질문을 준비해온 것에서 놀랐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모두 그 수많은 자료들을 전부 숙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 자료들 틈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질문들을 찾아온다는 데에서 법조인의 대단함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서 혼자 직접 찾아서 봉사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다양하게 봉사해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봉사에도 참여하고 싶고, 그 때에는 이번엔 하지 못했던 종류의 봉사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이 ○ 희

2022년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법에 대해 더 흥미가 생겨 다음 학기 봉사활동도 참여하고 싶어졌고, 2023년 봄학기에 봉사활동을 바로 이어서 하게 되었다. 법조계에 관심을 가진 것은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법에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면서 우리의 삶이 법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느꼈다. 그리고 법에 흥미가 생기면서 법과 관련된 경험도 해보고 싶었다. 이 봉사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법에 관한 활동 경험이 전혀 없었다. 막막하게 법과 관련된 활동을 알아보던 중 법률연맹 봉사 활동을 알게 되었고, 겨울학과 봄학기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통하여 어떻게 법에 대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봄학기 봉사활동 중에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처음 해볼 수 있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 중 공약이행률조사를 처음 해야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막막하기도 했다. 하지만 열린국회정보, 각 지역 홈페이지, 기사들을 참

고해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을 해보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아니라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그 판단기준에 공약이행률을 판단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공약과 관련해 발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봉사활동 중 가장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것은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형사, 민사, 행정의 여러 재판을 방청하면서 재판이 어떻게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었다. 법이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도 재차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 또한, 법조계 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지 옆에서 직접 보면서, 막연히 생각만 했던 법조계 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특히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은 쟁점이었다. 어떠한 사건에 쟁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쟁점을 명확하게 해야 했다. 판사는 쟁점을 중심으로 재판을 이끌고, 변호인들도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청구원인, 청구취지들을 변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단어의 선택에 따른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다. 제출된 서류와 자료의 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전보다 높일 수 있었다. 재판을 방청하고 법률 용어를 찾아보기도 하며,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법에 대해 흥미도 더 느끼게 해주었다.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이 ○ 현

대학교에 입학한 뒤로 여러 봉사활동을 했으나 제가 목표로 하는 진로와 연관시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고 평소 소외계층을 돕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로스쿨 입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봉사활동을 통해 소소하게나마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국가에 이바지하는 자세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간다면 장래에 제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국가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봄학기 봉사활동으로는 사법감시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의정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법감시모니터링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고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했고 판단에 있어서 부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감시하고 국민들에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판결문리서치는 과거의 판결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저의 리서치를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 도움을 받는 대상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리서치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의 경우, 국가를 운영해나가는 중요한 주체인 국회를 감시하는 것인데 앞으로 국민들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고 공약이행률을 참조하여 더욱 현명한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은 사법감시모니터링과 같이 큰 사건을 방청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평소에 겪기 쉬운 사건들을 중심으로 방청하여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하여 국민들이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활동 하나 하나가 국민들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고 법률연맹을 통해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져 사회전체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소외된 계층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 ○ 은

우연히 블로그를 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대한 후기를 읽게 되었다. 로스쿨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관

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평소 쉽게 해 볼 수 없는 활동들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봄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의정모니터링, 법정지 설문조사,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두 명의 의원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무수히 많은 정책들에 대해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기사, 시,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조사를 했다. 그 중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활발하게 운영 중이던 의원의 경우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접할 수 있었다. 그러한 소통방식이 시민들로 하여금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던 분야였기에 6개의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다. 판결문을 자세히 정독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한 문장의 호흡이 길고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법률 용어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많은 의학용어들까지 등장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용어가 어렵고 문장의 길이가 길기는 하지만 사건에 대한 판결 요지와 판단근거 및 소송당사자 등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을 몇 번 반복하면서 조금 익숙해지니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중 눈에 띄었던 점은 대법원의 역할이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나온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이 나오거나, 원심에 대한 환송파기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 판결들이 많았다. 1심과 2심을 정리하며 판결에 의문점이 들었던 부분들도 대법원에 가서는 해결이 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만큼 단순 법리해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전후사정과 실질성/현실성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알아갈 수 있었다. 이혼과 양육권처럼 평소 뉴스에서 많이 접했던 주제부터, 아주 생소한 주제까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었다.

학과와 병행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기에 더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기회로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에 대해 새롭게 접해보고 활동 기회를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뜻 깊었다.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이 ○ 주

매일 아침, 대다수의 좋지 않은 소식과 아주 조금의 선행이 뉴스를 통해 흘러나온다. 연일 경제 지표는 떨어지고, 사람들은 허위광고와 사기에 속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다. 학교 갈 준비를 하며 그 이야기들을 듣는 나는 그 이유가 궁금했고,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만들 좋은 기회를 찾던 중 법률 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발견했다. 타 피상적인 활동과 달리 그 내용이 전문적이며, 사람들의 후기도 매우 긍정적이라 매우 큰 기대를 안고 활동에 신청했다.

이어진 활동은 내 기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을 점검하는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내 일상 속의 많은 부분이 정치적 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체감하였다. 정책의 이행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그를 조정할 대리인인 정치인을 선출하는 시민에게도 현 상황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정책은 이행을 향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화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직접 찾아보며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평소 관심을 두고 살펴보던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의 소비자 권의 보호와 관련된 판결을 찾아 즐겁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학기부터 시작한 통계학 공부와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 활동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

활동을 수행하며, 세상 속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선택을 하고 있으며, 사건의 복잡성은 인간 다양성의 결과물이기때 이분법적이거나 단편적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지양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의욕

만 앞서 끝마치지 못한 활동들에 아쉬움이 남아 하계 봉사활동을 또 신청할 예정이다. 친절하게 활동 안내해 주신 담당분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저학년에 알았다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뒤늦게 알게 된 것이 무척 아쉽다. 하계 봉사활동을 신청한다면 최선을 다해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이 ○ 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관련 활동을 찾다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사법감시배심원단, 법정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등 다양하고 흥미로워 보이는, 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활동들이 많아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있게 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판례에서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어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유연효력확인소 관련 판결문 리서치가 기억에 남는데 수업 시간에 잠깐 배웠던 유연에 관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같은 상황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은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와 피고 외에도 제3자가 많이 등장했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원고와 피고, 소외인의 관계도를 그려가며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이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판결을 하는데 있어 문언 해석과 법리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 번 깨달았고,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의 판결문 리서치를 모두 진행하였는데 행정사건 관련 리서치를 하면서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공백없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출된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류하고 이행률을 조사하는 의정 모니터링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선거공보를 유심히 들여다볼 일이 없었는데 한 국회의원이 제시하는 공약의 수가 생각보다 많고, 당선 후 소र्स소 없이 사라지는 공약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공약을 막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러한 점에 있어 법률소비자연맹의 의정모니터링 활동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약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진행 상황을 검토하는 활동을 한 의정모니터링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공약에 무관심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준 활동이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앞으로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의 활동들을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가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첫 봉사활동 학기였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라는 꿈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 분야에서 꼭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활동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이 ○ 주

2023년 봄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희수입니다.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 가능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탐색하다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대한 추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법조인의 꿈을 막연하게 품고 자라왔기에 그간 법에 대한 흥미는 있었으나,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해 늘 소극적이었던 저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지원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의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을 주의 깊게 살펴 본 적도, 그 공약들이 실제로 착수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활동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의원분들께서는 꽤 많은 공약들을 실제로 착수하고 추진 중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수에 비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는 공약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직접 뛰어다니지 않더라도 집에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정모니터링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공약이행 여부를 일개 국민인 내가 어떻게 확인하겠어?’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이번 봉사를 통해 충분히 자택에서도 사법감시를 활성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총 3개의 판결문을 리서치했습니다. 처음 판결문 리서치를 신청하고 판결문을 정독했을 때, 판결문이 생각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현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사건의 판결에는 생각보다 매우 많은 사람과 상황이 개입되어 있고 사건과 관련된 어떤 한 가지도 허투루 넘어가는 일 없이 세세하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기 위해 앞서 리서치를 진행할 판결문을 훑어보는 과정에서 판결문 독해의 난이도가 개별적으로 판이하다는 것을 깊게 느꼈습니다. 어떤 판결문은 사실관계와 쟁점에 대해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된 데에 반해, 어떤 판결문은 불필요할 정도로 장황하게 사실관계만을 잔뜩 정리한 후 쟁점에 대한 판단 근거는 짧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률의 해석이 제3심까지 이어진 데에 주요했던 판결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까지는 법률 상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만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읽으며 한 단어의 의미가 판결 자체를 얼마나 좌우할 수 있는지를 직접 목도한 것은 처음이었기에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판결문이라고 하면 단어가 무척 어려울 것만 같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도 들지 않아 그저 두렵기만 했었기에, 만약 법률 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제대로 정독해 볼 기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 것 같아 정말 유의미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각자의 자리에서만이라도 법에 관심을 가지고 사법감시를 활성화한다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세상에 다가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긴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법률 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께 감사드리며 소감 마칩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형가리어과 임 ○ 원

이번 학기 봉사 키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법에 관한 지식이라던가, 개인적으로 접해본 경험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법학 관련 수업을 듣고, 서울고등법원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하여 단 일주일간 사법시스템을 경험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봄학기 봉사활동은 ‘경험’이라는 큰 키워드를 갖고 진행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또한 로스쿨 진학이라는 큰 틀 내에서 목표를 갖고 있는 제게 하나의 스펙이자 전공지식을 선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 봉사활동은 처음이기도 하고 뭐든 시작해보고 결정하자는 제 신념과 맞물려 최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이번학기 판결문 리서치,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 법정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총 네 분야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 법정모니터링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일단 제가 한 활동 중 직접 방문하여 한 활동은 해당 활동이 유일했습니다. 그만큼 공을 들여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실제로 방문해 본 결과 상당히 봉사활동자를 신경써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마음 편하게 사법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고 저와 같이 편한 마음을 먹고 온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법정에서 울고 절망하고 판결에 머리를 감싸 쥐던 사람들의 표정과 깊은 한숨, 눈물은 저로 하여금 착잡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지만 이내 사법구조가 한 범죄자를 징벌하거나 죄가 있는 자를 형벌한다는 판단

이라는 냉철한 생각이 뇌를 감쌌습니다. 그 외에는 평범했지만, 어려웠던 봉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는 의정모니터링은 현재의 공약 진행상황을 일일이 판단해야 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담은 기사나 자료들을 파악해야 하는 그 어려움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어려웠고, 판결문 리서치 관련해서는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 판결문이 1심부터 대법원 심리까지 결정된 3심까지 전부 제공된 자료를 찾기 어려웠고 시작이 어려웠음과 동시에 그 판결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치 및 내용, 심지어는 그 판결문의 형식마저 재판부와 판사마다 전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했습니다. 다만 이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정리되지 않은 판결문에 대한 쟁점파악 및 재판부가 말하고자 하는 쟁점적 내용을 저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를 어려움의 늪에 빠뜨린 정보의 부재나 각종 어려움들은 저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판결문 리서치 자료를 완성하여 제출한 그 바로 이후에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저를 덮칠지는 모르지만 그 어려움을 다시 즐기고 밟고 일어서는 제 모습이 기대되고 진취적이고 법학소양을 가진 사람이 다시 봉사를 통해 많은 분야에 도움이 될 거라 믿으며 이번학기 봉사를 마칩니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 ○ 인

뒤늦게 법조인이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졌지만, 법과 관련된 활동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법률이 저의 적성과 정말로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직접 활동을 해보면 적성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것 같아 법과 관련된 대외활동을 찾던 중 법률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봉사까지 할 수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은 가정의 달을 맞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정지 의식 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학 중이었다면 대학교 수업 때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휴학 중이라 학교에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가깝게 지내는 타학교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여 비교적 다양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이고 동일한 교육을 받아왔기에 대체적으로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저의 예측과 달리 친구들의 의견이 모두 달랐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간첩 연루사건이나 대장동 50억 클럽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많아 20대들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봉사활동은 의정 모니터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공약 작성점검하고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이행되지 않은 공약들이 많았고, 해당 공약 사업에 대한 어떠한 진척 상황도 보고되지 않은 바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약은 당선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치인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사한 소중한 한 표한 표로 당선된 만큼 최선을 다해 공약을 이행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은 언론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단순 분석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60여 개에 달하는 사실을 일일이 읽고, 분석 기준을 세우고, 각 사실의 논점을 판단하고 분류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나아가 표를 일일이 작성하여 각 사실을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결론까지 작성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 사실분석을 시작하기 전에는 각 일간지별로 나타나는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에 따라 그 대립각이 뚜렷이 나타날 테니 성향 차이를 중심으로 하여 논점을 정리하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간의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실보다는 사실관계-언론사별 의견 또는 해결방안이 제시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위주로 하되 그 안에서 해결책 또는 의견 간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사실 분석을 하면서 각 언론사별로 겹치는 주제가 의외로 많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라 건이나, 집회법 개정, 노란투복법에 대한 주재들은 거의 모든 일간지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시발점으로 삼은 한국의 우주산업의 미래에 대한

것과 G7 정상회담에서 촉진된 반도체 경쟁, 한중관계 재건 등에 대한 이슈도 자주 다루어졌습니다. 사설 분석을 통해 2023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5월 넷째주의 사건들에 대해 매우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각 언론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이슈들 중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한 채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봉사활동은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이었습니다. 재판을 방청하기에 앞서 이민석 변호사님으로부터 해당 재판의 피고인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1심보다, 2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배 배심원단 분들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주권시민으로서 자명감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재판을 모니터링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과 검사님을 보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법정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재판을 방청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내가 만약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님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자랑하는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재판을 이어가는 모습이 진심으로 멋졌고,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 안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판사님과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모습 등 법조인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찼고, 제가 가지고 있던 법학 적성에 대한 의문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법학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지만 그 과정이 매우 즐거웠고 보람찼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 해보지 못한 판결문 리서치나 번역 봉사를 신청해 더욱 폭넓은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도 생겼습니다. 배운 점이 많은 활동이었기에 기회만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꼭 신청하여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 청주대학교 법학과 정 ○ 경

3월에 개강하고 나서 2학년을 알차게 보내보고 싶어서 대외활동을 찾아보고 알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봉사활동 후기들도 보니 활동도 재밌어 보이고 나에게 여러모로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서 신청하였다. 처음 해보는 대외활동이라 설레고 두려웠다.

자료를 받고 너무 어려워 보여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다. 그럴 때마다 이메일로 문의를 드리니 친절하게 답변도 해주셨고 덕분에 차근차근해나갈 수 있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의정 모니터링이다. 기사도 찾아보고 실제 그 공약이 이루어졌는지도 찾아봐야 해서 한참 걸렸다. 내가 사는 지역의 의원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었고 무슨 공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은 되었는지 찾아보다 보니 내가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공약 분류도 해보고 이행을 조사도 하며 얼마나 완성도 있는지 점수도 매겼었다. 이때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나에겐 너무 애매해서 기준표를 봐도 어떻게 점수를 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고 공약은 있지만 뉴스나 관련 글들을 찾기가 정말 힘들었다. 이 활동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활동과 관련 사이트, 활동하는 SNS 등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

두 번째 활동은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번 학기 필수활동이라는데 별 부담 없이 가볍게 했던 것 같다. 친구들은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 그것에 대해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설문 내내 재밌었다. 평소엔 하지 않는 질문들이니 그만큼 더 생소하고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많은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못 채운 것 같아 속상했다. 그래도 사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활동으로 판결문리서치이다. 법정 모니터링 다음으로 기대했던 활동이었고 가장 재밌었으며 내 전공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먼저 판례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았다. 1심부터 3심까지 다 있는 판례를 찾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없는 판례라든지 등록되지 않은 판례라든지 할 판례를 찾는 건 꽤 어려웠다. 하지만 찾고 나서는 수월했다. 판례를 읽고 그 사건의 쟁점, 사실관계, 판결 요지, 해당 사건 관련 기사 검토, 소송대리인 과거 판결 기록, 용어해설 등을 적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당사자를 찾기 어려웠는데 점점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겨 잘 찾게 되었다. 판결요지가 없는 판례 때는 내가 직접 정리해서 쓰기도 하였다. 내가 했던 판례들은 다 관련 기사가 없는 건지 나오질 않았다. 마지막에 한 손해배상이 유일하게 기사가 많이 나왔기에 다 읽고 5개로 추려 스크랩해 두었다. 용어해설도 나는 아는데 남들은 모를 만한 단어를 찾아보다가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아 친구의 도움을 받았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단어 양이 많았다. 사람들이 이 판례를 보았을 때 모르는 단어가 한 무더기라고 생각하니 판례를 쉬운 말로 바꿔서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판결문리서치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건들도 읽어보고 내가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했을까 하며 깊이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정말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법학전공이지만 중요한 판례만 봐왔지, 이렇게 많고 다양한 법률정보와 판례를 접해보진 않아서 신기하고 재밌었다.

이 활동을 계기로 삼아 더 많은 판례를 읽어보고 뉴스도 보고 신문도 읽으며 사회에 더 관심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또, 이번 학기 활동을 통해 나의 법조인 진로를 더 굳히게 되었다. 항상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처음 보는 단어들도 알게 되고 평소엔 헛갈렸던 부분도 판례를 통해 알게 되었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 다음 활동을 하게 된다면 법정 모니터링도 해보고 싶다.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기도 하다. 그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도 좋고 전문 분야에서 자기 할 일을 전부 해내는 걸 보니 마음이 웅장해지기도 한다. 기회가 된다면 꼭 가봐야겠다. 즐거웠던 나의 첫 대외활동, 다음엔 더 많은 걸 해봐야겠다고 다짐해본다.

○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정 ○ 영

지난 겨울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 자원봉사를 진행하면서, 저의 법에 대한 흥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 진학의 꿈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봉사활동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느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겨울학기에 이어서 이번 봄학기에도 또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2023년도 봄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정모니터링,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번역봉사와 판결문 리서치 총 4가지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이행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2번의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보았는데, 그 때마다 정작 투표할 당시에만 공약을 조금 보았던 제 자신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투표 이후에 정작 당선이 된 이들의 공약 이행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공약 이행률이 높지 않아서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약에도 이미 이전부터 시행해오던 공약도 있었고, 지나치게 한 분야에 편향되어 진행된 공약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들의 공약과 그 이행을 지켜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저의 또래 친구들의 법정치의식이 어떤 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아 쉽게 설문을 진행했다는 친구도 있었고, 질문이 어려워져 찾아보면서 했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평소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비당파적선거운동개혁법에 대한 번역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대국 수업에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일부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일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법률용어는 한국어로도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아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영어로도 익숙지 않아서 법률용어를 찾는 부분이 어렵기도 하였습니다. 또, 일상적인 용어로 쓰여 있지만, 그것을 법률용어로 번역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봉사는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가 이번 학기에 진행한 봉사활동 중 가장 재미있게 했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대법원 2016도 21314 의료법 위반’과 ‘대법원 2020도 16420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개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도 21314’ 판결문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의 의료면허를 넘은 의료행위인가가 사건의 쟁점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면허의 범위를 넘지 않은 의료행위라고 판단하며 ‘죄형법정주의’의 이유를 든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한 ‘대법원 2020도 16420’은 재판 과정 중 개정법에 따라 양형이 감소 또는 면제되는 경우의 법령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의 개정은 재판 진행 중에도 적용을 가능함을 들어 양형 구형을 다시 하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쟁점에서 대법원이 이유를 든 죄형법정주의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소급적용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관련된 수업에서 배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이 것이 쟁점이 된 판결문을 읽어보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법과 관련하여 공부할수록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정 ○ 민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가장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총 4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 4가지 활동은 국회의원 공약 이행 분석, 법정치 관련 설문조사, 언론 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입니다. 사실 어느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렵기도 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활동을 마치고 되돌아보니, 시간을 쪼개고 잠을 아껴서라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많은 경험을 해 보면서 저 스스로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활동 중 제가 이번 봉사활동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활동은 ‘언론모니터링’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해 보지 않은 활동이기도 했고, 가장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언론모니터링의 ‘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모니터링에 필요하고 또 어떤 내용을 제외해야 할지, 찬반 내용이 있었기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선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 등의 틀을 세우는 것은 낯선 과정이기도 했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명확성이 없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산을 지나고 나니 다양한 언론들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 하나의 사건을 굉장히 많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주제인 ‘제 3자 변제안’은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던 주제이고 아직까지 미결로 논쟁이 여전한 주제였기에 그러한 점이 더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언론은 정말 빠르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3자 변제안이 3월에는 수 백건의 기사가 쏟아질 만큼 뜨거운 감자였지만 4,5월이 되자 20건 내외의 기사뿐으로 확 줄었다는 사실을 비교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는 ‘사실’ 위주의 언론 보도가 많았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 위주의 사실 보도가 많아졌음 또한 확인 가능했습니다. 다음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은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런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니 주위 사람들이 법정치의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인식조차 하고 있지 않아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여 질문에 답하는 것을 어려워하였고, 그래서 질문지를 주고 제게 많은 질문을 던졌기에 설문조사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저는 정말 사람들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법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많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름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고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는 소재에도 결국 시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공

부해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보고서 작성하는 것과 판결문 리서치를 하는 것은 지난 봉사활동에서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이번 학기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국회의원의 공약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국회의원 자체만의 공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국회의원이 소속된 당 차원의 공약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옛날부터 추진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던 공약까지 포함되어 있기에 한 명의 국회의원의 공약의 수가 과대하게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니 질적인 부분에서는 뛰어나지 않은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항상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국회의원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을 해 보니 생각만큼 다양한 활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과장되었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일방향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깨달음과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정 ○ 서

저는 작년 7월부터 로스쿨 진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국제학과에 진학 중인 저는 학교에서 국제사회에서 꼭 필요한 학문들을 배우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국제경제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경영학과목과 국제무역투자론 과목이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와 공급망 이슈로 전세계가 혼란스러운 현 시국에서 해당 수업들을 수강하며 저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세워나가야 할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종을 찾아보던 중 국제통상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글로벌한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통상 관련 이슈를 다루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기롭게 도전해 보고자 하는 마음은 생겼으나 막상 로스쿨 준비를 시작하려고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국가 경제와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살고 싶다는 사명 의식은 생겼지만, 사실상 제가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관련 활동들이 다양하게 마련된 봉사활동을 찾게 되었고, 이러한 계기로 이번 학기에 첫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필수활동이었던 의정 모니터링, EU 조약 번역, 판례 리서치 활동에 주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의정 모니터링은 국회의원들의 공약 분류 점검과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꼼꼼히 읽어보고는 했지만 선출된 의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하는지는 파악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올바른 민중주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약 이행을 조사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번 학기에 EU 조약을 번역하였습니다. 저는 국제학과에서 모든 수업과 소통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영어로 공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터라 다른 활동들보다는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국가별 문화 및 용어 차이로 인해 국내법률용어에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를 찾기 힘들어 해외 법률 사전의 영영풀이까지 참고해야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EU 조약을 번역하였는데, EU 부속 기구의 명칭과 사법 재판소 내의 직책에 대한 한국어 자료가 많이 없어 공식적인 정부 자료를 모두 조사하여 보다 정확도 높은 번역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정이 분명 쉽지 않은 않았습니디. 그렇지만 특히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가서 경제와 관련 법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EU 조약 번역 활동은 더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이 유럽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의 초석이 되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풍부한 수확물을 거두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례 리서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활동입니다. 국제통상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헝가리, 그리고 한국-미국 간의 조세 제도 차이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관련 분쟁에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저는 국제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해오고 있습니다.

판례리서치를 하면서 보니, 어떤 사건은 명확한 법리적 해석에 기반한 판결을, 어떤 사건은 포괄적 해석을 통해 판단을 내리신 사건들이 공존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판결들을 보며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 추구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시각과 다양한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결국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훗날에 소송대리인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연맹 담당자분들께 감사하고, 다음 학기의 봉사활동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정 ○ 연

올 겨울에 법 활동에 관심이 생기면서 실제의 한국 법에 대해 더욱 알아갈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우연히 접한 유튜브 채널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되어, 이를 계기로 2023년 봄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3월 22일에 진행했던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이 아닌 비대면 자료집 문답 형식으로 대체되었지만, 제공받은 자료들을 읽으면서 법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참여했던 활동은 4월 26일에 진행한, 이번학기 필수 활동 중 하나였던 법정지의식 설문조사였습니다. 이때 제 친구들과 지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5시간의 봉사 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평소라면 애기할 기회가 없었던 법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특히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의 이야기였지만, 설문조사를 계기 삼아 조금 더 유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견해들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5월 17일에는 마찬가지로 필수 활동 중 하나인 공약 이행률조사 분류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이미 분류된 공약이행 목록을 조금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재점검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을 공약 관련 파일을 정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서 좋았고, 또 캐치하기 어려웠던 바뀐 공약들을 찾아낼 때마다 느꼈던 성취가 아직까지도 보람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활동은 6월 6일에 제출한 중국인 민공화국의 입법법 번역봉사입니다. 중국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번역을 진행했던 파일은 번역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일상 중국어가 아닌 법률용어들이 대부분으로 사용된 문서들이라서, 모르는 단어들이 꽤나 있어서 배경조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한번 감을 잡고 나니, 흐름이 반복되고 같은 문체가 중복되어 사용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추후에는 조금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소감을 요약하자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초반 희망했던 법에 관련된 지식을 더욱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진다면 이번에 참여했던 활동들 말고도, 다양한 의정모니터링 활동이나 법정모니터링 활동들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정 ○ 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자료 배부로 대체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3학년도 봄학기 봉사를 시작하였다. 2021학년도 겨울학기과 2022학년도 봄학기, 그리고 2022학년도 겨울학기에 이어 네 번째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여러 번 봉사에 참여하는 만큼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세 학기의 활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판결문 리서치, 법정지 의식조사 등의 활동을 하였다. 판결문 리서치는 다양한 판결을 조사하면서도 시민들을 위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고, 이번 학기에도 5개의 대법원 판례를 리서치하였다. 형사, 민사 등 다양한 판례를 조사하여 더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수 활동이었던 의정모니터링도 진행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한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위를 넘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의 공약에 대한 조사였기에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학기 동안 법률 봉사를 하면서 법률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조 ○ 현

법학도로서 내가 배우는 법학을 사랑하지만 판결문이나 법정 결과를 보면 실망할 때가 많았다. 사법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와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던다.

그런데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하면서 변호사님이 사건 설명을 해주실 때 법이 있는 거랑 법이 지켜지는 건 다르고, 법이 잘 지켜질 수 있게 계속 지켜봐줘야 하며 오늘의 활동도 국민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여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지켜지는지 방청하는 것이므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며 봉사활동 선배들의 활동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설명해 주셨었는데, 내가 실망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작은 참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깨달았다. 선배들의 활동이 좋은 역할을 하였던 것에 뿌듯함을 느꼈고 뜻깊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확실히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방청에 참여하지만 방청하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 당사자나 피고인으로 오해 받기도 했는데 법정에서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시의 법정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에 비해 법정에서의 영향력이 적은 것을 느꼈고, 한 사람이 감시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감시하는 것의 영향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나의 작은 참여가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건 알았지만 학교 활동 같은 단체 활동이 아닌 이상 법원의 엄숙함과 접근의 어려움을 느껴 자발적으로 가는 건 쉽지 않았는데 이번 활동을 기회로 법원에 느꼈던 벽이 조금 허물어진 것 같고 앞으로는 활동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문가 수준의 전공 지식을 가진 건 아니지만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법학 관련 봉사활동이 적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배운 지식이 실제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공 지식을 한 번 더 이해하고 배울 수 있어 이전의 나보다 한걸음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활동도 참여하고 싶다.

물론, 학과 학생회를 하면서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단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봉사활동자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여러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수많은 봉사활동자들을 관리하는 등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어 뜻깊은 봉사활동이 유지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 존경하고,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나도 공익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조 ○ 기

처음 법조인의 꿈을 가지게 된 후 법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많은 활동들을 찾아보았다. 대외활동, 학회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등 많은 활동들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눈에 띄고 많은 추천을 받은 활동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활동들을 연맹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하지만 처음 봉사를 신청하고 받았던 수없이 쏟아지는 양식들과 보고서들의 양을 보고 지레 겁을 먹었던 시기도 있었다. 그렇지만 활동들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동안 리얼마인드가 구축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신청하기를 잘하였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어떠한 점을 배웠는지 적어보고자 한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의정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실제 국회의원들이 내세웠던 공약들 중 어떠한 공약을 이행하였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공약들이 실천이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시민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법정치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실제로 법과 관련돼서 주위 학우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가장 와닿았던 봉사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실제로 법원을 방문하여 구내식당을 가서 변호사, 검사, 판사님들이 먹는 밥도 먹어보고, 재판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색달랐던 경험이었다. 재판을 보러 갈 때 무조건 신청을 해야 하고 과정이 복잡할 거라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법정이든 들어가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물론 일부 재판은 재판도중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이 되어서 방청을 하지 못하였지만 직접 들어가서 보았던 재판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재판장의 엄숙하면서 공기가 무거운 듯한 분위기, 차분한 말투지만 날카롭게 재판과정을 지휘하는 판사님, 증인들의 말투와 행동, 변호사, 검사님의 증거 제출 등 등 많은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 검사님들이 설전을 벌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각자 준비해온 증거들을 제출하고, 그것을 검토한 판사님의 생각, 판결 등을 나의 귀로 들어볼 수 있었던 가장 보람찬 활동이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서도 실제 판례를 접해볼 수 있었다. 우선 리서치할 판결문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에 정말 많고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내가 엄선한 판결문을 직접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판결을 내린 판사님의 생각, 변호사님과 검사님들이 각자 내놓은 증거들과 본인들이 생각하는 판결의 타당성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처음 리서치를 진행할 때는 관련된 인적사항을 어디서 검색해봐야 하는지, 법조문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이 용어의 뜻은 무엇인지 등 등 많이 헤매면서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리서치를 진행해가며 법률적인 용어들에 친숙해지고 실제 사건을 학생의 시선이 아닌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세 분야로 넓게 보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까닭, 다른 판결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등을 혼자서 고민해보며 리서치를 진행한 결과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뿌듯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1학기 불학기 봉사활동을 마치며 되돌아보니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많이 달라진 나의 모습에 봉사활동에 투자하였던 나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였고, 2학기 중 시간이 될 때 또 다시 신청을 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끝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채 ○ 혁

올해 불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번역 봉사, 국회의원 공약 이행 조사, 판결문리서치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몇가지 중요한 배움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공약이행 조사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집 중 상단에 위치한 주요 공약 외에는 공약이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행된 것으로 조사된 공약 중에서도 출마 시점에 이미 이행이 거의 완료된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 혹은 지역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이행도 가능하지만, 재임기간 동안 이행에 착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사업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공약집에 이미 완료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약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은 공약의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공약이행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약의 신뢰성과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며 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원의 업무 수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통해서도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된 판례를 조사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은 현재 우리 경제에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나 노동 문제를 적절하게 규율하기에 법과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법률 해석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플랫폼 사업을 둘러싼 법률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었었고,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 노동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번역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국가 간 법률 체계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법률을 접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번역하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란의 헌법과 일본의 공직선거법 번역에 참여했는데, 특히 이란 헌법의 경우는 우리나라 헌법과 달리 헌법에서 종교의 영향이 눈에 띄었고, 특유의 정치체제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헌법에서 강조하는 주요 가치나 권리 등에서 문화, 역사의 차이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법률용어에서 우리나라 법률용어와 대부분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의 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래에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변호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과 번역 봉사활동은 특히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그리고 이윤압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법원의 법리 해석 태도 등을 알아본 경험은 공정거래법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외국 기업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이란의 헌법이나 일본의 공직선거법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국가의 법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법률 분야, 나아가 이와 연결된 다양한 분야의 이해를 넓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 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추구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법학전공 최 ○ 연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법학과에 진학했다. 법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있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고 법과 관련한 활동을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불학기 법률봉사에 지원했다.

불학기 필수 활동은 제21대 국회의원 의정모니터링과 청년 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였다.

의정모니터링은 2명의 국회의원을 배정받아 진행하였는데, 평소에도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많이 낯설었다. 국회의원의 공약들이 생각보다 세부적이고 또 다양하고 많아서 공약을 모두 지키는 국회의원이 있을지, 공약이 이렇게 많은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공약 중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기에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청년 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지를 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곤란해하고 거절한 사람도 있었다. 아무래도 본인의 정치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곤란한 것도 있었지만 모르는 게 많아서 답변이 어렵다는 사람도 많았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일반활동으로는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선택했다. 법정 모니터링은 가장 좋았던 활동이었다. 처음에는 법정에 들어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편하게 들어가게 되었다. 방청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 종종 재판 당사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 한 번은 피고 측 변호사가 어디서 나오신 거냐고 사건과 관련한 기업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고 물어본 적도 있었다. 종종 법정 경위님이 왜 오셨냐고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 모두 친절하셔서 방청에 대한 거리낌이 더 없어졌다. 재판을 방청하다 보니 다양한 재판을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형사와 민사뿐 아니라 소액 재판과 행정 재판도 방청하였다. 확실히 각 재판별로 분위기가 다른 점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흥미로웠다. 분위기가 엄숙하기는 하지만 모두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는 점이 당연하면서 다행이었다. 변호사가 없는 재판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서로서로 예의를 지키고 때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 재판을 보다 보면 파악이 되고 또 어려운 용어들을 잘 쓰지 않는 것이 좋기도 했다. 나중에 혹시라도 재판당사자가 되더라도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사실은 가장 기대했던 활동이었는데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은 활동이기도 했다. 학교에서 법학 수업을 들으면서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었고,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다 보면 이해가 되는 재판과 달리 판결문은 어렵고 막막했다.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몇 번을 다시 읽어봐야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좀 더 공부를 하고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큰 활동이었다. 나중에 공부를 더 한 다음에 꼭 다시 하고 싶은 활동이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은 재판 전에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얻어 가는 게 많은 활동이었다. 또한 재판 방청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보는 세상이 좁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법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은 확실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법률 봉사를 처음 하는 것이라 보니 헤매기도 하고 이런저런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또 하고 싶을 정도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들이기에 다음에는 더 다양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싶다.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최 ○ 음

2022년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두 번째 봉사활동을 마쳤다. 첫 번째 활동에서 법률연맹에서의 활동에 매력을 많이 느껴서 이어서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필수활동인 법정치의식조사, 의정 모니터링과 더불어 판결문리서치, 사법 감시배심원단 총 네 가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1. 법정치의식조사

필수활동으로 법정치의식조사를 진행하였다. 매년 법의 날(4.25)에 청년대학생 법, 정치의식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4인 이상 필수로 진행해야한다고 하여 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설문 항목은 (1) 법 준수 및 현안 이슈 관련 의식 (2)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 의식 (3) 통일, 안보 관련 의식 (4) 국회 현안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의식 (5)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식 이었다. 설문을 통해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주위사람에게 조사를 부탁하기가 쉽지 않아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요청하였다. 조사 결과는 서울신문 1면에 보도되었는데 그 자료를 연맹측에서 공유해주셔서 쉽게 볼 수 있어 감사했다. 인상적인 결과는 (5)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식이었다. 조사를 부탁한 지인(평균연령 26.8세) 6명 중 5명은 결혼은 해야 한다, 4명은 자녀는 낳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전체 결과에 따르면 40%만 결혼은 해야 한다(특히 여성은 29.6%), 28.6%만 자녀는 낳아야 한다(특히 여성은 17.7%)라고 답변하였다. 응답자 평균연령이 23.52세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나를 포함한 지인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친구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아직 먼 시기의 일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대로라면 현재의 저출산 기조가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의정 모니터링

필수활동으로 의정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의정 모니터링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공보에 작성한 공약을 분류하고, 현재까지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조사하는 활동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의 공약을 조사하게 되었다. 아직 공약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서 공약 분류부터 이행을 조사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였다. 태영호의원은 강남구라는 지역적 특성에 걸맞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개정, 재건축 관련된 규제 해제 등을 주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많아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발의내용을 찾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었다. 다행히 학부 시절 세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웠고, 최근 재건축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아 관련 규제와 해제에 관한 기사들을 많이 찾아본 상태에서 정보를 찾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다만 관련 법규정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연혁 또한 알고 있어야 해서 쉽지는 않았다. 태영호의원의 발의 내용도 대표발의 108건, 공동발의 1323건으로 매우 많아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결론적으로 태영호 의원과 소속정당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다양하게 발의하였고 꽤나 많은 부분을 이행하였다. 다만 해당 의원이 공약 이행에 대한 정보를 20,21년 의정보고서 이외에는 따로 게시하고 있지 않아 세법개정과 재건축 등 이외의 자료는 찾기가 어려웠다. 저번 조사에서도 느꼈지만 의원 측에서 선거공보와 연계된 공약 이행 자료를 주기적으로 국민들(혹은 지역구민들)에게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내 지역구(구로구)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구로구에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공약 불이행에 관해 엄청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번 조사에서 깨달았고 이를 대신해주고 있는 법률연맹에 감사함을 느꼈다.

3. 판결문리서치

이번 판결문 리서치는 총 4건을 수행하였다.

① 이전에 서울삼성병원에 방문했을 때, 병원 정문 앞에 의료사고에 대해 규탄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현수막들을 본 적이 있다.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에 대해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1)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손해배상(의)]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70866 판결[손해배상(의)]에 대해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대법관들은 동일하였고 (1)은 병원 측에 손을 들어주고, (2)는 환자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1) 사건에서는 서울대병원이 모야모야병에 걸린 미성년자에게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뇌경색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환자 측은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부작용에 대한 (미성년자인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설명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의료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부작용을 고지한 때에도 미성년자인 환자 본인에게 직접 부작용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선고했듯 환송심에서 미성년자에게 직접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2) 사건에서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불안정협심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환자 측은 병원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것이라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지적하였다. 2심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상반된 두 전문기관의 의료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전문 기관에서 서로 상이한 의견을 내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2심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2)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그래 이게 맞는 판단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쾌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에 대한 판결은 내가 사건 당사자였다면 억울한 판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안 그래도 유족 입장에서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가득 차 있는데, 뇌경색의 원

인이 모야모야병의 자연스러운 경과라는 판단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병원 측 변호사가 전 대법관 출신이라는 점은 뒤로하고서라도 말이다. 판시사항에 더욱 자세하고 받아들이기만한 설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② 나머지 두건은 지난 리서치에 이어서 형사사건이었다. (3)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협박] (4)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사기]를 조사하였고 협박과 사기에 대한 구성요건에 관한 판결이다. (3)은 근로자인 피고인 A, B가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1,2심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4)는 자신의 가게에서 분실물로 지갑을 습득한 가게 주인이 피고인에게 "당신것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하고 가져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었고, 1심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2,3심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4) 모두 대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보이며 명쾌하였다. 하급심에서 잘못 판단한 법리에 대해 바로 잡는 모습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4)는 벌금 50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아 보이는 사건이지만 법리적 다툼이 있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다. 일반인이라면 일상에서 이것이 절도인지 사기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지만 법조인들이 이에 대해 고민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4. 사법 감시배심원단

서울남부지법 2023고합25호 피고인 벨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대표에 관한 사법 감시배심원단 활동을 이어서 신청하였다. 이 사건은 이미 징역형이 내려진 건 외에 피해자들이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하다 발견한 추가 혐의에 대해 고발한 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공판부터 계속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 공판까지는 형식적인 절차로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 증거 인부 등으로 20분도 채 안되어서 끝나서 아쉬웠는데, 세 번째 공판에서는 증거신문이 이루어져 약 1시간가량 재판이 이어졌다. 판사가 증거신문절차를 법과 규정대로 이행하는 점이 인상깊었다. 두 번째 증인인 VIK 직원이 7월에 참석할 수 있다고 사유서를 제출하여 다음 공판일이 7월로 정해졌다. 재판을 처음 공판일로부터 지켜보다보니 뒷내용과 판결결과가 궁금하여 웬만하면 계속 참여하고 싶다. 증인신문 과정을 보니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가닥이 잡히고 공판을 처음부터 보게 되니 재판 절차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 좋은 경험이었다. 이러한 참여가 공정재판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뿌듯하였다.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최 ○ 진

지난 2021학년도 여름방학을 맞아 사회봉사를 했던 것에 이어, 이번 2023년도 봄학기에도 사회봉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전에 진행했던 사회봉사 활동이 나에게 있어서 유익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활동인 '번역 봉사'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는 내가 관심 있게 본 사건의 판결을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해나가는 활동이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한 판결문을 쉬운 용어로 풀어 쓰는 활동은 이전에 봉사 활동을 통해 한 번 경험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끔 했다. 나는 이번에도 형사사건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내가 평소에도 관심있게 생각하는 성범죄에 대한 판결문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실제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피해자의 입장에 동화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판결문인 만큼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뉴스 기사와 같은 자료와는 달리,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었던 탓이 아닐까 싶다. 내가 피해자가 된 듯한 느낌과 동시에 법관의 위치에 있는 듯한 느낌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판결문 요지를 읽으면서 나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자 했을까 싶었다. 동시에 판결 하나를 내리는 데에도 엄청난 법 지식과 사건에 대해 전문적 관을 버리고 제3자의 입장과 같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판결문 분석하는 활동 하나만으로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다양한 법률 용어를 알게 되고, 쟁점 정리 활동을 통해 어려운 용어들로 나열되어있는 긴 문장을 핵심만 뽑아서 압축하여 간결하게 쓸 수 있는 능력 또한 발전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번역봉사 활동이다. 이전에 사회봉사를 신청했을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번역봉사를 진행했었다. 그때엔 미국의 헌법을 번역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전공과 맞는 법률 번역함으로써 봉사 활동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었고 싶었다. 이에 따라 이번 봉사 활동은 미국의 형법을 번역해보기로 했다.

미국 형법은 저번에 헌법을 번역할 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듯했다. 법 조항 자체에서 반복되는 말을 줄이기 위해 기호와 줄임말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호와 줄임말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차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때, 기호와 줄임말 등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장', '~번째 페이지'처럼 비슷한 것을 의미하는데 표기는 서로 다르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었기에 부가적으로 2차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이후에 번역을 할 때 '형법에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예상한 형법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은 듯했다. 그저 사소한 범죄부터 강력 범죄 관련된 것 정도까지만 다룰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더 넓은 관점으로 범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똑같은 단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의미가 아닌 또 다른 의미로 쓰인 건지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하다 보니 한 문장 한 문장 공들여 번역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다른 나라의 법률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 유익했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다.

○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최 ○ 준

겨울학기부터 봄학기 연장까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법률봉사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류하고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이 선거 활동 중에 많은 부분을 다루는 공약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공약을 지키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공약을 검토하면서, 대체로 선거 시기에 말한 공약은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그 이행정도를 알기 힘들었습니다. 공약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미 이행이 확실시된 사항이거나 비교적 수행이 쉬운 사항이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하철역 유지 등과 같은 표심을 얻기 위한 중장기 공약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지방 소도시국회의원은 비교적 공약이 적고 큰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대도시의 당의 유력 정치인은 공약의 개수가 많고, 국가적인 큰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약 내용을 검토하면서 공약 이행률을 조사했습니다. 공약 내용과 이행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이전에 이미 그 공약에 대한 내용이 제안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변화되어 온 이력이 있는지, 공약 이행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기 전에는 공약 이행 관련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 국정에 대한 자료를 찾기 굉장히 힘들고, 홍보 기사 혹은 국회의원 개인 블로그가 아니면 국회의원의 공약 수행 진척도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과정을 표시해주는 국가 인터넷 페이지가 생겨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은 더욱더 홍보를 할 수 있고,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될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

추가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정책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국민의 희생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이전보다 정치적인 문제들에 깊게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평등이나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느껴보면서 정치와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정치 활동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도 향상시켰습니다. 국회의원이거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할 수 있게 된 데에 가치를 느꼈습니다.

○ 홍익대학교 법학부 최재문

지난 3월 법률소비자연맹의 불학기 봉사활동 신청 공고를 보고 법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저에게 이보다 의미 있는 활동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 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진 않지만, 그동안 몇몇의 대외활동들을 해왔지만, 이번 봉사 활동이 저의 전공과 관련 있었기 때문에 설레기도 했지만, 처음이기도 하고 언뜻 봤을 때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를 활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1번 법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막연하게 법정을 방문했다보니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방청하는 방법을 몰라 복도에서 꽤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저는 법원과 좀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 법원을 몇 차례 반복적으로 방문하다보니 장소 자체가 친밀해진 것은 물론이고 법원에 도착해서 재판이 개정되고 있는 법정에 들어가 소송 관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 강의 시간에 들었던 교과서적 이야기들을 실무적으로 들으면서 나름대로 판결도 내보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법원이 친근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 한 교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이 그 국민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국민이 법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법이 무슨 소용일까. 결국, 법은 국민에게 쉬운 존재하여야 한다.' 이번 봉사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법정모니터링을 하며 위 말씀이 많이 공감됐습니다. 비록 내용이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많았지만, 법정에서 앉아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법과 정치는 우리가 민주사회를 형성하여 살아가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정권 몇 년을 선고받았는지, 누가 이번에 어느 지역에서 당선되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관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만들었다면 투표를 통해 누군가를 대표로 내세우고 법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몇 번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던 제가 후보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이행률을 조사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의 친구들과 정치 현안이나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대해 깊은 토론을 나눴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민주 국가의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선된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고 또래의 법, 정치 의식을 조사해보니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대표로 뽑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대표가 정말 나를 위해 일하는지,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정말 우리를 위해 가동되고 있는지 사소한 것부터 감시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 시민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이 활동이 앞으로의 저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3년 불학기 제가 한 활동을 잊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서는, 조금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과 정치와 우리 사회에 조금 더 깊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뿌듯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 버클리대학교 Global Studies 최 ○

저번 학기에 있어서 두번째로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번 학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필수 활동들을 하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다. 저번 학기에는 다양한 민, 형사 사건들을 다루는 법정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학기에는 의정모니터링 및 공약 이행률 조사,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 그리고 번역 봉사를 초점으로 두고 봉

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의정 모니터링은 제21대 국회의원의 공약분류와 공약이행률 조사로 나뉘었는데, 얼핏 듣기엔 지루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돌이켜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았던 유익한 활동이었던 것 같다.흔히 사람들은 선거 당시에만 공약들을 열심히 볼 뿐, 당선 이후의 정작 중요한 이행률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 활동을 통해 나 자신에게도 그러한 게으름이 있진 않은가 반성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처음에는, 활동 도중 수많은 공약들을 읽어보면서 이것들이 과연 정말로 이루어졌을까, 단순히 포퓰리즘을 위해 무게 없이 남발된 공약들은 아닌가하는 의심도 조심스레 해보았지만, 다행이도 그저 근거 없는 비관주의일 뿐이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필수 활동이었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에서는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나눠주며 조사를 했는데, 대학 재학 당시 Global Studies 전공 수업에서 비슷한 활동을 해본 경험이 몇 번 있어 활동 자체는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졌다. 다만, 설문지 내 생소한 이슈들이 꽤나 많았는데, 유학생 출신이라는 변명을 보태더라도 스스로가 한국 내 정치 이슈에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저번 학기에 하던 미국 인디애나주 헌법 번역 봉사를 마저 끝마친 뒤, 평소 관심 있었던 국제법 관련 번역 봉사를 신청하였다. 학기 동안 The Treaty on European Union을 번역하였는데, 대학에서 EU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서 재밌게 번역했던 것 같다.시간이 부족해 조약을 아직 전부 읽지 못 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이어서 번역 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최 ○ 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대학생으로서 봉사활동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법률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며,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이번 불학기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자 계기였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법률연맹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위와 같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에 대한 저의 생각도 더욱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으로 영국 인권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유럽인권협약과 그에 기초하여 제정된 영국 인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법은 인종, 성별, 종교, 출신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번역 과정을 통해 법률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와 관행을 고려하여 번역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구조와 법률 원칙에 대한 이해도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번역봉사 경험을 통해 큰 영감과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영국 인권법은 인권과 자유의 보호가 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이념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번역하면서, 인권과 법률을 통한 권리 보장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위 분야를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과정에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법률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부차적으로, 유럽인권협약을 각국이 승인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협약은 각 회원국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동의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영국이 입법 당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협약 승인국 간에 이러한 원칙을 공유함으로써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권 보호와 진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의 틀을 고려하며 영국 인권법을 번역한 결과, 그 과정이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필수활동인 의정모니터링의 일환으로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 공보를 분석하고 공약을 정리하며 검토하는 봉사활동 역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약은 사회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과 신뢰의 표현이므로, 이를 지키는 것은 유권자들의 신뢰와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 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은 자신의 공약을 신중하게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언론, 시민 단체, 사회적 관심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약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인 지표와 평가 기준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는 정치 문화와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없이는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에 급급하고 자신의 지지 집단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실현 가능성과 사회 전반에 파급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공약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참여 기회의 공평성이 더욱 증진되어야 하고, 정치인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작성한 두 활동을 비롯한 여러 법률 관련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뿌듯함을 느꼈고, 작게나마 법을 통해 사회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법적 원리와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법과 정의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열정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은 미래에도 법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열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열정을 실천으로 만들어 나가는, 의식을 갖춘 시민의 일원으로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추 ○ 경

대학원 진학에 도움될 만한 대외활동을 찾아보다 알게 되어 법률연맹 봄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학기에도 신청은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끝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일단 집에서 재택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봉사를 할 수 있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법률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봉사활동 매뉴얼에 자세히 잘 안내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번 봄학기에 참여한 봉사활동은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의정모니터링', '법정치의식조사'입니다.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의정모니터링에 배정받은 국회의원 3분 중 2분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근접한 지역구 의원들이어서 익숙했고 더욱 흥미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도 않으면 파악하기 힘든 공약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러 간 날은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학기 중이라 학교도 가야해서 이번 학기에는 참여하지 못할까했지만 휴강이 생긴 날에 아침 일찍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법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위압감에 혼자 가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지만 막상 들어서니 안내도 잘되어 있고 법원이라고 해서 별 다른 것은 없구나라는 걸 느끼며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 그냥 중간에 들어가도 되는지 등 법원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에 두려움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방청 도중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한다고 퇴실 요청을 받았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판사님들마다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나 분위기도

사뭇 다르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좀 더 법원 그리고 재판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가장 많이 참여한 봉사활동은 판결문리서치입니다. 처음에는 판결문을 고르는 것도 오래 걸리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하다보니 요령도 생기고 쟁점과 판단을 파악하는 것도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가장 재미있고 저에게도 도움이 된 봉사활동인 것 같습니다. 긴 글을 읽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읽다보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재미있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기도하며 좀 더 입체적으로 판결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사고를 파악하고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며 과거와 현재의 사회인식 등이 변화하는 내용들 또한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또 봉사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로 활동 내용들 자체에 흥미가 생긴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변에도 소개하고 추천할 정도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피드백도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여 서울에서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집에서 재택으로 이정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 단국대학교 법학과 한 ○ 은

법학과에 진학한 뒤, 이론적으로 법을 배우면서 어떤 법은 매우 어렵고 어떤 법은 너무 지루해서 법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법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법정을 견학할까도 고민해봤지만 혼자 처음하는 경험이었기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의 자원봉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활동으로 봉사를 하면서 각종 법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에 법에 대한 지루함을 없애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했던 활동은 법정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직접 주변 법원을 방문하여 방청하고자 하는 사건을 직접 선정하고 그 법정에 들어가 판사와 검사, 변호사, 피고인의 태도와 말투를 살피고 그에 대해 평가하며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넓게 살펴본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론으로만 듣던 법이 어떻게 기소되고, 어떻게 변론하며, 어떻게 구형하고, 어떻게 선고하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실제 방문했던 법정은 상상했던 것보다 편안한 분위기였고 판사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중재와 과정을 유도하였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은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좋은 과정이었습니다.

방청을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양형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 제가 스스로 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방청을 하고 싶을 정도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활동은 의정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국회의원과 경기도 수원시 병 김영진 국회의원이 선거 때 세웠던 공약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행되었고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를 직접 조사하고 파악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직접 공약의 이행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평가하다보니 우리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장들, 대통령의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잘 이행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아 국민의 권리가 지켜지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본인이 제시한 공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해명없이 넘어가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국민이 이를 지켜보아야하고 그 역할을 직접 수행한 것이 뜻 깊었습니다.

생활 속의 법과 관련된 활동이 많고 그 중 일부를 법률 소비자연맹 활동을 통해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봄학기 봉사활동과 1학기가 겹쳐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 여러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봄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재밌었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허 정 민

<두 번째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올해 3월, 법률연맹에서의 첫 봉사활동을 마친 후, 곧바로 봄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며, 연초 다짐했던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노라 다짐했다. 겨울학기에 밀린 봉사활동을 기간 끝 무렵에 부랴부랴 진행한 점을 반성하면서, 봄학기엔 신청한 봉사활동을 일찍 완수하리라 다짐했건만, 이번 봄학기마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언론모니터링을 봉사 마감일 가까이에 와서야 마무리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봉사활동이었기에 첫 번째 보고서보다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만큼은 자신할 수 있다.

겨울학과 달리 이번 봄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은 의정 모니터링이었다. 겨울학기엔 법정 모니터링과 언론모니터링 봉사활동만 진행했던 터라, 의정 모니터링은 처음 해보았다. 나의 경우 2차 점검을 담당하였는데, 앞서 공약을 분류하신 분들 덕분에 공약 분류를 하는 수고로움은 덜 수 있었다. 그러나 공약 이행률 조사는 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먼저,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모든 공약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언론에 기사가 나오지 않은 것이 진행된 경우가 있었고, 언론의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각 언론사의 기사와 국회의원 의 개별 홈페이지 등을 대조하여 최대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의정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대략 파악할 수 있었다. 또,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잘 감시하여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법률연맹의 의정 모니터링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로 수행한 언론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내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5월 셋째 주는 특정 주요 이슈들(김남국 코인, 간소법)로 도배되었던 한 주였다. 그렇다고 모든 언론이 동일한 기조로 해당 이슈를 다룬 것은 아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보수, 진보로 분류되는 언론사 간의 특정 이슈에 대한 논조가 극명히 달랐던 것이다. 물론 언론 논조의 다양함이 건강한 언론 기능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안에 대해 아주 극명히 다른 의견을 내보이는 것을 통해 현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상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봄학기 봉사활동을 통하여 의정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의정 모니터링을 수행할 생각이다. 또, 언론모니터링은 하나의 권력 축인 언론을 시민이 감시한다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서, 꾸준히 지속해나갈 생각이다. 뜻깊은 활동을 하게 환경을 조성해준 법률연맹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도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홍 ○ 인

저는 이번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중 미국 국토안보법 번역 활동을 통해 국토안보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토안보법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일부 비판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 국토안보법의 체계성과 구조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규정들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규정과 예외 사항, 그리고 상세한 세부사항들로 인해 법의 이해와 해석이 어렵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법을 평범한 시민들이 이해하고 따르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법의 잦은 수정 역시 복잡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접근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을 번역하면서 미국의 연방제와 주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주의, 그리고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한 분배와 균형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 연방제의 구조는 국가 안보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토안보법 번역 봉사활동을 통해 법체계의 체계성, 복잡성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음은 물론 미국의 법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법적 체계와 관련된 공부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법과 정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 모니터링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정책 공약과 실천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 대표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정치의 중요성과 시민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정치적 참여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민의에 부응하는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법률 관련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유와 평등에 법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법률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저소득층이나 교육적으로 취약한 지역 사회의 법적 이해를 증진하는 활동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확산시키며,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법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홍 ○ 재

<활동 동기> 저는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들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해당 봉사활동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대외활동 중 이 활동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활동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언론 모니터링, 의정 모니터링, 법원 방청 모니터링, 번역 봉사, 심지어 작곡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법을 서류상으로서만 접할 것이 아닌 실무에 응용하는 직업을 꿈꾸는 저로서는, 이 활동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정 모니터링> 이번 봄학기 활동의 필수화되었던 의정 모니터링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면서 그들이 과연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의 유무를 감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제게 배정된 국회의원 중 1명은 국민의 힘 소속 유력 정치인이었습니다. 평소 티비로만 접했던 유력 정치인(국회의원)의 실질적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고 이에 관한 감사를 진행해보면서, 국회의원의 본질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에 대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들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봐야겠다는 마음가짐도 갖게 되었습니다.

<법원 방청 모니터링> 이번 학기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활동은 바로 법원 방청 모니터링이었습니다. 평소 무섭고 멀게만 느껴졌던 법원에 직접 가서 형사 사건, 민사 사건을 방청해보면서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덕역 부근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주로 형사 재판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법원에 들어가자마자 막막했던 첫 광경은 지금도 인상이 깊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피고인 측에게 검사로 보이는 한 사람이 '그렇게 변론하시면 안됩니다. 증거 인멸할 생각도 하지 마시구요!'라며 소리치는 장면은 마치 드라마나 영화로 접했던 법조인 그 이상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방청했던 재판에서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 재판 과정을 실제로 방청해보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각 법조인들이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그들의 소임을 다하는.

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낀 점> 법률 관련 첫 대외화동을 진행해보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활동을, 법위 방청을 통해 실질적 재판 과정을 알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확신과 다짐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있을 가을 학기에 있는 법률소비자 연맹 활동에도 참여하여, 더 많은 법률활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홍 ○ 린

올해 좋은 기회로 법률소비자연맹 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봉사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투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나니 하나하나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또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활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 내가 참여한 봉사활동은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청년대학생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 언론 모니터링이었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는 이번 학기 필수활동이라 하게 되었고,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과 언론모니터링은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이라 직접 신청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통해서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볼 수 있었다.이전에는 한 번도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본 적이 없기에 신기하고 재밌었던 경험 중 하나였다. 사법감시배심원으로 참여한 활동의 재판은 배임죄 관련 사건이었다. 전공이 법학 관련이라, 저번 학기에는 학교에서 형법총론을 배웠고, 이번 학기에는 형법각론을 배웠는데, 배웠던 내용의 일부가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걸 보니 더 재밌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특히, 배심원단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변호사님께서 사건과 관련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해가 더 잘 되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하러간 첫 날, 변호사님께서 이 배심원단 활동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주신바 있다.

덕분에 재판이 더 공평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어떠한 감시 제도 없이는 사법 역시 부패될 우려가 있을 것이라 하셨다. 봉사활동을 하며 이러한 책임감을 더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청년대학생 설문조사와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조사를 하면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설문조사를 취합하면서 주변 친구들의 정치적인 의견과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덕분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름 뜻 있는 활동이었다. 다만, 설문조사에 기재된 질문이나 공약이행률 조사 대상 국회의원에 있어 해당 봉사활동의 정치적인편향성이 살짝 드러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부분이 아쉽지만, 이번 말고는 또 해볼 기회가 없는 활동이라 생각해 열심히 진행하고자 했다.

전체 봉사활동 중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인 활동은 언론 모니터링이다. 20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받았는데, 그만큼의 가치와 노력이 분명히 수반되어 있었다. 10대 일간지의 일주일간 사설 보도를 분석하는 활동이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를 포함해 다양한 신문사의 사설을 읽고 스크랩하여 분석하였다. 사설의 경우, 특정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 부분을 분석하는 게 재밌었다. 일부 언론사는 대중이 익히 알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사설에 그대로 드러났고, 일부 언론사는 그 성향이 생각보다 덜 드러나 중립적으로 기재하는 경향이 있기도 했다.

한 사안을 두고 다양한 언론사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그 관점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던 게 언론 모니터링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한다. 가장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봉사활동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봉사자분들께도 한 번쯤 추천해드리고 싶은 활동이다.

한 학기라는 길고도 짧은 기간에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었어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 생각보다 해당 봉사활동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게 된 기간이었다.

○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황 ○ 희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학에 와서 처음 하게 된 봉사활동이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했지만, 대학교에 들어오니 내가 직접 봉사활동을 찾아보아야 했다. 나의 관심분야인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이었던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이 눈에 띄어 참여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의 첫번째 활동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여러 자료들을 통해 봉사활동의 목표와 활동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다. 특히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 봉사자들이 개인과 공동체의 으뜸 리더이자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봉사단의 목적을 읽고 더욱 책임감을 갖고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봉사활동의 두번째 활동은 의정모니터링이었다. 제21대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류하고 이행률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분류된 공약이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공약의 목적이 분명한지 확인한 후 공약이행률을 점수로 판단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보고서, 뉴스 기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 다양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회의원이 공약을 이행했는지 찾아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대한 여러 배경지식도 얻게 되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의 김병국 의원의 공약을 조사하며 포항의 산업 특성과 교통에 대해서 많은 배경지식을 얻게 되었다.

다음 활동으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4월 25일 제60회 법의 날, 5월 10일 유권자의 날에 청년대학생의 법정치의식을 수렴하여 정의 실현과 국가사회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우리 국가사회의 법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을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사회적 이슈도 많이 접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또한 이 서울신문 지면에 기사로 기재된 설문조사 자료의 응답 통계를 통해 다수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었고 유용하게 쓰였다는 점에서 뿌듯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활동은 번역봉사였다. 나는 미국 플로리다주 헌법을 번역하였는데, 번역을 하기 전에 미리 플로리다주에 대한 배경지식을 찾아보았다. 플로리다주의 정착민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플로리다주의 주요 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배경은 헌법을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헌법과의 구조와 내용 측면에서의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로웠고, 'violation(위반), valid(효력), legislature(입법부), amendment(개정)'과 같은 영어 법률용어들을 알게 되었다.

이번학기에 참여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법과 시민의식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을지 떠올려볼 수 있었던 유의미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봉사의 진정한 의미와 취지가 무엇인지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 이하 법률연맹 홈페이지의 자원봉사 소감문을 참조

The Due(Tr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
공정한 사법은
민주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미국 George Washington이 1789.9.28.초대 대통령 취임직후
초대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임.
현재 뉴욕 변호가 Supreme Court에 각인 · 선언되어 있음